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0월 8일 수요일 (주간) 제 442 호

템플 스테이

대학교양과목 됐다

중앙대 내년부터 3학점 '내마음 바로보기' 신설

수강 정원 40명…마곡사서 2박3일 5회

명상·상담 통해 마음 열어 가는데 초점

산사체험프로그램인 템플 스테이(Temple Stay)가 대학 교양학부의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됐다.

중앙대는 10월 2일 열린 2004학년도 교양과목 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학기부터 산사체험프로그램인 '내 마음 바로 보기'를 3학점짜리 교양 선택과목으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지난 97년부터 1학점짜리 계절학기 과목을 운영해 오고 있긴 하지만 일반대학에서 학기 중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 마음 바로보기'는 공주 마곡사에서 2박3일 일정으로 다섯 차례 실시되며 수강인원은 한 회당 40명씩 200명 정원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되돌아보는 명상시간, 108배 및 새벽숲길 걷기 명상, 발우공양, 타인의 마음 받아주기, 자기 마음 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다른 교과목과의 형평성을 고려, 2박3일의 산사체험프로그램 참가 외에 6시간의 봉사활동을 첨가했다.

이 학교 교양학부 최달호 계장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생존경쟁 속에서 대학생들이 정신적인 황폐화·공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신적 여유를 찾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입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을 경우 횟수와 수강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프로그램 진행과 평가를 맡게 될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은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역시 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셈"이라며 "너무 빡빡하게 뭔가를 가르치기보다 명상과 상담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열어나가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중앙대의 교양과목 채택은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는 산사체험프로그램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사체험 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하나은행을 필두로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한일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월 26~28일 전등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실시할 정도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템플 스테이를 외국인 대상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뽑기도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알리는 데 절보다 좋은 곳은 없다"며 "사찰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원각사지 10층석탑 · 보호각 균열

국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석탑(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내)의 2층 지붕돌에 최근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균열이 발생했다. 탑 보호를 위해 99년 설치한 유리 보호각(사진 오른쪽 위)에도 금이 생겨 종합적 보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사진=박재완 기자

김태복 장군 제적은 위헌

"재심 통해 무죄증명 할 것"

법당 건립 시주금이 뇌물로 간주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태복 장군이 박탈당한 계급과 직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9월 25일 현행 군 인사법 규정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김태복 장군이 지난 4월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 장군은 육군 소장으로 명예퇴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현행 군 인사법은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의 사유에 넣고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 장군은"특가법상의 선고유예 판결은 아직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수재민들 고통 덜어주세요

태풍 '매미'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비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수재민 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을 벌입니다.

수재민들이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불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대한불교신문사 · 법보신문사 · 불교신문사 · 주간불교신문사 · 현대불교신문사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11-991(재)불교중앙교육원, 농협 053-01-239894(재)불교중앙교육원

※성금 접수처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735-5864)

감동의 신행체험수기 공모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 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9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회장상이 신설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 ●접수 마감: 12월 13일

200자 원고지 30매…12월 13일 마감

●시상내역

- ■ 대상(우마상)
- ■ 우수상(본사 사장상)
- ■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조계종 통합신도회 출범

18~19일 갑사 유스호스텔서 전진대회

내년 3월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10월 18~19일 공주 갑사 유스호스텔에서 '신도회 통합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양 단체 대의원과 지역별 신도단체 주요 임원 · 실무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하는 통합 전진대회는 그간 지역이나 단체별로 진행돼 오던 통합 신도회의 사업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은 "통합 신도회의 골격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신도법 관련 종헌 · 종법 개정, 조직 구성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통합 출범까지 8부 능선을 넘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해외 유출 불교문화재 4만여점

문화재청, 학술조사 · 기증권유 등 추진

9월 30일 문화재청 발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7만5,966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문화재도 4만여 점이나 된다. 이는 각종 자료를 취합한 결과여서 실제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조계종 문화국장 심원스님은 "장기적으로는 이들 문화재의 반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이를 문화재에 대한 학술 조사를 벌이는 한편 소장국가 또는 기관의 박물관에 기증권유와 한국실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도롱뇽이 환경부장관 고소

도롱뇽(사진)이 원고가 되어 환경부장관을 고소하는 이색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고발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반대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천성산전국비대위)가 준비 중인 재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재판이다. 도롱뇽을 대신할 소송대리인은 지율스님이 맡는다. 천성산전국비대위측은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쳤고 서류 준비가 진행 중이다.

도롱뇽이 환경부장관을 고소하는 이번 재판은 고속철 공사를 앞두고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천성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법적 보호 동 · 식물 40여종을 한 종도 보고하지 않은데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도롱뇽마저 빠뜨릴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천성산전국비대위는 "천성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대신해 도롱뇽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라며 "인간 위주의 사고와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상징적인 재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새, 나무가 각각 원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원고 적격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재판이 진행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서식지 파괴를 이유로 토끼가 원고가 되었던 재판에서 토끼가 승소한 판례가 있다. 개발 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환경재판의 새로운 상징이 될 도롱뇽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천미희(부산주재 기자)

고려목판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안내문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축원 드리옵니다. 가야산 해인사는 천이백년의 긴 세월 동안 화엄의 근본도량으로서 중생들을 일깨우고 불자들의 신앙적 귀의처가 되어왔으며, 오백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입니다.

해인사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고려목판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신앙심 고취를 위한 「보살계 수계법회 및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가야산 해인사에서 봉행하는 「목판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법회 및 영가천도 법회」에 신도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오며, 고려 목판 팔만대장경과 불법이 이 땅에 오래 머물기를 우리 다함께 발원합시다.

이번 9월 불사 때 천도하기 위해 모시는 위패는 해인사에서 봉행하는 1029일 천도재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특별히 집안에서 꼭 모시고 싶은 중요한 조상님이나 주변에서 억울하게 가신 분들의 위패만 모시고 해인사에서 봉행하는 1029일 천도재에 동참하지 못한 신도님은 시댁과 친정의 조상님을 이런 기회에 많이 모시기 바랍니다.

오백대중이 상주하는 한국최고의 수행도량에 정성껏 천도를 모시고 나면 신도님 스스로 잘 모셨다는 느낌이 올 것 입니다. 이번 음력 9월14일~15일 1박2일간 큰 스님들을 모시고 올리는 목판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수계법회와 영가천도법회에 이웃과 함께 많은 동참바라며 이차 인연 공덕으로 불자님들의 가정에 안녕과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원만히 성취되시고 구경에 성불하도록 우리 다함께 기도 발원합시다.

불기 2547년 10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 인 사
주지 수봉 세민 합장

법회일정안내

- ◉ 증 명 :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법전 대종사
- ◉ 보살계 초청법어 : 조계종 원로위원 · 해인총림 동당 가산 지관 큰스님
- ◉ 보살계 삼화상 : 전계아사리 / 도림 법전 대종사
  갈마아사리 / 수봉 세민 대화상
  교수아사리 / 일장 혜능 대화상
- ◉ 법 사 스 님 : 불사법문 - 종묵 큰스님 영가법문 - 혜능 큰스님
- ◉ 법회일정

10월 9일 (음력 9월 14일)		10월 10일 (음력 9월 15일)	
입재	오후 4시	영가시식	오전 4시
예불기도	오후 6시	괘불봉안	오전 7시30분
보살계법문	오후 7시	수계식	오전 8시
영가천도 대령관욕	오후 9시		

- ◉ 보살계 동참금 : 삼만원 ◉ 영가 동참금 : 1위당 만원
- ◉ 접 수 처 : 종무소 / 055-934-3000~3 원주실 / 055-934-3087
  천도재 사무실 / 055-931-8771 / 934-3105~6
  Fax / 055-934-3010
- ◉ 온 라 인 접 수 : 농 협 843174-51-003929 예금주 : 해인사
  우체국 611806-01-000327 예금주 : 해인사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후 전화 확인 바랍니다.

사 설

대학 강의실 된 템플스테이

중앙대학교에서 템플스테이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불교인으로서도 놀랄 만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중앙대의 건학 이념이 특정 종교를 표방하지 않았다 해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 특히 학부 과정은 학문 그 자체보다는 학문하는 방법 혹은 태도를 익히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중앙대의 결정은 시쳇말로 '튀는 행위'가 아니라 학문의 주체인 학생의 '사람됨'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중앙대의 계획은 '실험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다. 2박3일의 템플스테이와 6시간 봉사 활동을 하면 3학점을 인정한다는 것이 전부다. 따라서 그 의의만을 두고 호들갑을 떨거나 '역시 불교는 대단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 중요한 건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있다. 중앙대의 결정이 현명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길 넘어 불교가 가야할 길 중 튼실한 한 길을 닦는 일이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가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 채택된 데는 어떤 도그마도 거부하는 '선(禪)'의 정신과 보편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선의 정수를 체험하게 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종립대학인 동국대조차도 템플스테이는 계절학기 과목인 상태다. 이번 사례가 더욱 확대되고 뜻한 바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계종단 차원의 배려와 세심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한국 노인들은 죽고 싶다

'생로병사', '성주괴공'.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와 사물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자연스런 생명 활동인 것이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는 죄악이나 형벌에 가까워지고 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 이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가장 괴로운 날이었을 것이다. '무르익은 삶'을 즐기는 게 아니라 '아직 죽지 못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61세 이상) 10만명 당 62명이 '자살'이라는 최악의 방식으로 삶을 마감한다고 한다. 숫자에 둔감한 사람들은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 국민 자살률의 2.3배에 이르는 수치라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지금 이 땅의 노인들 '불행지수'는 한국민 전체의 2.3배다.

노인 자살의 주 원인은 결국 '돈'이다. 생활고에 따른 소외감과 고독감이 자살의 주된 원인인 것이다. 물론 자녀들의 학대에 의한 자살도 있었지만, 그 또한 경제력과 무관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고령자 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인 자살을 막을 수 없다. 노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 노력은 생명 존엄을 일깨우는 것과 함께 '피난처' 제공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범불교적 노력이 구체화돼야 할 때다. 중생의 고통을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의 존재이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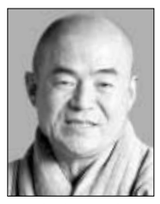
조계종 선원장회의·전국 선원수좌회 통합

간화선 수행기풍확립 나섰다

"선종은 돈오적…최상승" 조사선 우월성 옹호

선원장들 '간화선 수행체계' 집필키로


◇고우 스님


◇혜국 스님


◇무여 스님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과 수좌회가 뜻을 모아 간화선 수행기풍 확립에 조용히 나서고 있다.

조계종 선원장회의와 전국선원수좌회는 지난 8월 19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모임을 갖고 두 단체가 통합해 조사선 수행기풍을 회복하는데 진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원장회의가 친목모임으로 계속 존속하되 수좌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한 이날 회의에서는 조계종 수행체계 확립불사와 관련, 이 사업의 핵심인 (가칭)<간화선 수행체계> 집필에 나서기로 했다. 이 책의 집필진에는 선원장회의 회장 혜국스님,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장 고우스님, 축서사 주지 무여스님, 양평 상원사 선원장 의정스님이 포함됐다.

혜국 스님은 10월 2일 전화 통화에서 "종단에서 이론과 실참을 겸비한 선원장들이 집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뜻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의 '간화선 위기론' 등의 보도와 관련 선원장 스님들이 기존의 '묵빈대처'의 입장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고우스님은 월간 <법회와 설법> 10월호를 통해 최근 남방 위빠사나의 대두와 관련, "위빠사나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하는 수행법이다. 절대자리에서 보면 부처와 중생, 진과 망, 자타, 우열, 귀천이 없는 최상승이 보편되어 있기에 조사선은 최상승선이다. 적적성성(寂寂惺惺), 성성적적으로 적(寂, 사마타, 定)과 성(惺, 위빠사나, 慧)을 함께 닦는다는데 동일한 점이 있으나 깨달음에서는 위빠사나가 점진적인 반면, 선종은 돈오(頓悟)적이다"며 거듭 조사선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무여 스님도 9월 28일 축서사에서 '선지식이 부재하다'는 세간의 평가와 관련 "수좌계는 50~60대의 차세대 선지식들을 배출하고 2천여 수좌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수행 가풍이 점차 회복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봉화=김재경 기자

"한국불교 禪가풍 전할것"

중국 선수행체험단 이한

중국 '선(禪) 수행 체험단' 일행 10여명이 9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하고 한국불교의 선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한국불교는 선을 버리고는 아무 것도 없다. 선 수행 교류를 통해 불교교류가 증진되고 상호간 이해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선 수행체험단장 루루이(如瑞,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스님은 "한국불교의 훌륭한 선문의 가풍과 선사들의 수행가풍을 이곳에 오지 못한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수행단은 9월 23일 입국해 29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한국불교를 체험한 후 조계사, 관문사, 봉원사 등을 둘러보고 10월 2일 출국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지법, "이유없다" 기각

서산 부석사 간월암 주지 원융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상대로 제기했던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홍훈)는, "법장스님이 구족계를 비정상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총무원장 피선거권이 없고 따라서 당선은 무효"라며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9월 26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제50민사부는 판결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법장스님)이 1971년경부터 비구계를 수지하지 아니하면 취임할 수 없는 영랑사, 수덕사의 주지, 종단의 종회의원 등을 역임한 점, 피신청인이 비구계를 수지할 무렵에는 종단 내부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하여 불기의 적용, 비구계 수지방식 등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기도 하였던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1965년 구족계를 수지했고, 1971년 다시 수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신청인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고 다른 입후보자들도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한 점, 종단의 원로회의가 피신청인의 총무원장 선임을 추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오히려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종단에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포교대상 후보자 접수

조계종포교원 17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제15회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을 10월 17일까지 받는다.

추천 분야는 계층포교(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직능포교(군, 경찰, 직장직능 등), 문화체육포교(미술, 성보, 건축, 음악,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사회포교(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매체포교(방송언론, 신문, 잡지, 출판, 인터넷 등) 등 5개 분야이며,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 또는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와 포교활동 공적서, 후보자 이력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12월13일. (02)720-7060~3

권형진 기자

선본사주지에 보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9월 30일 선본사(일명 '갓바위') 주지에 보정스님을 임명했다.

보정스님은 무공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0년 동화사에서 경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수덕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영탑사와 고산사, 보문사 주지를 거쳐 현재 정암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심 민 섭



신흥사 등 87개 사찰 감사키로

조계종 종정감사특위, 10월 14~23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정감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 총무원 1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감사대상 사찰 및 감사반을 편성하고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감사대상 사찰은 신흥사 · 월정사 등 23개 교구본사, 도선사 · 연주암 등 특별분담사찰 7곳, 조계사 · 보문사 · 선본사 등 직영사찰 3곳과 관람료 사찰 중 2001년도 예산안 또는 2002년도 결산 기준 2억원 이상 사찰 33곳을 포함한 87개 사찰이다. 한명우 기자

11월 23일 포교사 고시

10월13일까지 원서 접수

제9회 조계종 포교사 자격고시가 11월 23일 동국대 등 국내 7개 고시장과 미국 LA관음사(현지시각 11월 22일)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원서 접수는 10월 13일까지. (02)720-7060 권형진 기자

팔공산 은해사 제1194돌 개산대재

미타도량 은해사는 서기 809년 신라 헌덕왕 원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셨으며, 한국불교의 새벽을 여신 원효(元曉)스님, 우리 문자의 기틀을 마련한 설총(薛聰)선생,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성사(一然聖師)등 삼성현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도량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은해사 개산 1194돌을 맞이하여 개산대법회와 만등불사 및 지장보살 점안식, 가사불사 회향식을 가집니다.

무릇 복된 자리에 동참하시어 선한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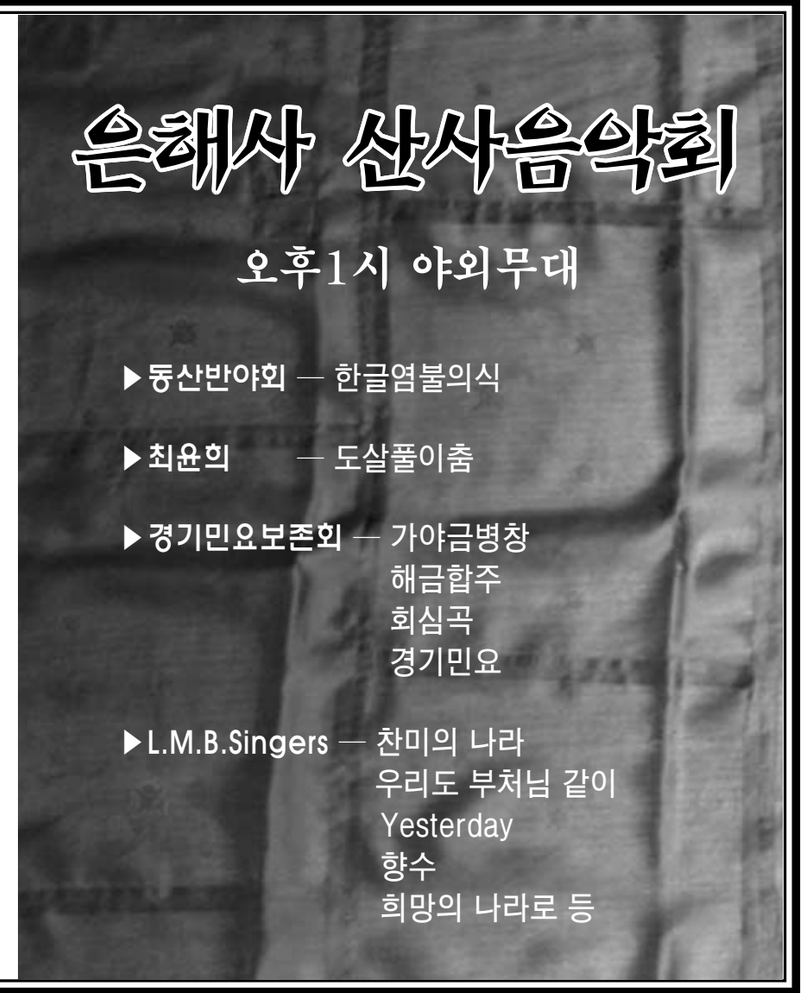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10월 12일(음 9. 17)

■ 법회안내 ■

■ 오전 10시 : 지장보살 점안식
■ 오전 11시 : 1194돌 개산대법회 (가사불사 회향식)
■ 만 등 불 사 (1인 1등 달기)

▶문의전화 : 은해사 ☎ 054)335-3318~9 FAX 054)335-0293, 원주실 054)335-5220
※ 은해사 1194돌 개산대재 행사가 부득이하게 10월 1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신도분들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 해 사



의원들, '북한산 현장' 겉핥기 점검

"절에 보상 많이 해주면" … 불교 비하발언도

공사장 방문하지 않은채 20분만에 끝내

회룡사 스님들 "북한산과 생사 함께 하겠다"

조계종이 북한산 관통도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현장 점검에 불교비하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측은 9월 30일 일간지 및 교계언론사 환경 담당기자들과 함께 공사현장이 내려다보이는 경기도 양주군 소재 천주교공원묘지를 방문하고 회룡사 스님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총무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관통도로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과 사실 확인이 부족했다는 판단아래, 북한산 관통도로 개통이 파생시킬 환경훼손 및 생태계파괴, 대기오염 유발 등의 문제들을 정확히 알려 북한산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위성동 박사(한국도로기술 대표이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북한산 노선은 이미 10년 전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8년 최종 실시돼 현재 북한산 주변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실시설계노선은 의정부 IC와 터널의 간격이 적정치 기준인 2Km에 미치지 못해 북한산 관통도로의 본래 목적인 의정부, 포천, 동두천 등지의 교통량을 흡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기오염의 분지로 각종 환경, 생태계 파괴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진행된 회룡사 스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지 성견스님은 "국립공원과 전통사찰이 있는 북한산을 뚫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북한산과 생사를 함께 하기로 한 회룡사 비구니스님 7명의 결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투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10월 1일에는 국회의원들의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현장점검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현장점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중 절반도 안 되는 7명만이 참석한데다 정작 현장은 방문조차 하지 않은 채 20분 만에 끝났다.

심지어 박혁규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도 광주)은"저기 절에 보상을 많이 해주면 되잖아요. 간단한 것 아니에요. 돈 많이 주면 안 나가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 의원의 발언을 비난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공론조사 의견조율 활발

불교계·관련단체들 수용여부 토론

문광장관, 법전스님 예방 협조 요청

북한산 관통도로 공론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불교계, 시민 · 환경 단체, 정부가 잰걸음을 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수경스님과 환경운동연합 최열씨,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 · 환경단체 실무자들은 10월 3일 저녁 유인태 정무수석 등 5명의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북한산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이날 낮에는 수경스님과 최열씨 등이 총리공관에서 고 건 총리와 만나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다.

1일에는 조계종 공대위와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노원 · 도봉시민연대 등 6개 시민 · 사회 · 환경 단체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토론을 벌였다.

이창동 문광부 장관은 9월28일 해인사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을 예방하고 공론조사 수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전스님은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명우 기자

"불교문화재 237점 돌려주겠다"

중앙박물관, 국감서 조계종 요청 수용 뜻 밝혀

소유권 논란 4점은 법 결정 따라 처리

조계종이 국 · 공립박물관에 소장된 사찰 기탁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조계종이 요청한 241점 가운데 237점에 대해서는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신원사 석탑 발견유물 등 소유권 논란이 있는 4점과 수종사 출토 유물 등의 불교 문화재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반환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9월3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2003년 1월 현재 총27개 사찰의 98건 2,121점의 불교문화재가 타 기관에 대여돼 있다"며 "조계종이 우선 반환을 요청한 241점의 불교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원래의 소유자인 종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답변에서 "조계종에서 반환 요청한 241점 중 소유권이 확실한 237점은 반환에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유권 논란이 있는 △신원사 오층석탑 기단부 발견 유물 2점 △백률사의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28호)과 석조 이차돈 순교비 등 2점 등 4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4점 모두 국유문화재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며, 법률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혀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조계종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불교 기탁문화재로, 문화재청에는 국유문화재로 소유자가 상이하게 기록돼 있는 수종사 부도 출토유물(보물 259호)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심재권 의원은 "조계종과의 소유권 분쟁이 우려되는데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두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재 소유권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전통한정식 복 현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주차장완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합장 배례



◇10월 2일 부산 롯데호텔 대강당에서 열린 맑고 향기롭게 10주년 기념 법정스님 전국 강연회 모습.

"하나로 만족하는 삶 사세요 욕심내면 그 하나도 잃게 돼"

법정 스님, '맑고향기롭게' 10돌 기념 순회 강연

목표 곧장 가기보다 돌아가는 여유 필요

생물·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지혜 배워야

"그동안 잘 사셨습니까?"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갈수록 불안해져만 가는 우울한 사회를 떠올렸을까. 법정스님은 부산 롯데호텔 대강당을 입추의 여지없이 꽉 채운 8천여 대중들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지며 부산 강연을 시작했다. 대중들이 "예!"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자 스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강연을 이어나갔다.

맑고 향기롭게 창립 10주년을 맞아 광주, 창원, 부산, 대구를 순회하며 강연회를 연 스님은 9월 29일 광주 강연을 시작으로 10월 1일 창원, 2일 부산, 4일에는 대구 강연을 잇따라 가졌다.

이번 전국 순회강연은 맑고 향기롭게 지방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국 2만 여 대중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맑고 향기로운 삶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부산 강연에서 법정 스님은 "우리의 삶은 숱한 연관을 맺은 많은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인간뿐 아니라 생물들, 자연 등과 어우러진 우리의 삶에서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워 함께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강연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과 수행자들의 환경운동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불안정으로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인, 종교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자살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자살의 습만을 익힐 뿐이다. 마음의 힘과 지혜를 길러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종교인들이 계도해야 한다"며 종교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법정 스님은 앞서 9월 27일 광주에서 열린 강연에서는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반대 입장도 표명했다.

스님은 "경제논리를 내세운 기존 노선 강행은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경제는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만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메시지 전달도 잊지 않았다. 스님은 "밥도 뜸이 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되는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하다"며 "목표를 향해 곧장 질러가기보다 돌아갈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1일 창원시 KBS 창원홀에서 열린 강연에서 서양식 생활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스님은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정상을 이탈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며 "하나로 만족하라. 그렇지 않고 욕심만 내면 가지고 있는 하나도 잃게 된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천미희 · 김철우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수성구 포교원
직지불교대학 · 황룡사
남북통일 발원 및 수재민 돕기
약사여래 대불 점안대법회
자비 산사 음악회
■ 법 어 : 혜창 큰스님 (직지사 전주지)
■ 격려사 : 자광 큰스님 (직지자 주지)
■ 산사음악회 특별출연 : 불자가수 박정식 (곡목 : 천년바위 외)
일시 점 안 식(1부) 2003년 10월 11일(토) 오후 4시
산사음악회(2부) 2003년 10월 11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황룡사(지산삼거리)
장소 053)784-8620, 8619
약사여래대불 조성불사 동참안내
● 대공덕주 : [ ] 원
● 공덕주 : 오백만원
● 설판 제자 : 일백만원
● 동참시주자 : 오십만원
● 석등시주(개당) : 삼백오십만원
● 촛 대 : 삼백만원
● 향 로 : 삼백만원
● 다 기 : 삼백만원
동참하실 분들의 입금계좌
• 예금주 : 이 현 무
• 농 협 : 718-02-165594
• 대구은행 : 056-08-352507
※입금후 확인전화 당부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 버스노선(좌석버스) 403, 415, 449, 514 (남부정류장 경유)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수성구 포교원
황룡사 직지불교대학
전화 053)784-8620,8619

일주문



소아암 환자 돕기 음악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법장(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11일 동국대 90주년 기념관에서 소아암 환자 돕기 음악회를 개최한다.



보살계 및 영가 천도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은 9~10일 이틀간 '목판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법회 및 영가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와룡정사 이전개원

대구 직지불교대학 와룡정사 주지 정업 스님은 1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달서구 용산동 4층 법당에서 이전개원법회를 봉행한다.



"물은 우리 몸입니다"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은 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물은 우리 몸입니다'란 주제로 열린 2003년 물의 해 기념 세미나에서 주제 강연을 했다.



위덕대 상징 동물, '무소' 선정

경주 위덕대학교 손제석 총장은 최근 본관 회의실에서 교무위원회를 열고, 대학 상징 동물로 무소를 선정했다.



'기빙 엑스포 2003' 개최

기빙 엑스포(Giving Expo) 2003 조직위원회 박원순 공동대표는 10~12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부 엑스포 행사를 갖는다.



'안성 축제' 1~5일 개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박범훈 공동위원장(중앙대학교 부총장)은 1~5일 안성시 종합운동장에서 '안성 남사당 축제'를 개최했다.



송담스님 계사로 수계법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노영화 회장은 5일 인천 용화사에서 법보선원장 송담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2일 '사랑 나눔 한마당'

철도청 성북승무소 법우회 박우락 회장은 12일 성남시 자광원에서 국인인 초청, '사랑 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창립2주년 기념 법회 봉행

전라남도청 불자회 박재순 회장은 16일 광주시 향림사 대웅전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11~12일 해인사 등 성지순례

한국세무사불자회 이선희 회장은 11~12일 이틀간 합천 해인사, 원당암, 수도암, 청암사, 겁외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불교 인성공부로 자기개혁 유도"

'자아찾기 특별강좌' 개강한 종신 스님



"잘못된 사고와 판단에서 비롯되는 사회병폐들을 불교핵심사상에 근거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옛 중앙승가대학교 개운사 내 '자아(自我)찾기 특별강좌'를 개강한 '불이불교대학' 학장 종신스님(개운사 주지 · 사진)은 이같이 말하며, 가치관과 자아가 상실돼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인성(人性)공부 기회를 제공해 정체성 확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종신스님은 또 "일반 신자들은 불교의 개념조차 이웃에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존의 불교기본개념 중심의 교육이 아닌 직접 느끼고 체득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 새로운 신도교육체계를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불이불교대학 내 '심성의 양면성' '내속의 참 나' '가정의 도' 등 인성교육 초급반과 불교기초교리 중심의 중급반, 경전강독 위주의 고급반 등 단계별 교육체계를 마련했다.

스님은 신도교육시스템이 자리가 잡히는 내년 초쯤 시민단체와 연계해 전문적인 인성 · 심리연구기관인 '인성교육개발연구소(가칭)'를 설립할 생각이다. 이 연구소는 심리학자, 청소년학자, 교육학자 등 관련분야 전문연구진들을 주축으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인성교육이 가정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 분석할 계획이다. 스님은 이를 통해 청소년 인성 국정교과서를 발간하고 연령별 인성교육시스템 구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직접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체험교육에 집중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9월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탄허대종사 열반 20주기 기념식 모습. 사진= 박재완 기자

"동양사상에 박학했지만 늘 겸손"

탄허대종사 '방산굴 법어집' 발간 대법회

오대산 월정사와 탄허문화재단은 9월 30일 세종문화회관 대연회장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허대종사 열반 20주기 기념 학술세미나 및 <방산굴 법어집> 발간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은 "탄허스님은 동양사상을 꿰뚫을 만큼 학식이 밝았지만 항상 겸손했던 분"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한국불교의 등불이셨던 큰스님의 넉넉한 가슴과 후진양성에 바친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의원 지관 천운 성수 스님, 화엄사 회주 각성,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월정사 주지 현해, 전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전 불국사 주지 설조, 전 범어사 주지 흥교, 신흥사 주지 마근, 대흥사주지 몽산, 금강선원장 혜거,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과 홍기삼 동국대 총장, 손학규 경기지사, 김광삼 현대불교 사장, 함종한 전의원, 전창렬 탄허재단 이사장등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법화천태 홈페이지 개설

혜경스님, '법화경' 등 올려



서울 수유리 무설정사 조실인 혜경스님(사진)이 최근 홈페이지(www.museol.com)를 개설한 데 이어 한글 도메인 등록('법화천태')을 마쳤다.

재단법인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과 법화불교대학장 등을 지낸 스님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법화경> 번역의 권위자. 스님은 "<법화경>의 본래 의미와 바른 수행법을 전하기 위해 '법화천태'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39사단 신교대 수계법회 봉행



경남향승위원회(위원장 동성 스님)는 9월 28일 창원 39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생 250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동성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부처님 법에 귀의하는 것은 각별한 인연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재민 돕기 나눔의 행사 벌여



대구불교사회복지회(대표 지도스님)는 9월 28일 산하 12개 복지단체 연합으로 대구 달성군 유가면 일원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대구불교사회복지회가 5개월여 준비해온 자원봉사자축제를 취소하고 수재민 돕기 나눔 행사로 전환해 개최됐다.

동화사 청년회 재창립법회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청년회 재창립 법회가 9월 28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렸다. 이날 재창립 법회에서는 김상수 동화사신도회장, 고경순 자비의전화회장, 청년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화사 청년회장에 김태홍(38 · 불명 진광)씨가 선출됐다.

이라크 파병 군법사, 법장 스님 예방



1969년 월남전에 이어 군법사로는 두 번째로 서희부대 일원으로 이라크에 파병되는 강창모 대위가 10월15일 출국에 앞서 9월30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했다. 스님은 "위험지역에 용기를 내 간다는 것은 보살정신이며, 당당하게 불교를 알려 달라"고 말했다.

자아(自我)찾기 특별강좌

人間,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것인가!

생각을 바꾸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길이 보인다

■ 일 시 : 2003년 10월 8일~12월 24일 - 3개월 과정(총 12강좌)
초급반 : 매주 목요일 1:30분 (오후)
매주 수요일 7:30분 (저녁)
중급반 : 매주 수요일 1:30분 (오후)
(중급반은 「사경법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본 강좌 1기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타 교양강좌 수강생도 가능)
■ 장 소 : (구)중앙승가대학교 개운사 內
■ 대 상 : 불교(佛敎 :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 인 원 : 초급반 100명, 중급반 100명
■ 회 비 : 일반 - 6만원, 대학생 -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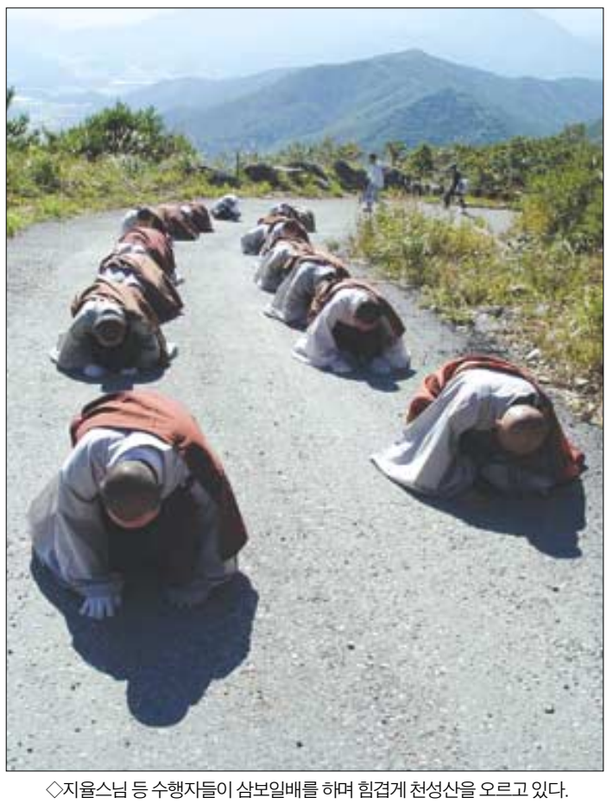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한 요가학교 수련생 모집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주최 : 불교인성개발연구원 • 주관 : 불이불교대학

不二佛敎大學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57 개운사 內
TEL : 922-3026, 926-4069, 924-3841 / E-mail:bulibul@hanmail.net

자아찾기 강좌 안내 (초급반)

10월 주제 (대속에 또 다른 누구가 있다) 自我행복찾기	첫 강의 8일	16일	23일	30일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인성(人性)이란 무엇인가!	자아(自我), 나는 누구인가!
	※ 첫강의는 요일과 시간 관계없이 전 수강생 참석요망 ⊙ 입학식 ⊙ 상호 상견례 (자기 소개) ⊙ 총 12강좌 개요	⊙ 불교란 무엇인가? • 佛敎의 본질과 근본에 대하여 ⊙ 초심(初心)과 발심(發心)그리고 회심(廻心) • "시작은 끝과 같다"는 의미는? ⊙ 안심삼매(安心三昧)란? ⊙ 자아찾기 공부법 • 마음닦는 법과 문자공부 • 참선(參禪), 염불(念佛), 기도법(祈禱法) • 깨달음과 순수(純粹), 그리고 오염(汚染)	⊙ 심성(心性)의 양면성(兩面性) •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중성이 있다. •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 ⊙ 심전(心田)과 종자(種子) • 마음의 밭과 씨앗 그리고 결실 ⊙ 불교의 업(業)과 윤회사상 •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에 대하여 ⊙ 자성(自性)과 십우도(十牛圖) •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진정 없는 것인가?	⊙ 내속에 참나(眞我)와 거짓 나(假我) • 내안에는 누군가가 또 있다. ⊙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란? • 아집, 아만, 아상 그리고 고정관념, 선입견 버리기 ⊙ 불교의 무아(無我)사상 • "내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 ⊙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 •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
11월 주제 (가정생활에서 화목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自我 찾기	6일	13일	20일	27일
	인간, 탄생으로부터의 가능성	가정의 도(道) - 바른길	가정과 자녀교육(子女敎育)	가정과 종교(宗敎)
	⊙ 불성(佛性)사상과 유아독존(唯我獨尊)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 진인(眞人), 참사람이란? • 인간으로서의 최초의 의무 ⊙ 인간의 주체성(主體性)과 다양성 • 인격(人格)과 인품(人品) • 개성(個性) 존중에 대하여 ⊙ 인간의 육체와 정신(精神) • 불교의 육근(六根)과 팔식(八識)이란 무엇인가?	⊙ 영원한 스승 - 부권(父權) • 예(禮)와 효(孝)의 철학 ⊙ 부부화합은 가정화목의 시초 • 금슬상화(琴瑟相和)에 대하여 • 가정의 생명력은 대화에 있다. ⊙ 미풍양속(美風良俗)과 온고지신(溫故知新) • 내훈(內訓), 가훈(家訓) 정하기 ⊙ 안빈낙도(安貧樂道)와 풍요(豊饒) •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 가정은 자녀교육의 최초의 학습장(學習場)이다. • 가족 구성원의 안식처(安息處) ⊙ 자녀교육의 핵심 - "사람됨" • 무엇을 가르치고 훈육할 것인가 • 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 자녀의 인성(人性)교육 • 불교의 출탁(啐啄) 철학 • 자녀조기유학의 허(虛)와 실(實) ⊙ 서구적교육과 동양철학 • 서구적 가치(價値) 최선인가?	⊙ 종교(宗敎)란 무엇인가? • 종교의 본질과 기능에 대하여 ⊙ 무엇을 믿을것인가? • 신앙(信仰)에 대하여 ⊙ 한국종교 비교학(比較學) • 불교, 기독교, 신흥종교에 대하여 • 인본주의(人本主義)와 신본(神本)주의에 대하여 • 사이비(似而非)에 대하여 ⊙ 정법(正法)과 기복(祈福) • 기복은 만능(萬能)인가?
12월 주제 (사회생활 어떻게 할것인가?) 사회에서 성공찾기	4일	11일	18일	25일 12월26일 졸업식
	사회적 언어(言語)의 진 · 위(眞 · 僞)	기본(基本)과 원칙(原則)의 중요성	자본(資本)과 철학(哲學)의 불균형	사회모순 극복을 위한 제3의 道
	⊙ 말(言語)의 허구성 • 소문과 풍문의 허구 • 언어문자의 실체 ⊙ 지식(知識)과 지혜(智慧)의 바른이해 • 지적사기와 불입문자(不立文字) ⊙ 언어의 이중성(二重性) • 영구언어와 일회성 언어 ⊙ 진리(眞理)란 무엇인가? • 진리의 영원성에 대하여...	⊙ 기본과 원칙중심(原則中心)의 지조론(志操論) • 주(主), 종(從)의 관계에 대하여... ⊙ 모든 학문의 개념(槪念)과 정의(定義)의 그리고 가치(價値) • 세목(細目), 대강(大綱) 그리고 범주(範疇) 대하여 ⊙ 한국병(韓國病)은 무엇인가? ⊙ '21C신생(新生') 시민운동 • 보수와 진보 그리고 사회적 진화(進化)	⊙ 자본(돈)과 이념(理念)의 관계 • 돈의 가치와 철학의 가치에 대하여... ⊙ 자본주의 시대, 이대로 좋은가! • 물질만능주의와 배금(拜金)사상 • 약육강식(弱肉强食)에 대하여 ⊙ 새로운 가치창조-파사현정(破邪顯正) • 가치, 판단, 행동에 대하여... • 위대한 거부와 권선징악(勸善懲惡) ⊙ 물질적 풍요(豊饒)와 정신적 풍요에 대하여...	⊙ 제3의 道란 무엇인가? • 인간의 도리, 자연법칙 우주의 섭리-모두가 길(道)이 있다. • 팔정도(八正道)에 대하여... ⊙ 포괄자(包括者)와 대인(大人) • 총체적(總體的)사고와 화(和)사상에 대하여 • 중도(中道)와 중간자에 대하여 ⊙ 불이법(不二法)가 사회질서 ⊙ 연기법(緣起法)과 갈등해소 • 어떻게 살것인가!



◇지율스님 등 수행자들이 삼보일배를 하며 힘겹게 천성산을 오르고 있다.

“이 육신버려 천성산 산다면…”

내원사 스님 등 화엄벌서 삼보일배 마쳐

부안핵폐기장 건설반대 진원스님등 삼보일배 시작

“이제 이 땅에 뭇 생명들의 신음소리 그치지 않으니 이 무상한 육신을 버려 천성산의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저자거리에 나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10월 3일 천성산 화엄벌에서 열린 삼보일배 회향 행사에서 지율스님은 의지를 이렇게 피력했다. 천성산을 떠나 다시 부산시청으로 돌아가 단식을 시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스님의 선언에 행사에 참석한 3백여 대중들이 숙연해졌다.

이날 행사는 9월26일 부산역을 출발했던 지율스님과 내원사 대중스님들의 삼보일배 회향행사였다.

이날 회향행사는 근원을 향한 퍼포먼스, 풀꽃진혼제, 생명에 보내는 편지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한편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도 10월 1일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와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전북 부안에서 전주까지 총 49Km구간에서 진행되는 삼보일배에는 진원스님(내소사 주지), 김인경 교무(원불교 부안교당) 등 대책위 공동대표 6명과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학생, 주민 1백여 명이 참여했다.

삼보일배 행렬은 김제시와 완주군을 거쳐 11일 전주 도청 앞에서 핵폐기장 건설 철회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천미희 · 이동혁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전통사찰들 화재 속수무책

올해 구룡사등 5곳…문화재 100여점 소실
대부분 목조-진입로 좁아 초기진화 힘들어
“소방관련 법령 제정·사찰화재보험 시급”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재 대부분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월 30일 원주시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에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3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오후 9시경 갑자기 정전이 된 뒤 대웅전에서 불이 번지자 구룡사 숙직실에 있던 이모(58)씨가 소화기로 자체진화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으며, 인근에는 소화전 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고 받은 소방대가 출동했으나, 좁은 산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컸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구룡사 대웅전은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1차 감식결과 누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사찰의 화재는 올해 들어서만 구룡사를 비롯 봉화 축서사, 구례 화엄사, 울진 지장사, 문경시 문수사 등 5곳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각과 1백여점에 이르는 불상, 탱화 등의 문화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산중사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 피해는 심각하다. 대부분 오래된 목조건물인데다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를 통한 초기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펫 등 인화성 물질과 전기로 가설된 인등과 촛불 등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위험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미비한 법규정을 방치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의 관리소홀 또한 불교문화재의 소실을 부채질 하고 있다. 현행 문화보호법상에도 특별하게 소화장비 설치와 관련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소방관련 법에도 소방설비 기준조차 없다.

대부분의 문화재사찰이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화기만 설치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태다. 문화재 사찰에서 방화장치 등을 설치할 때 필요한 장비의 최소 사양과 요령 등을 담은 방화시설 설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 문화부 이상규 과장은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은 방화부분이 취약하지만 법규정이 없는 상황인 만큼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방화시스템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 사찰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청정불심으로 시주권유 응했다”

SK, 이남기 前공정위장 1차 항소심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는 9월 30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자 뇌물수수)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불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들의 기부문화 권장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변호인측은 이남기 전 공정위장이 순수한 목적으로 불사 시주를 권유했으며 최태원 전 SK회장도 청정한 불심으로 권유에 응했음을 주장하고, 이남기 전 공정위장이 승가사 신도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SK의 승가사 시주로 얻는 이득이 없음을 강조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속개되며 변호인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최태원 전 SK회장과 승가사 신도회 김옥희 수석부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채영수 변호사는 “최회장이 자발적으로 불사 시주를 승낙한 만큼 증언만 해준다면 시주금의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혁 기자

국립공원내 산림협약 녹색연합 등 파기요청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관리공단 노동조합은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협약)’의 파기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9월 29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산림청이 8월 20일 체결한 산림협약이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는 물론, 문화자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산림협약 파기 △인공조림지 및 신규 편입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협력틀 마련 △국립공원관리 및 생태계 연구 · 보존활동에 전문가와 관련단체 의견 반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은경 기자

‘다윈, 불교에 귀의하다’ 이색논문

최재천교수, 불교생태학 세미나서 발표

‘자연, 환경인가 주체인가’라는 주제의 제2차 불교생태학 세미나가 10월 14일 동국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불교학, 윤리학, 물리학, 생물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종교학의 각 분야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발표로 이뤄진다.

최재천 교수는 ‘다윈, 불교에 귀의하다’라는 이색적인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최 교수는 불교가 생태학적 존재의 계발에 특별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철학자 피터 마셜의 주장을 들며 “부파불교의 업감연기(業感緣起) 개념은 다분히 진화론적”이라고 말한다. ‘나’라는 존재가 오음(五陰)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무아설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 죽음과 더불어 소멸하지만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는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화생물학의 원리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생명체가 해체되어 죽어도 업(業)의 힘으로 새로운 집합체가 만들어져 윤회한다는 업의 상속 역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갖 형태의 몸을 빌려 복제 실험을 거듭해온 DNA의 활동을 연상케 한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호국의선사에서 스님들과 군장병들이 천도재를 봉행하는 모습.

호국 의선사 창건 30주년 호국영령 천도대재 봉행

육군 노도부대 호국의선사(주지 지용)는 창건 30주년을 맞아 9월 30일 호국영령 천도대재를 봉행했다.

청봉문도회와 대원회, 양평사암연합회, 노도부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천도재는 영산재 의식에 따라 대령, 관욕, 상단권공에 이어 천도법회, 관음시식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청봉문도회, 대원회, 양평사암련 스님들은 행사를 마친 뒤 노도부대 장병들을 위문, 에어컨, 냉장고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동혁 기자

세 스님의 ‘돌출발언’

목탁소리



한명우 (취재1부 차장)

지난 9월 19일과 24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두 차례로 나눠 영부인 권양숙 여사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두 스님이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와 관련해 불교계 정서와는 전혀 다른 ‘돌출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한 스님은 “19일 오찬에서 모 스님이 ‘경제가 어려운데 (북한산 문제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24일 오찬에서도 한 스님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가운데에서도 어른인 모 스님도 최근 종회의원들과의 모임에서 “환경문제 말고 인권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왜 그렇게 환경에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은 한국불교의 리더그룹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이다. 그런 스님들이 불교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산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찌 보면 북한산 관통도로가 뚫리느냐 뚫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첨예한 현안을 놓고도 힘을 모으지 못하는 불교계의 오랜 병폐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교계를 관통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고질병’부터 해결할 것을 스님들께 제안한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성지순례
● 출발일 :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6시 30분
● 대구 팔공산 갓바위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우리모두 원없이 기도합시다

고암대종사 15주기 추모제
104주년 탄신제
◎ 추모제 : 2003년 10월 10일(9.15) 10시 ◎ 탄신제 : 2003년 10월 29일(10.5) 10시

제8주년 우리절 개산대재
2003년 10월 7일(화)10시
개산대재 참석하시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우리절에서 마련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새종령(정)추대 추진 총지종·미륵종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10월 21~24일 서울 통리원에서 제62회 추계 강공회를 열고 현재 궐위중인 종령을 이번 강공회에서 추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9월 26일 종단 주요 집행부와 종의회 의원들이 모여 추대방법을 이미 논의한 상태다.

강공회 기간중 원의회, 종의회, 승단총회도 개최, 추계예산과 내년 예산안 심의, 도제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정비, 신임 시무 인사 등 종단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륵종은 9월 27일 대전 대원사에서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제2세 종정추대위원회(위원장 영각)를 구성하는 한편, 현 원로원장 연화스님(양산 대인사)을 종정 후보자로 선출했다. 추대식은 2004년 2월 열반재일 및 창종기념일을 겸해 열기로 했다.

지자대사 탄신 1465주년 천태종대표단 10일 訪中

천태종은 천태지자대사 탄신 1465주년과 중국불교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10~16일 중국을 방문한다.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간부와 취재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되는 천태종 대표단은 천태산 국청사에서 열리는 지자대사 탄신 다례제에 참석한 뒤 소주 한산사,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장가계 천자산 일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불교 종립대 지역기반대학 자리매김

위덕대, 금강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불교 종립대학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회봉사와 참여를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지역활동을 강화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진각종립 위덕대는 최근 지역의 복지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기반한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10월 18일 열리는 개교 8주년 기념행사에서 밝힐 예정이다.

위덕대학 복지시설·민속마을과 유기적 봉사체제
금강대학 이장이 입학식 축사·가을축제 주민초청
경주동국대 각종 축제에 참여…공동체 이미지 심어

위덕대는 9월 3일 대학 대회의실에서 포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학생들에게 사회봉사의 장을 마련하고, 대학-복지관 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 9월 27일에는 학산사회복지관이 주최한 제1회 '아이터' 정보검색대회를 협찬, 장소와 컴퓨터기기 등을 제공했다.

7월과 8월에는 경주 양동민속마을, 노인복지시설인 포항 정애원과 각각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위덕대는 앞으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민속마을과 WT(Welfare Technology)를 통한 사회봉사의 참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이다. 위덕대 회당학술정보원이 불교·밀교학 자료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다.

개교 1년차인 천태종립 금강대는 9월 17~18일 열린 '금강인의 가을축제'에 지역주민 1백여명을 초청하는 등 지역활동을 시작했다. 금강대는 첫 입학식 때도 학교가 위치한 대명리 이장의 축사를 마련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의료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경주 월성동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지역축제 참여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다.

이같은 활동은 지역에 자리잡은 불교 종립대학들의 이미지 개선과 신입생 유치 등 대학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고종, 남녀행자 196명 수계산림 입재



◇태고종은 9월29일 선암사에서 제27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입재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9월 29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예비승려 교육과정인 제27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입재했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지원자 228명 가운데 1, 2, 3차에 걸친 소양시험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남행자 152명과 여행자 44명 등 총 196명의 행자가 참가했다.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입재식에서 "출가의 서원을 세운 큰 뜻과 원력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초지일관할 수 있도록 각고의 수행과 정진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사회를 계도하고 이끌어나갈 수행자라는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계산림은 4주 동안 매일 새벽 4시 새벽예불 및 정근, 강의, 참선수행, 저녁예불 및 1천배 참회정진, 일보일배 등의 수련으로 진행된다. 또 사미율의, 부처님의 생애, 태고종지종승, 초발심 자경문, 기본습의 및 위의문, 태고종사, 불교기초교리, 예경의식, 불교분규사, 참선개요, 불교학 개론, 유교경 강설 등의 강의도 마련된다.

참가 행자들은 4주간의 교육과정과 10월 21일 실시되는 '득도고시'에 통과해야만 22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다.

박봉영 기자



대충대종사 10주기 열반대재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대충대종사 열반 10주년을 맞아 9월 28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추모법회를 열었다.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종단을 굳건한 반석 위에 대충대종사의 공덕을 기리는 동시에 큰 가르침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 개인수행의 완성과 중생구제에 앞장서 나가자"고 당부했다. 법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보궁으로 자리를 옮겨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총금강회 재해극복 정진불사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회장 손성섭)는 9월 27~28일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임원 및 대의원 수련회를 열고 재해극복과 나라안정을 위한 서원 대정진 불사를 봉행했다. 수련회는 '종단이 나아갈 방향' 주제의 종책설명회와 '진각종 교리구조' 주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총금강회 임원들은 불사의식을 비롯해 경전다양화와 자성학교, 청년회 등에 대한 포교종책 개발, 대중법회 다양화, 전문인 교양법회 개최 등을 건의했다.

종단소식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

천태종은 10월 12일 이천 장화사에서 제17회 중부지역 천태어린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어린이 불자들의 신심과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 9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피구, 단체줄넘기, 풍선자루 릴레이, 서바이벌 의자게임, 사찰별 릴레이, 전략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된다.

보성스님 법문집 발간

태고종 보성문도회는 제12, 15세 종정을 지낸 보성스님의 법문집 <태고청풍(太古淸風)>을 발간했다. <태고청풍>에는 보성스님의 행장과 법문, 논설, 육필원고, 관련 글모음 등이 실렸다.

칭찬릴레이 첫 주인공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은 10월 1일 칭찬 릴레이 캠페인의 첫 주인공으로 니르바나자원봉사회 제2기 회장 윤철준(삼광사 신도회 서구지회장) 씨를 선정했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니르바나자원봉사회원으로서, 각종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연등 제작 등 불사를 원만히 성료하는 등 천태종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종단과 사회에 칭찬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봉사 및 후원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10월부터 매월 1명씩 칭찬 주인공을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게시판

행사

▲서울시는 10월 28~29일 삼성동 코엑스전시장에서 '2003 하반기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만 55세 이상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4천여 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02)731-6114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0월 15일 오후 1시30부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02)739-3249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10일 오전 10~오후 6시 '금천경로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 일일호프, 독거어르신 자매결연 맺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804-4058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9일 오전 10시~오후 2시 은평문화예술회관 1층 대공연실에서 '제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갖는다. 기념식은 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등에 대한 표창수여와 복지관 어르신예술단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02)385-1351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24일 복지관에서 '제5회 용호알뜰바자회'를 연다. 이번 바자회에는 신발, 재활용의류 등을 판매하는 알뜰구매장터와 먹거리 장터, 경품추첨 등의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051)628-6737

모집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18일 오후 2시 서울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제13회 무료역사탐방교실' 참가아동을 모집한다. 3~6학년 초등생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 무료. (02)806-1377

구인

▲광주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은 취업알선, 직업적응훈련, 보호작업장, 직업상담 등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장애인.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 수시모집한다. (062)943-0420

화촉

▲동국대 홍보실 김영민씨는 10월 12일 오전 11시 30분 김종대씨의 장녀 김양원 양과 강남웨딩문화원 6층 휘가로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02)511-2600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수상자들의 모임 '신수회' 회장 이남숙씨의 장녀 서수경 양이 한태랑 씨의 장남 한대훈 군과 10월 11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잠실 향군회관 연리지예식홀 1층 특실에서 화촉을 밝힌다. (02)424-8600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 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차 10月 13日 ~ 18日
2차 10月 27日 ~ 11月 1日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혜광스님(☎ 019-588-6448)은 파동명상학회 5기생으로 난치병(암, 심장병,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 신경성질환 등)을 파동명상요법으로 접근하여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아래의 글들은 스님의 허락을 얻어 연재형식으로 몇 주간 그 사례담을 옮겨 싣습니다.

◎ 올해 50대 중반의 김두열씨(가명)는 평소 심장병으로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 시달려왔다. 병원에서의 수술과 치료를 통한 노력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종교인을 찾아가 영적 치료도 많이 시도했지만, 그 역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혜광스님을 친견하여 **파동명상요법으로 심장병의 원인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김두열씨는 조선시대 때 무인(武人)으로 살았던 전생을 떠올렸고 그 당시 전쟁터에서 많은 살생을 했던 전투장면을 떠올렸다. 그 때 전투를 지휘하던 장군이었던 그의 칼 아래 무수한 사람들이 심장을 도륙 당해 죽어갔는데 그때 그 영혼들의 원결이 사무쳐 지금 심장병의 원인이 되어 있었다. 그 때 그의 칼에 심장이 찢겨져 죽어갔던 그 영혼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 신체적 증상들을 원귀가 되어 돌아와 김두열씨 심장 속에서 재현하고 있었다. **심장병의 원인이 그 때의 원결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된** 스님은 그 영가들의 사무친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의식을 통하여 그들을 천도하니, 처음에는 김두열씨가 죽어야 떠나겠다면서 완강하게 저항하던 그 영가들은 스님의 영가법문에 감화되어 마침내 그들의 길을 떠나갔고 그 이후 김두열씨는 높은 산에 등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한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 94.5 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커다란 괘불 앞에서 바라춤을 추는 스님들.

도량 가득 화엄세계



조계종 영산재 첫 재현한 날

대웅전 앞마당 1천여 신도들로 가득
대중구제의 원 담은 식당작법 하이라이트
"조계종 동희스님 회심곡 부를때
태고종 구해스님 북, 조-태화합 모습 보여"

홍색가사가 아닌 괴색가사를 입은 스님이 바라춤을 춘다. 법고춤을 춘다. 멈춘 듯 이어지는 법우스님의 법고춤에 청중의 호흡도 끊어지고, 법고를 두드리는 춤사위에 청중은 박수로 화답한다. 9월 28일 오전 9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영산재가 재현되는 현장이다.

불사로 어수선하던 대웅전 앞마당이 오늘만큼은 각종 장엄으로 한껏 멋을 냈다. 대웅전 앞마당은 이미 영산재에 동참하기 위해 자리를 잡은 천 여명의 신도들로 가득하다. 여러 부처님과 이를 호위하는 신중이 그려진 거대한 괘불과 여러 불 · 보살의 명호를 적은 당번, 부처님께 바치는 오색지화(紙花), 죽은 자가 쓸 저승 노잣돈인 대형 지전(紙錢)으로 경내는 이미 야단법석(野壇法席)이다.

법고소리가 영산재의 시작을 알린다. 시련(侍輦) 의식. 대중은 연(輦, 가마)을 들고 나무대성인로왕보살의 인도로 절 입구로 나선다. 오늘의 어장(魚丈)인 동주, 동희 스님을 위시하여 영산재를 재현할 스님들과 이를 따르는 대중의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절 입구에서는 게송을 제창하고 바라춤과 나비춤으로 불 · 보살과 옹호신중 · 영가를 모신다.

이어 영혼에게 간단한 법식(法食)을 베풀어 대접하는 대령(對靈)과 불단에 나가 법문을 듣기 전에 영혼이 세속에서 탐진치(貪瞋癡) 삼독으로 더럽혀진 업장을 깨끗이 씻는 관욕(灌浴)이 이어진다. 병풍으로 가린 관욕소 안에서 영혼을 씻기는 동안, 병풍 밖에서는 진언에 따라 결수(結手, 손가락을 여러 모양으로 구부려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형식)를 진행한다.

괘불을 야외로 모셔오는 괘불이운(掛佛移運)과 함께, 신도들의 영단참배가 이어진다. 옛날 보살들은 일생에 괘불탱을 3번만 보면 극락왕생한다 해서 몇 백리 길을 걸었단다. 오늘 참배하려는 신도의 행렬도 그만큼이나 길다. 두 손을 곱게 모은 보살의 괘불탱을 바라보는 표정이 자못 장엄해 보인다.

다음은 영산재에만 있는 식당작법(食堂作法). 재공양의 다른 절차와 달리 철저한 수행을 통해 대중의 공양에 보답하는 마음과 대중구제의 원을 담은 '수행의례'다. 공양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시자(施者, 공양을 베푸는 자) · 수자(受者, 공양을 받는 자) · 시물(施物, 공양물)의 공덕과 불 · 법 · 승을 생각하고, 배고픔에 고통받는 아귀중생에까지 공양을 베풀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식당작법은 범종, 법고, 목어, 운판의 사물(四物)과 범패, 홋소리, 짓소리, 타주춤 등의 작법이 어우러져, 영산재에서 가장 화려한 의식으로 꼽힌다.

오후의식은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됐다. 월운스님은 "종교에 의식이 없는 것은 군인에게 구령이 없는 것과 같다"며 "오늘 의식을 준비해 온 스님들께 박수를 부탁드린다"는 말로 영산재 재현의 축하를 대신했다.

오후에는 5시간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영가 왕생을 기원하는 불공이 진행됐다. 연향게, 서찬게, 합장게, 복청게 등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소리와 천수바라, 삼귀, 내림게바라 등의 춤사위는 보는 이에게 영산재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범패 장단은 태풍 매미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달래는 마음으로 변해 영산재 도량을 가득 메웠다.

이어 영가에게 마지막 가는 길에 법식을 베풀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시식(施食)과 의식에 사용된 각종 장엄구와 영가 위패를 사르는 소대(燒臺)의식으로 영산재는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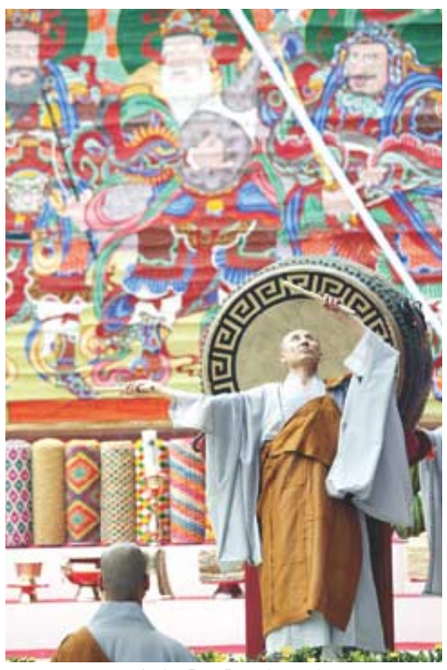
오늘 영산재는 하루 동안 계속된 의식만큼이나 영산재를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태 갈등의 골을 영산재가 메우느냐, 더 깊이 패느냐하는 언론의 상반된 예측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향후 문제에 대한 예측은 차치하고, 오늘의 행사만을 본다면 갈등의 골을 메우는 모습이다. 동희스님이 바깥소리 가운데 회심곡을 부를 때 태고종 구해스님이 북을 치며, 조계종과 태고종 스님이 영산재로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해스님은 "조계종 스님들이지만, 같은 스승에게서 영산재를 사사한 제자들이다"라며 "종단간의 문제보다는 잊혀져가는 불교 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겠다는 움직임을 축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시작하며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스님이 "지금까지 영산재를 잘 지켜주신 태고종과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건넨 인사말도 같은 맥락이다.

행사를 마친 동주스님은 "단절돼 가는 영산재를 살린다는 뜻으로 행사를 끝까지 치렀다"며 "종단과 사회의 계속적인 관심이 영산재의 가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영산재를 끝까지 지켜 본 이은화(62) 보살은 "불자로서 불교의식에도 관심이 많아, 안산에서 영산재를 보러왔다"며 "오늘 행사가 여법하게 진행돼 기쁘지만, 의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이해가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글=오유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법고춤을 추는 법우스님.

▧ 영산재와 어산

영산재는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했던 도량을 오늘에 재현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다시 듣고 제불보살에 공양하는 의식 법회이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가에서는 영산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해 보존과 전승을 지원하고 있다. 1973년 태고종 송암스님과 벽응스님이 보유자로 지정됐고, 87년에는 영산재가 무대종목에서 마당종목으로 바뀌어 작법부문에 일응스님, 도량장엄부문에 지광스님이 추가로 지정됐다. 그러나 보유자들은 지난 5월 일응스님을 마지막으로 모두 입적해, 현재는 태고종 구해 · 일운 · 기봉 · 송강 스님 등 4명의 전수교육보조자가 전승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유자 후보(준보유자)는 구해스님 뿐이다. 또 태고종 고산 · 원허 · 능화 스님과 조계종 동주 · 동희 스님 등 10여명이 전수조교 평가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다. 박봉영 기자




◇영가를 모셔오는 시련의식(사진 위)과 수행으로 공양에 보답하는 식당작법(사진 아래)모습.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특화교육 ·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해법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 사회', 20%이상일 경우를 '초고령 사회'로 나누고 있다.

통계청이 10월 2일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들의 고령자 관련 자료를 모아 10월 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2%를 차지해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14%를 돌파해 '고령 사회'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러나 노인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심각한 노인 취업난과 높은 노인 자살률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급증하는 노인문제의 현황과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해결방안과 불교계 노인복지의 현주소는 어떤지 진단해 본다.



◇한 복지센터가 마련한 취업상담 창구에서 노인 구직자가 상담을 하고 있다.

고령인구 사회문제화… 해결방안은

◈ 급증하는 노인문제

지난 9월 13일 이모(77, 인천 부평구) 노인이 인천 동암역에서 전동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자녀들의 학대와 멸시가 심해 큰 아들집을 나온 이 노인은 생활고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모(82) 노인은 요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꺼낸다. 최근 아들이 죽은 이후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려 온 박 노인은 지병인 좌골신경통과 백내장으로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노인문제 사례는 또 있다. '세계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0월 1일.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가 마련한 노인축제에 일일 평균 이용인원 2천여 명보다 절반이 늘어난 3천여 명의 노인들이 몰렸다. 복지센터가 마련한 자원봉사박람회의 취업상담 부스에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되돌아간 노인들이 대다수였다. 돈을 벌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들은 최근 공개된 국회 국정감사자료 통계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9월 29일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 자살한 61세 이상 노인은 전체 노인 10만명당 61.6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 10만명당 27.46명 자살에 비해 무려 2.3배 정도가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또 1999년 이후 올 7월 말까지 자살한 노인은 1만2557명으로 하루 평균 7.5명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으며 전체 자살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19.43%, 2000년 19.75%, 2001년 24.59%, 2002년 24.47%, 올 7월 말 현재 28.94%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인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생활고, 소외감, 건강악화, 자녀들의 학대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노인 취업난으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노인문제, 돌파구 없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과 자활사업 등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소한의 경제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취업교육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취업알선센터에 월 평균 3백~5백 건의 구직희망이 접수되지만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건수는 30~40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직종도 용역, 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에 집중돼 있다.

고령인력 기피 개선 · 고용촉진법 등 손질을

노인복지시설 100곳…불교시설은 16곳 불과

건강악화 · 소외감 · 생활고로 하루 평균 7.5명 자살

기업체들의 고령인력 기피 풍토도 개선돼야 하지만 노인들의 취업 영역 확대를 위해 창업, 베이비시터(baby-sitter, 부모 외출시 아기를 대신 돌보는 사람) 등 세분화, 전문화된 특화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복지시설들은 △특화프로그램 마련 △실버 취업박람회의 정기적 개최 △노인복지예산 확보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최정훈 복지2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3백인 이상 사업장은 2%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며 "고령자 고용촉진법도 이를 권고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불교계 노인복지 현주소

지난 9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이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현황(비인가 시설 제외)'에 따르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469개소로 불교 68개소, 개신교 185개소, 천주교 176개소, 기타 40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노인복지시설은 총 1백개소로 전체복지시설의 21%를 차지했다. 그러나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은 1백개소 중 16개소(16%)로 천주교 42개소(42%), 개신교 29개소(29%) 등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대다수의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이 양로원이나 노인보호시설인 것으로 파악돼 취업교육 등 근본적인 노인문제 해결에는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노인전문복지관의 경우도 특화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복지관은 몇 곳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사찰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양로원과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지역 사찰이 전체 사찰의 10%에 불과하고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지원하는 사찰은 20%정도이며 무료급식소운영 사찰이 16.7%,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6.6%에 불과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구본희
김포 외국인노동자센터 간사

엄마의 매

20년전 사랑의 매 내삶의 자양분

스스로에 관대해질 때마다 생각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종아리에 퍼런 물이 들 정도로 어머니께 맞은 일이 있다.

내 저금통에 동전이 늘어나는 재미에, 아버지 동전 주머니 속으로 그만 내 손을 넣어버린 것이다. 그 일을 한 이유가 그리 불손(?)한 것도 아니었건만, 그날 난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종아리를 내리친 매를 들고 속상해 하시던 어머니를 훔쳐보며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했었다. 그래서였는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종아리에서 느꼈던 그 혹독한 아픔의 기억을 잊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 나는 이따금씩 그때를 생각한다. 다 커버린 딸에게 더 이상 매를 드시지 않는 부모님을 대할 때,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옳지 못한 일들을 대할 때,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 남을 짓밟는 사람을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도 뻔뻔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 별다른 매를 드는 사람이 없는 지금,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 어른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경험이 쌓여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나의 잘못에 그다지 큰 매를 들지 않는다. 오히려 내 잘못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거나 아예 못 본척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의 그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말이다.

잘못을 해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신성한 권리라도 부여받은 듯 '그럴 수도 있다'며 자신을 용서하고, 끝없는 관용의 늪으로 자신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그게 아니었다고 때늦은 반성을 한다. 정말 이럴 때, 이런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고 남의 잘못을 말하기 힘들 때, 그럴 땐 이상하게도 그 옛날의 어머니의 매가 생각난다.

글을 쓰다 보니,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과연 나는 그런 혹독한 매를 달게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었던가? 나에게 가해지는 매를 스스로 거부하고, 피하고, 부정하며 살지는 않았던가? '믿음'이니 '무관심'이니 하는 이름으로 내 아집에 갇혀 내 자신에게 대야 할 매를 스스로 거둬들이지는 않았던가?

이런 저런 핑계로 마주보지 못하고, 마주서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서로에게 매를 든다는 것이 큰 무리일지도 모른다. 서로에게 매가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던가? 매가 쓰고 아픈 만큼 상대를 사랑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느껴야 하는 일이 아니던가?

그래서 나에게 매를 드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 가끔 슬퍼진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다. 그리고 나 역시 애정 어린 매를 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슬퍼진다. 그것 역시 사람들을, 이 사회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우선 주변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런 서러운 마음들이 덜어지지 않을까?

20여년 전 어머니의 매는 참으로 매웠다. 하지만 사랑이 담긴 그때의 어머니의 매가 30여년 동안 내 삶의 가장 풍성한 자양분이었음을 어머니도 아실까?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47-2004

대도근본 회천법으로 우주의식의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혈단법의 초염력, 크리닉 지도자 양성 경신도통 대법회

◎ 선천법도는 말로만하는 세상 사는것을 후천법도에는 말이나 글자나 형상에 있는것이 아니라 덕으로써 마음속에 숨어있는 혈단법을 알아야 도통하여 천하도, 지구도, 재난도, 인류도 구하고 자신도 구하고 가정도 구하는 것이다. 그 베일에 감춰진 해법을 10월 13일 14일 (음 9월 18일 19일) 자시와 오시에 대우주의 진광 초능력으로 정신의 세계, 육신의 세계, 신령의 세계, 혼백의 세계, 인연의 윤회로 태란습화의 모든 생명들에 의한 빙이된 유명 무명 생명 연장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날이 경신일이고 해원상생 해탈시키는 기도이며 종교 지도자, 사회복지, 심리상담자, 건강상담자, 한방양방 건강크리닉 종사자, 비만크리닉 담당자 모든이들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각기능에 최고의 보수가 되는 기도임을 명심할지여다.



진법약사여래 가피로 그린 태일 달마도는 모든 소원을 성취한다

◎ 이 기도로 도통하고 부자로 사는 길..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그대를 초대하오니 인류 크리닉 스승 되소서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에 자기를 알아야 대우주의식 진광으로 인류를 구하고 자기도 구하며 천기누설이란 사람의 운명인 것이며 이법은 귀신도 모르는 법도를 점술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재앙을 받고 나고 죽고 하늘과 땅과 인간 대우주의 비밀장인 것을 천지신명에 죄를 참회되는 기도가 바로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DNA생명의 초능력과 염력으로 천안통을 얻어 건강 비만 크리닉 사명자 되는 대운을 받는 날인 것이다.

● 사람이 태어난 윤리도덕관 전생, 금생, 내생으로 수명장수로 잘 살려면 경신입문으로 탄생일의 날을 연장 하는 것이다.

① 상품상생의 인연법 10개월 10즉 306일 이상 ② 중품상생의 탄생 부모미생전 10개월, 296일
③ 하품상생의 탄생 인연법 9개월, 286일 이상 ④ 저품상생의 탄생 인연법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혈단법 진법이란 1. 백사천서, 천부경 2. 하도천서, 지부경 3. 락서천서, 인부경 4. 무자천서, 예단 태골경을 당일 자시와 오시와 강령합니다.

미륵달마 경신도통이란 삼라만상 생명이 있는 모든 유상무상들과 조상영가님들에게는 해원상생을 시키고 수행하는 이에게는 상통천문 하달지리 동참한 이들에게는 일체 악연을 끊어주고 새로운 광명도통 병마제도의통능력 글문 말문 천문 무문도통 성취한다.

인간은 누구나 달마가 될 수 있다. 천지개벽과 육신의 개벽을 그대는 아시나요 ~

유, 불, 선이 하나로 되는 달마도법이 계미년 경신일(10월 13일, 14일) 자시와 오시에 상통천문 하달지리 지각변동으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후천법도를 불조의 혜명으로 이어받는 달마도법으로 종교통일 세계평화통일 북국정토로 이룩하는 대운 맞이 대법회에 그대를 초대하오니 대우주의식 초능력 염력으로 말법중생을 제도하는 크리닉 스승 되소서.

◆ 당일 동참금 : 5만원(1박 2일), 침식제공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동참금)
◆ 온라인 접수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한영) 선착순
귀! 달마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 (일요일 오후 5시) 心
한방 · 양방 종사자, 특별오운육기 특별개인지도, 풍수지리 철학상담

● 입제 : 10월 13일 월요일(해시) ● 해제 : 14일 화요일(해시)
02) 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300m
(버스 85, 25, 94, 72-1, 105, 26, 303, 142, 26-3, 102번) 모자원고개하차.

건강크리닉 비만크리닉사, 운명상담 크리닉사, 특별양성교육
▶ 1년반, 6개월반, 취업반, 사회지도자반, 단전호흡이나 그 예에 3년이상 수련한자
▶ 모집대상 : 남,여 관계없이 마음이 넉넉한 사명자 진인 도통군자에 한함.
여타에 물들지 않으며 진정한 도를 구하여 천안통 혈단법 원방각 해인 법도의 잣대로 덕을 베풀고 도인이 되고자 하시는 진인들에게 초능력으로 만인을 제도하는 크리닉 지도자 사명자 양성으로 중생을 지도할 최첨단 비법.

웅조달마 진인 경신 도통 회장 태일대사합장
세계 불교 달마종 총본산 교육원장 교명정영도합장

대화는 언제나 유쾌하다. 직장불자회 '아저씨 거사', '아줌마 보살'들이 풀어놓는 대화. 일터 불심이 윤택해진다. 여기에 '젊음'까지 보태면 금상첨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젊은 직장인 불자가 없다. 직장불자회가 늙어가고 있는 셈이다. 40~50대가 주류인 직장불자회가 젊어지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희망을 품고 있는 직장불자들. 지난 9월 29일, 3명의 '젊은 직장불자'들을 만났다. 박진서, 원혜란, 김현진 불자. 이들의 불교사랑과 직장불자회에 대한 애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일터 불심' 들의 직장불자회 사랑



◇'젊은 직장인 불자들' 김현진(사진 왼쪽), 원혜란(가운데), 박진서 불자. 다소곳이 두손을 모은 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젊은층 눈높이 맞는 법회 필요해요"



#1. 나는 야 '70년대 생' = 박진서 불자(33 · 법명 진명 · 태릉). 입사 9년차, 직업은 기관사다. 철도청 성북승무소 법우회 총무를 맡은 지는 3년째다. 신행 전력은 순박하다. 고교 시절, 영어 단어 수학 문제를 외고 푸는 것보다 불교가 마냥 좋았다고 한다. 향 내음이 좋아 절에서 살았고, 절이 편해 집처럼 지냈다. 달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기관사가 됐다는 박 불자. 쏙 들어간 보조개가 백만 불짜리다.

푸른 제복에 마음을 빼앗겨 93년 경찰에 투신했다는 원혜란 불자(32 · 경장 · 잠원동). 98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발령을 받고, 곧장 불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불교는 어머니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불교회 홍보부장이란 감투는 올 초부터 썼다. 첫 사업으로 사이버 서울청 홈페이지 동호회에 불교회 이야기 터를 마련, 톡톡 튀는 '젊은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넉넉한 미소가 영락없는 옆집 누나다.

74년생. 올해로 스무 살 막차를 탄 김현진 불자(29 · 법명 법륜행 · 대치동)는 쟁쟁한 이력을 갖고 있다. 98년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2002년 사법고시 패스, 미모 또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99년 서울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불심이 깊어졌고, 본격적인 신행생활은 연수원 입학이후 34기 다르마 법우회에서 시작했다. 수줍음이 매력이다.

제각기 다른 직업과 이력들. 최소한 공동분모는 있다. 불교다. 부처님이 좋아 직장불자회 사람이 됐고, 동료들과 도반이 됐다. 공통점은 또 있다. 직장불자회에 소위 '297(20대 90년대 학번, 그리고 70년대 생을 일컫는 신조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는 점이다.



#2. '유쾌한 만남', 젊기에 통했다= 처음 만난 어색함, 이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 수다에 가까운 대화가 술술 풀린다. 서로의 직업 세계에서 연봉, 근무여건에 이르기까지 이야기 거리가 넘쳐난다. 척척 맞는 호흡에 이유를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다. '우린 젊으니까요'. 궁금증은 더해졌다. 이들에게 직장불자회의 매력은 무엇일까? 원혜란 불자의 설명은 이랬다.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찾을 뵐 수 있잖아요. 덧붙이자면 '일'과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직장불자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속내를 은근히 보여주는 불교. 정말 좋지 않나요?"(일동 웃음)

젊은 직장불자로서 고민도 깊었다. 이야기는 직장불자회 활성화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직장불자회 신행패턴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박진서 불자의 말이다. "40~50대 위주의 직장불자회 신행은 젊은 직장불자의 참여 폭을 좁히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법회문화가 필요해요."



김현진 불자도 말을 보탠다. "맞아요. 한 두 사람이 법우회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봐요. 다함께 참여하고 진행하는 법우회를 만들어야 해요."

#3. 일터에 새로운 불교바람 일으킨다= 다양한 대안이 쏟아졌다. 교리 학습 프로그램, 사찰 주련 공부, 불자회 내 취미 소모임 결성 등 '젊은 언어'를 직장불자회 신행 프로그램에 담아내는데 지혜가 모아졌다.

박 불자가 먼저 대안을 제시했다. "자발적인 참여는 일터 불심을 잘 읽어내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앞으로 문화 개념의 이벤트를 열어, 젊은 직장불자들이 기획, 홍보, 섭외, 진행 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원 불자가 거든다. "법회에 빠지면 안 될 만큼 재밌는 법회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다려지는 법회, 부담 없는 법회가 젊은 직장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을 테니까요."

김 불자도 의견을 내놓았다. 젊은 불자들은 자연스러운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신행 코드를 잘 맞춰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본인부터 신행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래야만 동료들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줄 수 있고,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부담없고 재미있어야 동참자 늘어나죠
문화 이벤트 자주 열어 분위기 바꿨으면…"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

불제자와 교사로 산다는 것은 부처님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불자교사들은 언제나 이 점을 잊지 않고 삽니다. 때문에 불자교사로서의 사명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립은 지난 98년 3월 합천 해인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사실 지부 결성이전에도 정법교직원불자회, 연화교직원불자회 등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남지부의 탄생은 이 지역 5개 지회 구성에 기폭제가 됐고, 경남 지역 불자교사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리 경남지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 · 마산의 정법교직원불자회, 통영 · 고성의 연화교직원불자회, 진주 · 하동지회, 거창 · 합천지회, 김해 · 양산지회 등에서 신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법교직원불자회는 1987년에 창립된 이후로 16년째 마산 정법사에서 정기법회를 빠짐없이 봉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은 인근 학교의 학생회 지도교사를 맡으며, 청소년 포교에 심열을 쏟고 있습니다. 연화교직원불자회는 고성 옥천사 청연암에서 주지 승욱스님을 모시고 첫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밖에 거창지회는 창원 포교당에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밀양지회는 밀양불교발전연구회를 결성, 지역불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지회별 활동이외 우리 지부는 정기적인 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찾아간 사찰만 해도 양산 통도사, 하동 쌍계사, 밀양 표충사, 창원 성주사, 고성 옥천사 등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에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와 연계해 방학 때면 학생들과 함께 자연보호와 생태계 보존활동도 전개했습니다. 특히 정체된 학생회법회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적 거리 때문에 정기적인 합동법회를 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부 회원이 다함께 모이는 법회는 자주 못 열었지만, 지회별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카페를 백분 활용해 정보를 교류하면서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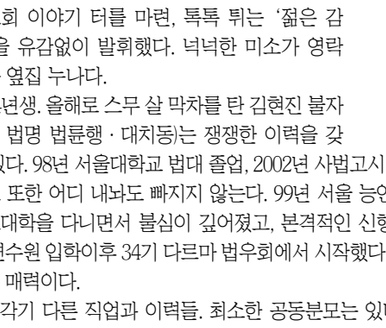
올 하반기 최대 사업으로 창원지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준비모임을 갖고 회원 모집, 정관 마련 등 오는 11월 9일에 창원 성주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회원배가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펼칠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불자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보현행원의 원력을 다지기 위해서 입니다.

■강영철 사무국장

법회 · 자원봉사 외 자연 · 생태계 보호활동
회원 배가운동, 11월 9일 창원지회 창립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 불자교사 회원들이 지난 2002년 8월 하동 쌍계사에서 여름수련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면 당신도 숯박사!』
"숯이 사람을 살린다" 저자의 완벽한 제2탄
숯을 알면 건강하게 산다


한국목탄연구소장 강 재 윤 지음
숯으로 독을 빼면 중병도 낫는다
쌓인 병독, 쌓인 약독, 쌓인 음식독,
쌓인 실내공기독 을 숯이 해독하면 기적이 보인다!
♣ 체내에 쌓인 독이 병을 만든다
♣ 지금 먹고 마시는 독이 위험하다
♣ 난병에 고생하는 분 숯요법에 주목하자
♣ 왜 숯이 독을 빼는지 알게 된다
♣ 신축아파트는 독가스실이다
♣ 숯응용사업이 보인다(사업, 부업, 겸업)

한국목탄연구소 | 410쪽 | 신국판 | 12,000원 |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 02)925-0300

육임강의 · 육임활용서 안 내
활용서 (입금 다음날 수취됨)
■ 육임래정비법 350,000
■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2,500,000
■ 노 휴대용 (10일치씩 6권) 310,000
■ 육임강의록 (上권 학습용 · 下권 활용서) 410,000
■ 육임 비디오 · CD 900,000
■ 육임신수비결(비디오 1개 포함) 300,000
■ 출생 일시 운명 예언 비법 74,000
(태아(胎兒) 길일 길시 선택 분만 선정 · 택일)
강 의 (전지영 효사선생 직강)
● 매주 일요일 전주 저녁 6시 063-284-7714
● 매주 월요일 광주 오후 3시 062-224-8680
● 매주 화요일 진주 오후 6시 055-755-1644
● 매주 수요일 부산 오후 6시 051-762-0141
● 매주 목요일 대구 오후 6시 053-642-8680
● 매주 금요일 서울 오후 5시 02-993-8680
● 매주 토요일 강남 오후 6시 02-996-3335
문의 02-993-8680
입금처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門
● 치열한 이 시대의 예민한 물음들에 대해서는 육임에 나타난 대답이 가장 신임할 수 있습니다. - 혀 사 -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가정집, 점포, 사무실에 두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재로운 운으로 변하면
불화와 우환과 액운이 사라지고
재로운 앞길이 열리며
재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재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에 氣를 넣어 주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육氣방 051)865-9933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 ‘깨달음’을 인류 보편적 사상으로”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자수한 성철스님의 진영.

16~17일 성철스님 열반 10주기 학술회의
8개국서 불교 · 인지과학전문가 등 참가

올해는 성철 스님이 열반한지 10년 되는 해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성철선사상연구원은 열반 10주기를 추모하는 국제학술회의 ‘깨달음의 문화적 지평과 그 현대적 의미’를 10월 16~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목정배(서울불교대학원대학) 총장, 찰스 뮐러(일본 동양학원대) 교수, 전헌(전 뉴욕주립대) 교수, 큉 투 나구엔(조지 메이슨대) 교수 등 8개국 13명의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인지과학, 철학, 종교학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깨달음’이란 동일한 주제를 각자의 전공학문과 접목해, 깨달음의 의미를 타종교와 비교하고 문화 일반에서 재조명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택 스님은 9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 ‘돈오(頓悟)’라는 깨달음의 의미를 불교적으로 한정짓지 않고, 인류 보편적 사상과 인생관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국제학술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뮐러 교수는 ‘집착 없음을 지향하는 경전읽기와 깨달음(Enlightenment in Reading Scriptures that Tend Toward Non-appropritation)’을 발표한다. 뮐러 교수는 논문에서 “머묾 없음이라는 개념은 불교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들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도가철학과 <금강경>, <원각경>이 ‘머묾 없음’을 통한 깨달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뮐러 교수에 따르면 도가사상은 ‘성인은 그것에 머묾이 없기에 그것은 성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구조적인 전환을 통해 읽는 이의 마음에 싹트는 머무름에 대한 습기(習氣)를 깬다. 그러나 “도가사상과 비교할 때 <금강경>은 ‘X는 X가 아니다. 그러기에 X라고 불린다’는 반복적 부정과 재긍정을 통해 의식적 습기를 깨는 머묾 없음 수행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는 경전이다”라고 평했다.

‘깨달음이라는 개념은 변화할 수 있는가?(Can the Concept of Enlightenment Evolve?)’를 발표하는 철학자 마이클 레빈(서부 호주대) 교수는 “깨달음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시간의 경과로 바뀌게 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깨달음의 개념들이 예전에는 제대로 의미했었을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의미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 “불교의 중심개념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 실제적 조건들에 반응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경전의 종교적 · 실질적 중요성으로까지 해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마이클 데이비드 쿠락(캐나다 뉴번스윅대) 교수는 ‘깨달음과 과학문화(Enlightenment and the Culture of Science)’에서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불교의 연기론은 최근 신경과학의 성과들을 미리 예상하고 있는 듯 하다”며 인지과학적 입장에서 깨달음에 대해 논의한다. 인지과학과 관련해 학술회의 준비위원장 조성택(고려대) 교수는 “인지과학은 깨달음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현대적 학문”이라며 “정신세계를 두뇌 연구에만 한정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불교와의 상호연구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라고 인지과학과 불교학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18일 ‘괘불’ 주제 첫 학술세미나

불화특별강연 … 불교미술사학회 창립

통도사 개산 1358돌 기념



◇국보 제302호 청곡사 괘불탱.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스님)이 통도사(주지 현문스님) 개산1358주년과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괘불전에 전시되는 국보 제 302호 청곡사괘불탱 특별전을 기념해 괘불을 테마로 한 세미나를 연다.

‘조선시대 괘불탱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괘불을 테마로 한 첫 학술행사로 불화전문 박물관인 통도사성보박물관의 특성을 잘 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정명희씨의 ‘의식집과 괘불의 도상적 변용’ 통도사박물관 김미경 학예원의 ‘삼세불괘불탱에 대한 소고’ 등 네가지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한편, 17일에는 불화 특별강연 및 불교미술사학회 창립총회가 열린다. 젊은 소장학자 40~50명이 주축이 되어 창립되는 불교미술사학회는 젊은 학자들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를 지원하며 연 1회 불화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055)382-1001 천미희 기자

‘빛나는 옛 책들’ 특별전
국보 ‘대보적경’ 등 101점

<성문종합영어>의 저자로 잘 알려진 송성문(72)씨가 지난 3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46건 101점의 옛 책이 ‘빛나는 옛 책들’이란 특별전으로 빛을 보게 됐다. 10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2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는 국보 제246호 <초조본 대보적경(初雕本 大寶積經)> 등 국보 4건 4점과 보물 제1081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등 보물 22건 31점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만 26건 35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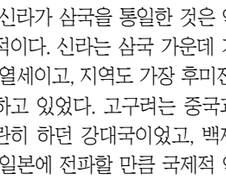
지난 6월 송성문 씨는 문화재 기증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바 있다. 송 씨가 기증한 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61건 · 보물85건)의 1/5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오유진 기자

내년 세계여성불자대회
각 분과별 논문초록 모집

세계여성불자대회 추진위원회는 내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8th Saky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ddhist Women)’의 각 분과별 논문초록을 모집한다.

논문은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 현재와 과거’를 대주제로 △명상수행 △참여불교 속의 수행 등 6개 분과에서 모집하며 2004년 1월 15일까지 논문초록을 제출하면 된다. (02)766-9580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불상(10)

불상에 나타난 권위의 의미



◇군위삼존불은 통일신라의 자신감과 권위적인 이미지가 처음 나타난 불상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은 역사 속의 기적이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국력이 열세이고, 지역도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강대국이었고, 백제는 불교를 일본에 전파할 만큼 국제적 역량을 갖춘 나라였다. 그러나 정작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외형상 가장 허약한 신라였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의외의 결과에 의문을 갖고 저마다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김춘추의 뛰어난 외교가 상징하듯이 국제정세를 읽고 이에 대처하는 신라인들의 능력이 그 원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신라의 통치조직이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견실한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또한 신라의 통치세력이 백성들과 밀착되어 있는 점이 삼국통일의 원동력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통일을 성취한 자신감은 불상에서 권위적인 그 무엇으로 나타났다. 삼국시대 불상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이미지에서 위엄과 권위로 지배하는 이미지로 옮겨가고 있다. 군위삼존불이 바로 통일 직후의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 예이다. 본존불은 묵직한 체구에 표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무뚝뚝한 얼굴이다. 인간적인 부드러움과 친근함보다는 종교적인 권위가 강조된 것이다. 중국 수나라 불상의 위엄 있는 양식이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한 몫을 거들었다. 다만 양쪽의 보살들에는 부드러운 인상인데, 이는 삼국시대의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권위와 종전의 부드러움이 함께 공존한 모습이 신라가 통일되면서 불상에 나타난 특징이다.

신라가 통일한 뒤 주력해야 할 역사적 과제는 고구려와 백제를 어떻게 신라와 화합하느냐에 있다. 이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부적인 갈등이다.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그의 맏아들인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취임한 첫해에 김흠돌을 비롯한 진골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압하였다. 문무왕 때부터 진골세력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신문왕 때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러한 왕권강화 정책 속에서 신문왕이 탈출구로 삼은 것이 달구벌, 즉 대구로의 천도이다. 7백여 년을 수도로 지켜왔던 경주를 떠나 대구로 옮기려 했으니, 그 정치적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8 신문왕 때의 기사가 “689년 왕이 달구벌로 서울을 옮기려다가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실증하듯이, 천도를 하지 못한 것이다.

삼국통일 성취한 신라인의 자신감 투영
묵직한 체구 · 무뚝뚝 ‘군위삼존불’ 대표적

통일신라 불상의 새로운 특징인 권위적인 이미지가 경주가 아닌 대구 팔공산 자락의 군위삼존불에 처음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근엄한 형상 속에서 우러나는 경외심을 통하여 백성들을 교화하려는 종교적인 목적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법구경 강의 80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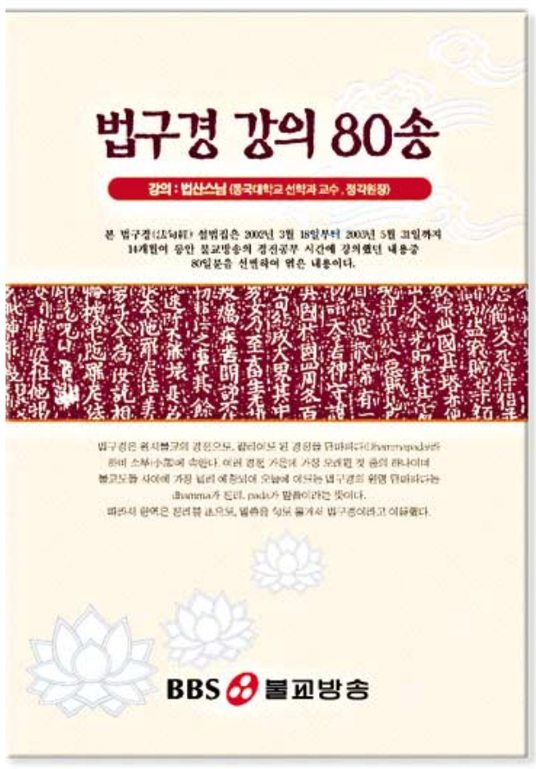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우암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5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구인구직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목 처사님 모십니다
011-361-5055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울 산
▷ 월보시 80만원, 50~60세
052-245-5863

50대 중반의 스님으로 사찰 운영 관리하고 믿고 맡기실 사암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찰도 연락 바람
011)517-8415

부전 스님 모십니다
02-456-0797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체력보강제와 위장약을 불자님들께 원가에 드립니다
소화, 위장, 설사, 하복통, 구역질, 소화 계통 일절, 오래된 위장병, 체력이 약하신 분 자신있음
1개월분 5만원 대도한의원
011-392-4984

전통문화에 취미와 관심을 가지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 신행생활, 사찰순례 등을 할 수 있는 55세 이상의 진솔한 남자 도반 불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낭만적이고 공부 함께 하실 분)
051)341-2337
(오후 8시~오전 9시 통화가능)

조용한 암자에서 평생 살고 싶은 57세 보살입니다
혼자 암자 운영하시는 64세 정도의 비구스님으로 신도 있고 안정된 사찰을 찾습니다
054-472-5072

보 시
후불탱화 및 각종 손상된 탱화 금박(GOLD)입혀 드립니다
서울경기지역만 가능
무료 보시합니다
본 각 스 님
011-9447-9941

전통 의식 행사에 스님 필요하신 곳
- 전통의식 각종 행사
- 천도재, 시식, 다비의식
- 기타 불공 등
02-939-3327
범음,범패, 제의식, 바라춤, 나비춤, 염불 배우실 학인모집中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동영상 강의
역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착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당뇨 · 변비 고민 끝!
1개월 효과 없을시 100% 환불제도
※각종 성인병 탈출※
051)313-6252~3(무량사)
053)253-6355
자연이 드리는 최고의 선물
www.gffood.co.kr
mbc 임성훈입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kbs-2 세상의 아침 방송

비구니 스님 부전 구함
법랍 10년 전후 스님을 모십니다
하루 두번 기도 법사 소임입니다
조계종 사찰 서울 성북구 소재
02-943-085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칠곡군
016-521-0003
054-975-0003

저는 현재부산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62세의 소승입니다
저와 같이 평생 절을 운영하실 50~60세까지의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단, 운영상 약간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011)567-2626

스님을 찾습니다
· 나이 : 53세 · 법명 : 道光
· 특징 : 현)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전 시자스님
전) 서산 부석사 주지스님(1993-1997)
전)현대서산 농장 관리소장 김 영 수
011)573-8622

신비의 쑥뜸
(피부화상이 전혀 없습니다)
기관지 천식, 암, 디스크, 관절염 등 성인병,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개별 별도 상담해드립니다
경기 안양
011)9834-8942

무 료 강 좌 안 내
■ 장애인 협회 협찬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강좌를 실시합니다 ■
▶ 과목
(1)침술학-매주 토요일 13:00~17:00
(2)명리학-매주 토요일 10:00~12:00
▶ 개강일정 : 2003. 10. 4 (토요일 부터)
▶ 대상 : 3-6급 장애인(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수강당일 장애인 증명서 지참할 것
▶ 교재 : 개별 구입
▶ 수강신청 : 선착순 15명 (전화신청 불가)
사암침술학회 011-307-2975. 02)355-8312

역리학 개인지도(무료)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함부로 하는 천도는 아니 함만 못합니다
KBS미스테리 추적 방영 스님 직접 상담
상담전화 ☎ 02)962-0867

계룡산 정통좌경 법사 수강생 모집
◆ 지도 과목 ◆
① 청 ② 고장(장단) ③ 문서(경문) ④ 설경 ⑤ 선거리장단 ⑥ 대금(피리) ⑦ 아쟁 ⑧ 판소리 및 북장단
◆ 정통 국악인 선생 직접 지도 ◆
· 판소리 전국대회 입상(부산)
· 판소리 전국대회 금상(서울)
· 국악 지도자상 수상
· (사)한국 국악협회 공로상 수상
· 국악신문 감사패 수상
◆ 수련장 : 경남창원시 천명산(경남도청 뒤)
지산국악예술학당 055)264-8269. 011-864-8269

성 수 철 학 원 (학 인 모 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시장 네거리 (명당약국 3층)
053)472-4784. 018-531-2237

눈
안구 건조, 눈물, 충혈, 피로, 눈곱, 눈부심, 희미함
이물감, 시력 저하, 시신경 개선, 활성산소 제거
다른 질병으로 눈이 나빠진 분, 눈 수술전후 회복
불자, 학생, 직장인, 운동선수등 눈을 많이 쓰는 분
일본특허 : 2790212 식약청 HSK : 2106909099
미국특허 : 5382714 상표출원 : 2002-5278069-80
▷ 주문상담 : 눈밝은세상(02)2237-8004
◆ 인터넷주소 : 눈밝은세상(한글로 5자만 치세요)
◆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완제품 수입)
전국지사 대리점모집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 실력테스트 해보세요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수 인 작 법 사 주 팔 자
강의와 교육으로만 성취되었던 수인작법이 수수리 수인작법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 자신과 인연된 모든 수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책 한권으로 인해 눈밝은 이로 다시 성장될 것입니다
■ 우주의 조화를 품고 있는 천리도수
■ 천기로만 묻혀있던 신비의 수치세계를 열어보입니다
※ 공부를 원하거나 책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 조계사 가까운 곳 [책방 여시아문]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금주 : 이광래 (국민 093-21-0592-051)
031)633-1517. 016-213-5451

화상방지용 전통 氣항아리 부황
■ 실용실안출원등록 (03-21028) ■



⊙ 화상방지 부황단면도 ⊙



⊙ 부황관자 SET ⊙

⊙ 제품 특징 ⊙
▶ 본제품은 전통항아리 부항의 단점인 화상의 문제점을 보완. 화상방지용 특수관자로 제작 되어 부항시술시 화상을 입지 않고 안전함
▶ 氣 제품으로 특수 제작되어 수맥 및 전자파를 차단하고 몸 안에 독소를 흡착시키는 효과가 뛰어나 혈액순환과 내장기능 운동을 활성화 시켜 진정 이완 · 반사 · 교정 · 효과를 극대화 시킴
▶ 현재 전국 유명 찜질방과 사우나 등에서 성황리 판매 영업중으로 소자본으로 창업하여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유망직종으로 전문샵을 운영할 분 에게는 통증완화 알콜 숙성 방법등 부항요법 무료교육
카히로힐링아카데미 cdhk0514@hanmail.net
031)792-8444. 011-9954-9534

생 활 불 자 정 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 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난 치 병 치 료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다
디스크, 관절염, 당뇨, 간질환, 두통, 우울증, 화병, 불면증, 신(神)병, 원인모를병 기타 불치병
사업실패, 가정불화등으로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 상담합니다
천지사포교원 02)2051-5549

유 명 침 구
♥ 저의 업체는 침구류 제조 업체로서 새 상품은 물론 사용하시던 제품을 보료, 방석, 이불, 요, 솜을 살균 소독 재생하여 맞춤,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제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998-1717. 011-702-2015
02)999-1717. 011-320-6296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부처님의 자취가 그리워 떠나는...
佛敎聖地
삼보에 귀의 하옵고...
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는 12년을
初心의 마음으로 佛者님과 함께합니다.



혜초여행사
HYECHO ADVENTURE TOURS,LTD.
대표 : 02)733-3900 / 직통 : 02)6263-4848
대구사무소 : 053)567-8848
www.hyecho.com
불자님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친절!과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할인 항공권 ▣ 여권 제작 대행 ▣ 세계 각국 비자 수속 대행업무
※ 스님은 수수료없이 대행하여 드립니다.
◆ 서울 담당자 : 석채언 / 이진영 / 김진석 / 이아름
◆ 대구 담당자 : 신동우, 김선희

싱가폴 항공 전세기 취항!!! (싱가폴 ↔ 부다가야)
후원 SINGAPORE AIRLINES



인도 / 네팔 佛敎聖地巡禮 佛敎 聖地巡禮만을 위한 싱가폴항공 특별기가 최고의 佛跡地인 부다가야로 모십니다.

불교성지 순례여행 - 189만원 단2회
● 1차 전세기 : 11월 21일
● 순례지 : 싱가폴-가야-나란다(불교대학)-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열반당 및 다비터)-룸비니동산-스라바스티(기원정사)-고락푸르-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싱가폴
● 2차 전세기 : 12월 8일
● 순례지 : 싱가폴-부다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바라나시-델리

불교성지 배낭여행 - 108만원
※ 일정은 불교성지 순례여행과 동일합니다.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인도 성지순례에 따른 교통, 숙박, 가이드
● 불포함사항 : 비자, 관광진흥기금, 식사, 입장료, 싱가폴 지역 관광
*** 승가대학, 신행단체, 학생 단체 대환영!!! 미리 계획하시면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성지 순례가 될 것입니다.

고품격 인도/네팔 성지순례 NO 1!! NO 옵션!!
15명 이상일 경우 1분은 무료로 모십니다.(15 + 1 free)

▣ 불교성지순례 - 8박 9일(아시아나항공) 215만원
델리 직항편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빠르게 다녀오실수 있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 인천-델리-스라바스티(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나란다불교대학-라지기르(영취산,죽림정사)-보드가야-바라나시(녹야원)-아그라-델리-인천
● 출발일 : 1/8, 2/5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불교성지순례 - 10박 11일(싱가폴 항공) 225만원
불교성지순례는 물론 인도 문화유적지의 보고 델리/아그라의 여유있는 탐방과 싱가폴 투어까지 이어지는 엄선된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 인천-싱가폴-델리-스라바스티(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나란다불교대학-라지기르(영취산,죽림정사)-보드가야-바라나시(녹야원)-아그라-델리-싱가폴투어-인천
● 출발일 : 12/25(성도재일), 1/26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성지지역 및 각 도시 최고의 호텔과 한식 전문 요리사가 함께 합니다

▣ 불교성지순례 - 12박 13일(상가폴 항공) 259만원
8대 성지와 불교미술의 보고 아잔타,엘로라 그리고 산치 대탑의 화려함까지 느껴보실 수 있는 불교성지순례의 모든것이 담겨 있습니다
● 일정 : 인천-룸바이-엘로라/아잔타석굴-산치대탑-아그라-스라바스티(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라지기르(영취산,죽림정사)-보드가야-바라나시(녹야원)-델리-인천
● 출발일 : 12/8, 1/2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후원 SINGAPORE AIRLINES

◎ 스리랑카 6일 119만원
불교의 보고로 불리우는 "아름다운 섬" 스리랑카 성지순례
● 일 정 : 콜롬보-네곰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당불라-시기리야 - 플론나루와-당불라-캔디-켈라니아- 콜롬보
● 출발일 : 11/7,11/2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미얀마 6일 159만원
황금불탑과 살아있는 불교의 나라 미얀마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싱가폴까지 함께하는 최적의 불교성지 순례!!! - 대만족
● 일 정 : 인천-싱가폴-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싱가폴-인천
● 출발일 : 10/21,11/4,11/1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인도 호텔팩 시리즈
미리 호텔과 기차예약을 해두고 안전하게 떠납니다. 2명이상 수시출발!!(복대+티셔츠+안내문까지)
인도기본 10일 113만원(주중) ● 일정 : 델리-바라나시-아그라-자이푸르-델리
인도핵심 15일 126만원(주중) ● 일정 : 델리-자이푸르-아그라-오차-카쥬라호-바라나시-델리
인도/네팔 22일 139만원 ● 일정 : 룸비이-엘로라/아잔타석굴-아예다비드-우다이푸르-자이푸르-델리-아그라-카쥬라호-바라나시-룸비니-카트만두

◎ 겨울 티벳 단체 배낭 8일 133만원
해발 4,000m 겨울 티벳고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티벳 사람들의 문화를 자유롭게 둘러 보실 수 있습니다.
● 출발일 : 10/18, 11/22, 12/20, 1/17
● 포함사항 : 국제선, 국내선 티벳여행 허가서, 숙박 전용차량, 여행자보험, 전문인솔자, 현지가이드
● 불포함 사항 : 관광진흥기금. 현지공항세, 식사비, 입장료, 개인경비

◎ 티벳 세미배낭 여행 시리즈
3-4명이 팀을 이루어 광활한 티벳 고원을 질차로 달립니다.
● 출발일 : 매주 화, 목, 토, 일 (3-4인 수시 출발 가능)
● 상 품 : ❶ 티벳 8일 - 155만원 ❷ 티벳 11일 - 179만원 ❸ 티벳 / 네팔 8일 - 169만원 ❹ 티벳 / 네팔 11일 - 179만원 ❺ 동부티벳 12일 - 183만원 ❻ 티벳 / 에베레스트 BC / 네팔 16일-197만원
● 포함 사항 : 국제선,국내선,티벳여행허가서,숙박, 전용차량, 여행자보험,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 불포함사항 : 관광진흥기금,중국비자비,현지공항세,식사비,입장료

대만 5일 95만원
10/26, 11/9, 11/23

중국 구화산/황산 5일
11/10, 11/24 89만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청송 / 위치 : 대구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법당 : 13평 / 법당 : 40평
- 요사 : 20평 / 요사 : 40평 / 요사 : 60평
- 부지 : 4000평 / 부지 : 513평 / 부지 : 3300평
- 가액 : 2억5천 / 가액 : 1억8천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택지 지구내 아파트밀집지역(뒤)
- 면적 : 33평(공양간 별도)
- 전세 : 3천만원(월세없음)
- 시설비 : 2천만원(절충가능)
- 장엄 화려함. 즉시 법회 가능 (10년 포교지)
- 주지스님 전라도 암자로 가는 관계로 저렴하게 양도함

016)234-3184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곡성군 겸면 마전리
- 잘 수리된 한옥 2동. 마을 안
- 비구니 스님 처소로 적당
- 꼭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가액 : 5700만원

061)362-8898
011)662-1868

사찰 안내

- 위치 : 관악구
- 부지 : 60평
- 법당 20평, 요사 32평
- 지하 방4개, 기타
- 가액 : 4억 9천원(융자가능)

016)270-9635
02)883-1010

사찰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 지목 : 임야
- 평수 : 1만7천평, 명당터임
- 절터나 납골당,기도원 적합
- 물 수량풍부. 차량 진입 가능
- 지방도 2차선에서 1200m
- 참나무단지로 표고버섯 재배도 가능

011)487-3066

토굴 별장 펜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3천만원(대출 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 직접 살고 관리해 옴

016)367-2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남부 / 위치 : 서울
- 대 지 : 1000평 / 대 지 : 2700평
- 법 당 : 25평 7포 / 법 당 : 35평
- 요 사 : 35평 / 요 사 : 70평
- 가 액 : 6억5천 / 가 액 : 17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터 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 평수 : 6천평(종교용지 적합)
- 가액 : 1억 1천만원
- 주위환경 및 적합용도: 태화산 줄기로 주변 자연 자연 경관 녹지 준 농림지역으로 모든 사람 개발의 저해요인이 전혀 없는 허가 조건이 용이한 지역. 서울 방향 중앙고속도로 이용

043)422-1993
011)492-6119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청옥산
- 부지 450평, 대지 100평
- 주위 1천여평 하천부지사용가능 (방생법회)
- 요사 5평, 방3,주방,세탁실,세면실
- 법당10평(비로자나,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부처님)삼존, 최근 아미타삼존불 불사
- 지장 기도 도량
- 가액 : 1억 2천만원

011)9486-8133 / 054)674-813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 포천군
- 대지 : 약 205평 자터
- 법당 28평
- 산신각 4평
- 요사채 28평
- 조립식 건물
- 창고 6평
- 가액 : 5천5백만원(급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
- 시설비 1700만원→35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자세한 문의사항 만나서 상담. 전화요망

019)335-0821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강진
- 대지 : 900평
- 임법당 35평
- 석탑 : 보물 제 298호
- 석비 : 보물 제 313호
- 가액 : 4억 8천만원

011)9850-1011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에서 진주간 국도부근(부지 : 대지 250평 등기)
- 건평 : 법당 25평(기와 단청필) 보일러실, 20년된 사찰
- 주지실 및 요사채 : 30평(스라브)방3개,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 요사채 : 25평(스라브)방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
- 산신각 및 용왕당 (천연자연수)
- 사찰내 차량 진입 가능하며, 사찰 뒷편 자연림 고목으로 산세수려함
- 요사채 위 2층으로 증축 가능

※ 부산 경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와 기도 도량으로 최적지임

- 가액 : 1억5천8백만원

011)9017-544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노원구 (지하철역 200m)
- 대지 : 7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4억8천(융자가능)

※ 역사 오래된 도심 포교사찰임

- 위치 : 인천 부평 소재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양도가 : 3억

※ 뒤는 산이며 역사 80년된 고찰로써 교통의 요지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 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목조 임법당, 대지 300평
- 건평 40평 (방4, 법당1, 부엌1, 목욕탕1)
- 가액 : 8천500만원

054)437-1857

포교당 안내

- 위치 : 시흥시 신천동 시장부근
- 인구밀집지역으로 포교 적합함
- 큰방(법당), 작은방1칸, 욕실,주방
- 2층빌라 등기이전 및 시설비 포함
- 은행대출 없어서 필요시 대출가능
- 가액 : 3천300만원(집기일체포함)

031)404-3956~7
018)367-8845

사찰 안내

- 위치 : 수원 4대문안
- 기도 청정 도량. 교통 요지
- 법당과 요사채 별도 분리
- 평수 : 59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조정가능)
- 시설비 : 2500만원

011)9822-1010

인가된 교육기관 안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평수 : 약 375평
- 건물 : 강의실 2, 사무실 1
- 특징 : 인가된 3개학과 9개 전공설치
- 기타 :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인가. 92년도 불교대학원과정 교육기관
- 가액 : 매매 2억

011)412-8040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사 찰 안 내

(전 세)
- 위 치 : 부산
- 대 지 : 24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전세 1억(월세 150만원)

※주택지 도심사찰

(토 굴)
- 위 치 : 경주
- 부 지 : 100평
- 법 당 : 15평
- 요사채 : 10평
- 가 액 : 4700만원

※ 산속, 계곡 접함

- 위 치 : 부산
- 부 지 : 107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가 액 : 4억5천

※ 산복도로 접한 2층사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초등학교 옆
- 건물 5층 5층 40평
- 방1, 부엌, 화장실
- 법당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51)557-6598
011)9599-1284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작전동 대로변
- 상가건물 2층
- 평수 : 35평
- 법당, 큰방1, 큰거실1, 주방, 화장실, 베란다
- 가액 : 1천만원, 월 40만원

018)303-5487
018)543-1223

사찰(급)안내

- 대지 60평 7홉, 건평 40평(양 등기 있음)
- 인법당 방3개, 거실, 화장실, 수세식 2칸
- 주택가 막다른 집, 삼각산을 등지고 있음, 집뒤로 자연경관이 수려함
- 지하 200미터 암반수 개발
- 비구, 비구니 수행처로 최적지임
- 평당 400만원에 매입했음
- 위치 : 수유 4동 419로지 부근임

011)315-9226
011)890-7618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 법당 25평(주지실), 요사 50평
- 약사여래입불(조선시대 조성)
- 등기필 300여평, 시유지 1천평
- 시내 인접
- 가액 : 1억 3천만원
- 장난 전화 사절합니다

011)677-852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동 전철 10분거리
- 상가건물 5층. 2층 독채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9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32)612-6917
016)368-6917

사 찰 (토 굴) 안 내

- 위 치 : 중랑구
- 부 지 : 70평
- 법 당 : 17평
- 요 사 : 50평
- 가 액 : 5억원

※ 도심 사찰

- 위 치 : 인천
- 부 지 : 500평사용
- 법 당 : 15평(임)
- 요 사 : 20평
- 가 액 : 1억2천

※전세가 가능함

※ "급" 구함

- 위 치 : 서울및근교
- 가 액 : 2억~10억 기량의 토굴및사찰 전화상담 환영

◈전국소재 사찰 · 암자 ·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참 인연됩시다 - 정인불사 전 화 ☎ 02)722-8968 휴대폰 011-707-8204

-(조계사앞 도장전각전문점 02)735-0750 정인사)-

사찰 안내

- 위치 : 광주시 남구 관할지역
- 불구일체, 비품 제공 (미륵불, 종등 등)
- 건평 : 78평(3층 건물)
- 대지 : 59평
- 가액 : 2억2천만원(전세도가능)

011)9604-4730
019)602-4730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옥동 985-4
- 대지 228평
- 건평 1층 98평, 2층(살림집) 35평
- 신도시 양도로 진입도로 사방 10m
- 가액 : 9억(절충가능)

054)821-8644
011)548-530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에서 10분거리임
- 대지 : 164평
- 건물 : 법당15평, 삼성각5평, 요사채 30평 (손볼것 없고 주차장 완비)
- 가액 : 9천만원(절충가능)

054)252-7749
017)803-7890

포교원 안내

- 상가건물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 위치 : 인천 주안동

032)863-3171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마을에 인접해 있는 사찰로써
- 자연녹지 임야 2천평
- 사찰년도 70년. 인지도, 지명도 확실
- 요사채,법당-기와골조 현대식 25평
- 산신각 10평, 독립 요사채 5평
- 종각 2평. 2차선도로 인접.주차장 40평
- 가액 : 3억 2천만원(절충가능)

011)564-121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미륵바위와 빼어난 산세, 남쪽 금강산
- 평수 : 총면적 3천평(허가필,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요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건물 현식, 교구본사, 사찰, 연수원, 수련원, 기도터, 기타 종교 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사리 33과
- 가액 : 상담후 가격 절충

011)613-1775/016)838-9394

가족납골묘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 대지 : 250평
- 특징 : 가야산 상봉으로 둘러싸인 명당임으로 가족 납골 묘터로 최적합

011)699-912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가평 북면 화악산 줄기 최고 물좋고 24시간 물흐름
- 냇가 있고 경치 좋고 산세 수려
- 2500평이상 평당 35만원
- 오래된 대웅전, 요사채, 용화전, 산신각, 전각 2개

011)9126-226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부지 : 12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1)881-5008

사찰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부근
- 55평. 법당(삼존불,산신각, 108 지장보살님)
- 방3개, 주방, 화장실
- 가액 : 1억(상담후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6)243-1643
02)907-1643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가
- 대지 203평, 현거래시가 250~260만
- 사정상 급 평당 190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5층, 7층 탑
- 백년이상된 고목 1그루
- 포교 적합지
- 화장실 남2, 여2
- 주차 7~8대 가능
- 주인 직접, 소개인 사절

011)883-7856

사찰터 · 암자터 · 휴양지 · 별장터

- 장소 : 충북 단양 향산 석탑 인근
- 임야 : 만평(준농림), 전 230평, 전래샘물 有
- 남한강 : 300m, 도로 : 150m 진입로 有
- 적송 : 만주이상(10년생), 낙엽송 : 5천주이상(37년생)
- 송이버섯 매년 입찰 들어옴
- 가액 : 5억 5천만원. 주인 직접.

032)553-8835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밤산 군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동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 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 2억7천만원

011)531-13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인구밀집지역. 포교 적합
- 평수 : 50평. 오존불 봉안
- 법당 , 종무소, 방3, 주방, 욕실
- 불구 및 주방 용품 일체 제공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3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6천만원

011)9484-633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순흥면 소백산하. 소수서원 관광개발지 50m. 대로변 영주에서 7~8분거리. 위치 좋음
- 대지 295평, 요사 24평(슬라브)
- 임법당 10평(기와). 산신각 2.5평
- 가액 : 2억 3천만원

054)632-8177
016)675-232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두류네거리 부근 인구밀집지역. 위치좋음
- 평수 : 52평
- 방2(大1, 小1), 공양간, 실내 화장실
- 삼존불, 신중전, 영가단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답사후결정

018)747-0408

양도 및 교환(급)안내

- 불교용품 백화점과 교환하실 분
- 암자, 사찰, 대지, 기도터
- 내부방4개-주방, 욕실
- 법당 조성 및 살림 가능
- 답사후 가격 절충

02)478-4334
011)9410-0031

포교당 안내

- 위치 : 송파구 거여동
- 총평수 40평, 2층
- 방1,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700만원

011)356-6946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
- 건물 20평. 등기 필
- 가액 : 1억 500만원

019)9192-9999

토굴 안내

- 대지 : 110평
- 사리탑 3과, 상단, 중단, 칠성 탱화, 산신탱화
- 가액 : 2천500만원

016)290-6699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 부지 : 405평
- 건평 : 목조한옥 21평(임법당)
- 가액 : 2억 3천만원 (전세도 가능)

041)753-8137
016)249-3393

사찰양도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소재 5분거리
- 대지 : 약 530평
- 건평 : 113평, 법당 (27평)
- 법전 요사(거실1, 방3), 식당, 주방, 요사 고시원(방 18개)운영
- 교통 · 전망있는 지정시가지의 산세좋은곳
- 가액 : 답사후 결정

031)643-9051
019)375-9051

사찰(급)안내

- 위치 : 목동사거리
- 60평
- 시내 한복판 . 시장 입구
- 가액 : 5천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포함)

02)2645-2445
011)9947-4458

사찰부지 안내

- 서울 근교(강남 45분거리)
- 부지 : 1500평(1,000평 종교부지 허가)
- 산세수려, 수목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5억5천만원

017)438-337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대지 : 527평, 법당 25평
- 삼성각 20평, 요사채 60평
- 임야 : 15,000평(별도 계산)
- 가액 : 6억~7억(답사후 결정)

055)932-7503(전화문의요망)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 평수 : 70평(최고시설 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전세가능)
- 시설비 : 2천만원
- 도심속의 최고 포교 적지 (실제 들어간 비용 1억 5천)
- 대작불사 관계로 인연있는 스님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 집기류 일체 무상

011)9315-1200

사찰(급)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 부지 : 260평
- 대웅전 24평, 지장전 5평, 산신각 2평, 용왕전 0.5평
- 주지방2, 종무실1, 공양실 大 1, 小 1, 기도방 1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9124-8489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15분거리
- 대지 201평, 전 33평
- 법당 : 20평(기와), 최고 시설
- 삼존불, 후불, 신중, 신중, 칠성, 지장, 산신탱화 6채 1동 40평, 방3개, 화장실 2개, 현대식건물, 옥외 화장실 2개, 창고1개, 주차완비, 정남향, 교통편리
- 가액 : 1억5천만원(절충 가능)

011)817-4027
011)9390-3883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752-1 약천사
- 바닷가 전망 좋음
- 토굴 30평. 부처님 조성
- 토지 700평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051)754-1055
016)614-873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 2층 약30평(4층건물)
- 가액 : 23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아주 깨끗함. 아파트 밀집지역
- 재래시장 근접

051)524-8180
011)597-6700
011)9531-6879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목어

'반납' 행태 청산하자



성태용
건국대 교수
본지 논설위원

군대에서 배운 것은 제대할 때 모두 반납하고 나온다고 한다. 허긴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익힌 행태가 그대로 사회생활에 이어진다면 그것도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반납의 행태는 얼마나 큰 손실인가?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소중하게 다음 기간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들을 잘 챙겨야 발전적인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 '반납'이라는 것이 너무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야당 생활하다 집권당으로 가면 야인의 생활에서 얻은 것은 모두 반납하고…. 평사원 시절에 느끼고 실천하리라 다짐했던 것들은 간부급으로 가면 모두 반납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개인의 발전에 망각되고 잊혀지는 부분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반납 행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예를 불자들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절에 가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은 절 문을 나오면서 반납하고 만다. 절에 가서는 사홍서원이라는 큰 서원을 세운다. 생노병사의 고통을 여의리라 다짐한다.

그러나 절 문을 나와서 세속 생활로 들어가면 서원은 온데간데없고 세속적 욕망의 추구에 몸을 맡긴다. 생활에서 느끼는 고통과 생노병사의 거룩한(?) 고통은 별개로 여기고, 그러한 고통은 불법의 지혜가 아닌 세속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일,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 사홍서원과 연결되지 못할까? 일상의 고통이 생노병사의 근본 고통의 갈래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

불자들의 이중생활, 반납의 행태가 청산되는 시점이 바로 진정한 불교가 이 땅에 서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만(卍)' 자 모자와 방망이

'만(卍)' 자 모자와 방망이 '만(卍)' 자 모자를 쓴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가 10월 2일 대구구장에서 56호 홈런을 날려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불자인 이승엽은 지난 4월말 극심한 타격부진에 빠졌을 때 모자 안쪽에 만자를 새겨넣은 뒤 차츰 슬럼프에서 벗어났다. 올 시즌 도루왕 이종범 선수도 포스트시즌을 대비해 특수 제작한 방망이 10자루에 만자를 새겨 넣었다. 자랑스러운 기록처럼 불심도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

장군죽비

절에서 몰래 누드 촬영

배우 이지현이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사원에서 누드 도둑촬영을 했다. 아예 촬영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촬영팀은 "누드촬영을 허용할 분위기도 아니고, 실제로 여성의 벗은 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일반 화보 촬영으로 가장한 채 누드촬영을 한 것이어서 사진이 공개될 경우 국제적 망신과 국가간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불자 세상보기

리의도
춘천 교육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한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 겨레는 오랫동안 한자를 빌려 우리 언어를 기록했다. 15세기에 이르러 세종은 '우리말을 우리말답게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온 백성이 쉽게 부려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1443년 음력 12월에 새 문자를 완성했고, '훈민정음'이라 이름 하였다. 뒤이어 해설서 <훈민정음>을 편찬하여 그것과 함께 1446년 10월 9일에 새 문자를 세상에 반포하였다.

그러나 한자 · 한문에 길든 사대부 중에는 훈민정음을 외면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았다. 훈민정음이 실용화되고 정보가 공유되면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을 염려한 이유가 컸다. 연산군 때에는 훈민정음으로 된 수많은 책들이 불살라지기도 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언어와 훈민정음으로 소설이 생산되고, 가사와 시조가 지어졌다. 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유학자와 왕비, 임금도 훈민정음으로 편지를 썼다. 궁체라는 글씨예술까지 생겨났다. 일부의 표면적인 현상과는 달리, 훈민정음은 많은 겨레의 가슴과 생활 속 깊이 자리잡아 갔다.

끝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자 뜻 있는 이들이 조선어 학회로 모여들었다. 한글과 우리 언어를 가다듬고 지켰다. 피나는 노력의 덕택으로, 포악한 왜정 밑에서도 한글과 우리 언어는 살아 남을 수 있었다.

한글은 이렇게 550여 년을 헤쳐 왔다. 그것은 겨레와 다수의 행복을 위한 투쟁의 길이었다. 그러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한자 사대주의가 서성이는 가운데, 서양의 로마자가 한창 기세를 올리고 있다. "A/S, BC, S/W, VJ, H.P, Fax, SALE, coffee, …" 들이 일상에 흘러넘치고 있다. 또 다른 사대주의의 등장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공간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현상이 확대 · 재생산되고 있다.

정부부처는 물론 한글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조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어를 오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1개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어문규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116곳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한다. 띄어쓰기는 774곳이 잘못 표기됐다. 또 한글 표기를 병기하지 않거나 영어나 한자어만 표기한 예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국어 오용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비속어와 국적없는 외래어 사용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시와 파괴의 정도도 예사로운 수준이 아니다. 2001년 12월에 발행된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통신에 등장하는 "안녕하세요"의 표기 형태가 "안냐세염, 안뇽하세욤"을 비롯하여 18개나 더 있다고 한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자 읽기보다 어렵고, 영어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우리 겨레의 역사는 '정보 공유의 확대'라는 가치를 추구해 왔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한글이다. 한글의 사용을 확대하고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 것은, 그것이 정보의 공유와 교류를 원활히 하는 바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국제화라는 명제하에 입만 열면 국적 없는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은 한민족의 글과 말을 망치는 일이다.

오늘날 한글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과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21세기와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진 정보 · 지식 기반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이 같은 도전과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생태사찰 만들기' 토론회

사찰환경문제는 불교정신의 위기

두레생태기행과 맑고향기롭게는 9월 30일 서울 길상사에서 '숲과 함께 하는 생태사찰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의 불교환경 운동가가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의 '불교와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강연과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소장의 '사찰생태 현황'에 대한 발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리=박봉영 기자>



◇9월30일 두레생태기행과 맑고향기롭게가 서울 길상사에서 개최한 '생태사찰 만들기' 토론회 모습.

▧ 현고스님(조계종 기획실장)

스님대상 환경교육 강화해 의식개혁을

불교의 자비실천 사상은 인간해방, 사회공동체, 생명공동체, 가치 갈등해소를 지향한다. 이 가운데 생명공동체 사상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자연의 인간에 대한 보복을 지양하고, 인간과 자연의 화해와 상호작용능력을 키우는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불교환경운동은 이같은 생명공동체 사상을 근간에 두고 있으며, 인간중심주의, 서구 지향주의, 물질 지향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종교의 세속화, 상품화에 대한 반성과 개인주의의 한계를 극복해 생명공동체를 회복하고 생태질서와 환경권을 보호 받기 위한 자구책이다. 또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주의로 빚어지는 환경 파괴와 공해, 생태계 혼란을 바로 잡고 생명과 물질을 동일시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빈곤과 산업화의 시대는 이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환경과 문화를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불교환경운동은 환경권과 문화향수권을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화해, 평화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자기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 주제인 '생태사찰 만들기'는 불교계 내부로부터의 환경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무리한 대형불사와 오폐수 등으로 인해 야기됐던 사회적 비난을 해결하는 첫 걸음인 것이다. 사찰 스스로 친환경적인 불사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존재하는 사찰을 가꾸어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스님들의 의식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 따라서 스님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의식개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사찰을 자연과 함께하는 사찰로 가꾸어 나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 소장)

국책사업·불사, 친환경적으로 시행돼야

전통적으로 사찰은 수행처인 동시에 숲을 지키는 산막이었으며, 출가자 또한 숲을 지키는 전령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숲을 위한 사찰과 출가자들의 노력은 이 땅의 자연을 지키는 데 크게 공헌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국책사업이 충분한 평가나 국론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어 국론분열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사찰의 자연환경이 지자체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어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도 개발과정에서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개발이 거의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대응에 나서는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는 사찰 주변의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하며, 사찰도 불사를 친환경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찰의 자연환경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환경의 위기라기 보다는 불교정신의 위기이다.

자연환경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 승가의 청정가풍, 재가자의 수행적 삶의 방식이 먼저 허물어지기 때문에 자연이 따라서 허물어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찰안내도와 불사조감도에 주요 동식물 서식처를 반드시 표기하고, 사찰마다 지표종을 정해 그 지역의 환경조건을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찰을 거닐고 싶은 숲이나 산책로를 조성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공간으로 가꿔야 한다. 사찰조경을 전통에 의거해 생태적으로 조성 · 관리,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사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향이 강하거나 화려한 식물, 외래식물을 심지 않아야 하며, 일본식이나 서양식 조경을 피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체 에너지 이용, 주변 계곡 보존, 환경교육 강화, 생태사찰 선정, 전통 문화재 보존, 쓰레기 줄이기 등의 작은 실천을 통해 누구나 가고 싶은 생태사찰로 가꾸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2)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4)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 산 정 사

해인사 가을 차 문화 수련법회 안내

정성스레 달인 차 한잔의 색과 향기만큼이나 산사의 가을정취도 그 아름다움을 더해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 한잔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좋은 벗들과의 인연을 이어주기에 매우 소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1200년 불교문화의 전통이 살아 있는 해인사에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차와 불교문화를 배우고 느끼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차 문화 수련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 주 제 : 차와 함께 하는 소중한 인연
▶ 참가대상 : 차와 불교문화에 관심있는 분
▶ 입 재 : 2003년 10월 18일 오후 2시
▶ 회 향 : 2003년 10월 19일 오후 3시
▶ 강 사 진 : 여연스님(일지암 암주), 정인오(한서대 교수)
최금자(금정다례원 원장), 정동주(「한국의 차 산림」 저자)
▶ 참가인원 : 120명 ▶ 참 가 비 : 4만원
▶ 접수안내 : 055)934-3081, 011-9252-4020
daum카페 검색 "다로경권"
▶ 온라인 계좌 : 농협 843174-52-023648 (해인사 다경원)
※ 입금후 확인 전화를 해주십시요.
▶ 행사내용 : 차문화 강좌, 참선, 산행, 들차회

해인사승가대학 다경원

태풍 '매미'로 반파된 장애인 부부의 집이 노숙자쉼터인 부산 보현의 집 입소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희망의 집'으로 새 단장됐다.

9월 27일, 가덕도 눌차마을로 들어가는 두 대의 배에는 부산보현의 집 가족 10여명과 대한적십자불교봉사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염불공양회 등에서 참여한 불자들로 가득 찼다. 모두 태풍 매미로 반파된 장애인 부부의 집을 복구하는 '희망의 집짓기'에 일손을 보태겠다고 팔을 걷어부친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하루 일당도 마다하고 자신이 가진 건축 기술로 '몸 보시'를 하겠다고 나선 보현의 집 입소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태풍 '매미'로 또 하나의 아픔을 겪은 장애인 부부의 집을 불자 자원봉사자들이 복구하고 있다.

보현의 집 노숙자들
장애인 '희망의 집' 세웠다

적십자 불교봉사회 · 조계종 복지재단 등과 함께
태풍 '매미'로 못쓰게 된 장애인 부부의 집 복구

부산 강서구 천가동 눌차마을은 해일과 강풍으로 156가구 중 105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 마을에 살고 있던 김동수(41. 시각장애 1급)와 박신화(41. 척추장애 2급) 집은 매립지에 지어져 외벽에 금이 가고 내벽과 가재도구들이 물에 쓸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복구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가 딱한 사정을 알게 됐지요. 집 없는 고통을 겪어봤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었어요." 일용직으로 일하며 부산 보현의 집에 살고 있는 김광태씨는 자신의 건축 기술이 김씨 부부의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보현의 집 입소자들이 건축 기술로 봉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에도 봉사에 적극 나서 화제를 모았었다.

전문기술을 가진 보현의 집 입소자들을 중심으로 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희망의 집'을 짓는 망치질과 벽돌 쌓기를 시작했다. 지붕철거, 내벽 보수, 금이 간 외벽 보수 등 굵직한 일들은 보현의 집 입소자들이 맡았고 가재도구 정리, 자재 운반, 주변 정리 등은 봉사자들의 몫이 되었다. 깨어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와 보일러도 없이 밤을 보내고 있던 김씨 부부는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막막했는데, 정말 꿈만 같고 너무 고맙고…." 부인은 말을 채 끝내지 못했다. "보일러도 새것으로 설치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힘내세요." 부인을 위로하는 보현의 집 입소자들의 말은 투박하지만 정겨웠다.

장애의 고통에 태풍의 고통까지 겹친 김씨 부부의 '희망의 집'은 보현의 집 입소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정성 외에도 대한적십자불교봉사회 121만원의 보시를 비롯 안국사, 염불공양회, 일념회, 정심라이온스, 정진회 등의 보시로 지어졌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종교인 화합 산사음악회 11일 내원암

불교 등 5대 종교 성직자들 한무대에
간장 · 된장 판매수익금 수재민 돕기로

지난 6월 월드컵 개최 1주년을 맞아 6대 종교인 축구대회를 개최했던 종선스님이 이번에는 종교인들의 화합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어 화제다.

11일 오후 3시 대둔산 내원암에서 '마음으로 자연으로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가을산사음악회 2003'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산사음악회에는 불교, 성공회,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5대 종교 성직자들의 무대가 선보인다. 내원암과 한울림합창단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구스님, 승가대학 학인 비구니 스님, 신부, 수녀, 교무, 정녀 등 성직자 20여명이 모여 만든 5대종교연합합창단의 '사랑으로' '내원암 산길에서' 노래가 선사된다.

이 밖에도 국악, 승무, 중고제 판소리 병창, 동편제 판소리, 울산불교합창단 합창, 트럼펫독주, 가야금 창작곡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된다.

특히 이날 판매되는 사찰에서 만든 간장, 된장 판매 수익금은 태풍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수재민을 돕는데 사용된다.

종선스님은 "종교의 벽을 허무는 지름길은 자주 만나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며 "축구대회로 시작된 종교인들의 만남이 음악회는 물론 다양한 통로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수성구 직지불교대학 황룡사(주지 도일스님)도 수재민을 돕기 위한 산사음악회를 연다.

황룡사는 오는 10월 11일 오후 6시 30분 경내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한 자비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사음악회에는 통기타 하나로 음성포교를 펼치는 도일스님을 비롯해 불자가수 박정식씨의 천년바위, 달마스님의 동해소리 및 관음춤 등과 함께 합창단과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산사를 휘감을 전망이다. 천미희 기자




성파시조문학상 수상자
정해원 · 강호인 씨 선정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혜륜스님)가 제20회 성파시조문학상 수상자로 정해원(한국창호공사 대표 · 사진 왼쪽)씨와 강호인(마산 구암초교사 · 오른쪽)씨를 선정했다. 1979년 '아침'으로 문단에 등단한 정해원 씨는 1979년부터 부산시조문학회(별씨)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강호인 씨는 현대시조, 시조문학 추천과 시대문학,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했다. 천미희 기자

초산유원지 개발 본격 저지

통도사 스님들, 현장감시 · 공사중지 신청

통도사 인근에서 추진 중인 초산유원지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통도사 스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도사와 시공업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초산유원지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통도사 환경위원회 스님들은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공사를 막자 시공업체가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러한 갈등현상은 최근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통도사 환경위원회의 주장이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면서 촉발됐다. 통도사 환경위원회측도 시공업체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초산유원지 건립이 법적 싸움으로 비화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통도사에서 불과 400~500m 반경 안에 유원지가 개발되면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 자연환경과 수행환경 파괴가 불가피 하다"는 통도사측의 주장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공사를 백지화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공업체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 환경위원회 집행위원장 산옹스님은 "법원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내려진다해도 수행환경,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지원봉사회가 주최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현장.

박물관 전문안내자 양성
통도사 문화지원 봉사회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는 2003년도 자원봉사자 1차 전문안내자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9월 22일, 25일, 27일 3일동안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전시실내 전시 유물에 대한 집중 강화 교육으로 슬라이드 강의와 현장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는 전시실 성보해설집 '길라잡이'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길라잡이' 개정증보판은 문화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설명과 안내를 돕게 된다. 천미희 기자

대구경찰청 경승진흥회 창립

경찰서에 법당 마련 등 신행 활성화

대구지역 불교계가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전망이다.

불교계 최초로 경찰불교 후원을 위해 지난 7월 결성한 대구지방경찰청 경승 진흥회(회장 유상종)는 9월 26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10월 말 정식 창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대구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원각스님, 각 경찰서 불자회장 등 50여명의 경찰불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 경찰불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상종 회장은 "군불교의 군승과는 달리 경승은 명예직으로 외부의 지원 없이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경찰불교활성화를 위해 경승후원회가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회장은 또,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 산하 8개 경찰서 중에 법당을 가지고 정기법회를 보는 불자회는 각 1개소 밖에 없다"며 지역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정식 발족을 앞둔 경승 진흥회는 대구지방경찰청 경승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근직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한편, 10월중으로 산하 8개 경찰서 경승실에 지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노숙자 무료급식 공간
대성사, 향림당 낙성

천태종 대성사가 사찰 내에 노숙자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 달서구 천태종 대성사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공간 향림당 낙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대성사 신도회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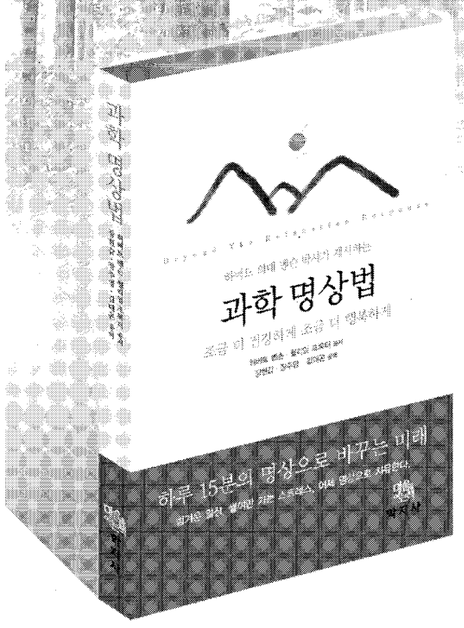

◇노숙자 무료급식소 향림당은 대웅전 앞마당 지하에 건립됐다.

이 자리에서 대성사 주지 문덕스님은 "야외에서 실시된 무료급식으로 어르신들이 식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향림당 낙성으로 더 편안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향림당을 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해 경로잔치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건립된 향림당은 300평 규모로 한꺼번에 400여명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최신 설비를 갖췄으며, 지난 99년부터 대성사가 인근 두류공원에서 진행한 무료급식을 이곳에서 매주 금요일 실시하게 된다. 박원구 기자

왜 지금 명상의 열풍이 부는가?

힘겨운 일상,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불안, 이제 하루 15분의 명상으로 치유한다.



명상계의 대가이자 400만 부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가 제시하는 과학 명상법

역자 : 장현갑(영남대 심리학과 교수/영남불교대학에서 유마경 강의) · 장주영(명상의학과 명상과학 전문번역가) · 김대곤(한경아카데미 원장/명상지도자)



명상이 세계 최고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스토리 '명상의 과학(the Science of Meditation)'이라는 특집기사로 실렸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 1,000만 명 이상이 명상을 수행하고 있고, 학교, 병원, 법률사무소, 정부청사, 회사 사무실,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명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동양의 신비한 미신' 정도로 여겼던 명상에 대해 '무한 효능이 깃든 과학'이라고 경탄하며 그 효능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명상열풍의 모태가 된 의학박사 벤슨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이완반응〉의 후속서 〈과학 명상법〉이 명상열풍의 진실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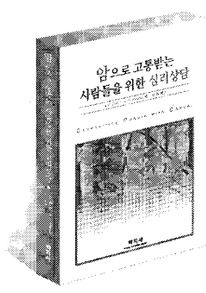
"행복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가꾸는 방법으로 하루 15분의 명상을 추천한다. 명상은 지혜를 일으켜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며, 뜻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 김해관 사장(앤프라니)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가 티벳 승려들의 수행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명상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우리 시대 최고의 명상 지침서." 정규수 회장(삼우 EMC, 세원반도체)

"몸과 마음의 행복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과학 명상법이 바이러스처럼 우리 주변에 널리 번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윤병철 회장(우리금융그룹)

허버트 벤슨 · 윌리엄 프록터 공저/장현갑 · 장주영 · 김대곤 공역/국판/양장/212면/8000원

※ 이 책과 관련된 명상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신문사 한경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02-3604-8855)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상담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암이 진행되어 가는 단계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과 상담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추구해 보아야 할 주제들은 무엇인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경청하고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실제적이고 명확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M. Burton & M. Watson 저/이은희 역/신국판/양장/352면/15,000원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학지사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동 187-10 혜전빌딩 2층 | 영업부 : 363-1333(대) | 편집부 : 363-8661 | 심리검사 사업부 : 363-1125 | 팩스 : 365-1333 학지사 홈페이지 www.hakjisa.co.kr

나혜석의 예술혼 느껴보세요

수원포교당 '제1회 청소년 나혜석 예술제' 개최



한국 최초의 여류서양화가이자 문필가, 여성해방운동가인 나혜석(1896~1948)을 추모하고 청소년들에게 순수예술의 멋과 맛을 일깨워주기 위한 '제1회 청소년 나혜석 예술제'가 11월 8일, 9일 양일간 열린다.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이 주최하고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수원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예술제는 나혜석이 프랑스 유학 후 첫 개인전시회를 열었던 수원포교당 일대에서 천도재, 시화전, 청소년 미술공모전, 연극제, 추모음악회, 사생대회 등의 청소년 참여행사들로

프랑스 유학후 첫 개인전 연 곳

천도재, 미술전등 참여행사 다채

다채롭게 꾸며질 계획이다.

천도재는 말년에 행려병자로 불행한 생을 마친 나혜석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술계 관계자 및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3시 수원포교당 극락대원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미술공모전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서양화에 관계없이 '양성평등과 자화상, 도심 속에서 자연'을 주제로 8일 수원포교당 경내에서 열린다. 사생대회는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부, 중학생부, 고등학생부 4개 파트로 나눠 현재 응모를 받고 있으며, 수상작들은 청소년들의 시화전과 함께 예술제 기간동안 수원포교당 경내에서 전시된다. 사생대회의 최고입상자 1명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이밖에 각 파트별 1명에게는 경기도지사상과 경기도 교육감상 등의 으뜸상이 각 파트별 2명에게는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상과 파라미타 이사장상 등이 수여된다.

성관스님은 "예술제는 수원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예술적 가능성을 키워주고 불교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방화수류정부터 수원포교당을 잇는 수원천변의 나혜석 거리에 나혜석 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수원문화계와 불교계를 대표하는 행사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혜석은 말년에 해인사, 수덕사 견성암에 주석하던 비구니 일엽스님을 찾아가 10여년 동안 작품생활을 하며 불교의 진솔한 모습들을 화폭에 담아 대중에게 알리고자 노력했다. (031)253-0108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가을정취와 함께 역사 배우기"

강화 전등사 10월 17~19일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외규장각도서 반환기원 음악회도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면서 역사의 깊이도 배울 수 있는 축제가 있다. 10월 17~19일 강화 전등사(주지 계성) 일대에서 펼쳐지는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1866년 병인양요때 프랑스에 약탈당한 외규장각도서 반환 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00년 시작된 축제. 올해는 특히 전통과 역사, 문화를 담아낸 상설전시행사가 풍성하다.

전등사 적묵당 앞에서는 100여 년 전의 본산과 현재 본사의 가람배치나 규모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문헌과 자료 조사를 토해 찾아낸 1920년대 31본산의 원경 사진 31점을 전시하는 '조선사찰 31본산 사진기획전'(상설전시)은 이미 1일부터 시작됐고, 17~30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본사 사진기획전'이 열린다. 강설당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는 '100년 전 전등사 사진기획전'도 둘러봄직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원판 사진을 복원해 낸 것으로, 1920년대 대웅보전 사진을 보면 주련 없이 기둥에다 바로 글씨를 쓴 점이 흥미롭다.

이밖에도 오대산 상원사동종의 '주악비천상', 해남 대흥사 함월스님 탑비 뒷면의 '달의 전설' 등 중요 국가지정문화재를 탑본하여 전시하는 '전통문양을 찾아서'(10월 17~22일, 야외갤러리), 인천·강화 지역의 대표적 불교문화재를 담아낸 '사찰의 역사를 찾아서'(10월 1~30일, 대조루 앞), '이여영의 사찰음식 사진전'(삼랑성 가궐터 상설전시) 등이 마련돼 있고, 18일에는 외규장각도서 반환 기원 음악회와 영산회상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032)937-0125 권형진 기자

실천승가회, 캄國 텝퐁 종정 친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직무대행 일문, 이하 실천승가회) 캄보디아 지원단 18명은 10월 1일 캄보디아 제1종정 텝퐁 스님을 친견하고 양국불교교류방안을 논의했다.

텝퐁 스님이 주석하는 왓 우랄놈 사원에서 이뤄진 친견에서 성관 스님(지원단 단장)은 "캄보디아 고아시설과 교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방문했다" 밝히고, 한·캄보디아 불교 교류를 위해 텝퐁 스님의 2004년 공식 방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텝퐁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캄보디아 지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스님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 건립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실천승가회는 9월 30일 컴퓨터 55대와 생필품(속옷 100점, 세면도구 100세트)을 캄보디아 국방부 합참본부와 국가관광위원회에 각각 전달한데 이어 1일 문화종교부에 컴퓨터 20대와 생필품 130세트를 전달했다.

캄보디아=남동우기자

UCLA 대학, 한국불교문화 공연

미국 UCLA 대학 세계민속춤연구소(World Ethic Dance Institute)는 9월 25일 미국 로스엔젤리스의 박물관(LACMA)내 Leo S. Bing 극장에서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배워보는 '한국 불교 문화, 음악과의 만남' 행사를 열었다.

한국예술종합대학 무용학과와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천년만세' '침향무' '상영산' '승무' 영산재' 등을 비롯 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인 법현 스님의 범패 공연 등이 실연됐다.

또 26일에는 한국 불교 음악과 춤과 과에 관련한 워크숍을 열었다. 뉴욕=강유신 특파원

인제, 한용운 스님 추모 전시회

인제거리문화추진위원회(회장 김신향)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한용운 스님 추모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신경림 민영 김규동 곽재구 박노해 시인 등의 작품 60여 점이 전시된다. 문의(033) 461-3437

한편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법장 조계종총무원장)는 9월 23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담사 만해마을 개관 기념 인제군민 초청 만찬회를 개최했다.

김원우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절 살림도 집안 살림처럼"

포천 미륵사 유병란·신재옥 보살

주지스님 도와 15년째 불사 중

매일 아침 절하며 하루 시작

"아니, 무슨 애가 저렇게 김치를 잘 먹어요?" "우리 용환이는 김치만 있으면 밥 한 공기가 그냥이에요. 김치가 떨어져서 아침에 안 줬더니 '엄마, 김치 없어?' 하고 찾더라고요." "그럼, 갈 때 김치 좀 가져가세요."

올해 7살 난 용환이를 포천 미륵사 주지 성광 스님은 '미륵사 아들'이라고 부른다. 용환이 엄마 유병란(43) 보살이 미륵사에 다니고 나서 본 늦둥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절에 오면 법당에도 먼저 들어가서 삼배하고 저보고도 '엄마도 절해' 그런다니까요."

절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것은 유 보살도 마찬가지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주지 스님 말씀 듣다 보면 엉킨 마음도 풀어지고 그러니까 속상해도 오고 기분 좋을 때도 찾는다"고 한다. 오죽하면 "제가 없으면 용환이 아빠는 으레 절에 갔겠구나 하고 여기로 전화를 할" 정도다. 용환이 아빠? "수도가 고장 나거나 전기 끊길 때도 용환이 아빠가 와서 다 고쳐줄 정도로 절일을 많이 챙겨주세요." 6년째 미륵사에서 주지 스님을 돕고 있는 진영 법사가 옆에서 슬쩍 거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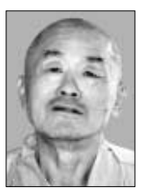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전3리. 앞들이 확트인 수원산 줄기에 자리 잡은 미륵사는 15년째 불사 중이다. 불사금 모이면 포크레인 불러 땅 한 번 고르고, 부처님 한 분 모시고 하다 보니 그렇다고 한다.

신재옥(62) 보살은 성광 스님이 88년 이 곳에 처음 터를 잡았을 때부터 옆에서 지켜봐 왔다. 그 때는 미륵불 하나 덩그러니 모셔져 있을 때였는데, 남편 유윤종(68) 거사가 약수 뜨러 왔다 미륵불을 보곤 부부가 함께 아침마다 백일기도를 하면서 주지 스님을 알게 됐다고 한다. "요즘도 혼자서 일을 다 하시니까 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살림이 좀 넉넉하면 스님 불사 하시는 데도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싶은데…." 신 보살의 얼굴에 근심 한 줄기가 스쳐간다.

미륵사는 일 년에 네 번 정기 법회가 있을 뿐 그 흔한 초하루 법회, 보름 법회도 없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절하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면 되는 거지 초하루, 보름 때만 기도하란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세요."(유 보살) 포천=권형진 기자



◇포천 미륵사에는 절 살림이 곧 집안 살림인 신자들이 많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병란·신재옥 보살과 유윤종 거사.



추천의 말

성광스님 미륵사 주지

배우려는 열의 대단

유병란, 신재옥 보살은 절 근처에 사시기도 하지만 두 내외가 다 절일을 내 집 살림같이 챙기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절은 초하루나 보름 법회가 없는데도 수시로 절을 찾아 기도하고, 절에 무슨 일이라도 있을라치면 그렇게 열심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신도라기 보단 한 식구 같은 분들이죠. 조그만 것 하나라도 부처님 말씀을 배우려는 열의도 대단합니다. 보살님 같은 분들은 미륵사사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성불 천수화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님의 현신을 믿습니다



최저의 단가로, 최고의 품질을 개선하여, 전국의 비구니스님과 보살수행신도님의 용맹정진을 위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불 천수화 입니다.

* 최초의 모델이므로 사이즈가 230 ~ 250까지(10mm단위)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 가격 : 30,000원
온라인 계좌번호 : 우리은행 211-284306-13-101 예금주 : SW 상사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성불 천수화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보면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음성을 듣고, 찾아와 즉시 괴로움을 없애 주고 모두를 해탈케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고 했습니다. 또한 관음경에 이르길, 중생이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외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들을시고 모두 해탈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SW상사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성불 천수화는 수행하는 보살님을 위해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명작입니다. 가죽이 아닌 신소재 피혁으로 제작되었기에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성불 천수화 입니다.

천수화는 신는 순간부터 소원을 성취하고 우주만물의 복을 부르는 옴자를 앞축에, 깨우침을 상징하는 卍자를 자크에, 신발 안쪽 뒷면에 "성불합시다"의 문구를 넣어 만행 하기전에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신행화 입니다. 천수화는 만행하실때에 신는 순간부터 자신감과 영험을 느끼게 하는 케주얼 풍 최고급 신발입니다. 특히 타사 제품과는 달리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세련되게 디자인된 불자님들의 필수 만행화 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총판 및 불교용품 딜러 모집

(주)SW상사 080-331-1818, 051-334-2494, 314-5618

도선사 휘감은 '상서로운 푸른 방광'

음력 초하루인 9월 26일 새벽 5시경 서울 도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대웅전 안에서 1시간동안 푸른빛의 방광(放光)이 나왔다.

도선사 주지인 혜자 스님과 신도 150여명은 "대웅전에서 예불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아미타부처님의 가슴부위에서 푸른 빛의 알 수 없는 광채가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한뒤 1시간여 동안 아미타 부처님의 법의(法衣), 신중상의 비파, 사천왕(四天王)의 보검, 관세음 보살의 보관, 지장보살의 보주(寶珠)등에서 푸른빛이 뚜렷이 반짝거리며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는 박정희 전대통령 부부와 정주영 전 몽헌 현대회장 부자의 위패가 있는 호국을 위한 참회도량인 만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안위에 대한 염려가 표현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무성하다.

도선사 신도들은 일부 학자들이 '외부의 빛에 의해 반사된 현상일수도 있다'는 추측에 대해 법당안의 조명에 의한 것이라면 매일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편 도선사에는 지난해 이맘때에도 석불전에서 방광이 나왔었다.

원만한 남북관계·한민족 안녕기원
10일~1월17일 국태민안 100일 기도

도선사는 10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100일기도에 들어간다.

도선사 100일기도는 특히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남북통일과 한민족의 안녕을 기원할 예정이다.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 참가차 6일 방북한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6.25 전쟁당시 사라진 북한 정방산 성불사에 전달할 풍경을 주문 제작중"이라며 "10월말 성불사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사가 주문 제작한 풍경에는 '남북평화통일' '정주영 정몽헌 회장 극락왕생'등의 문구가 새겨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도선사는 풍경과 함께 북한동포들에게 전달할 설탕, 콩기름 등 생필품을 모으고 있다. 문의 02) 993-3161~3

9월26일(음력 초하루) 새벽5시부터 1시간
신도들 "처음 있는일" 부처님공덕 찬탄

도선사 촬영한 15분 분량의 비디오에는 방광이 나타나자 신도들은 감탄을 자아냈다.

매일 도선사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있는 신도들도 이러한 현상을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있다.

도선사는 이날 탁발승 동상 제막식을 앞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부처님의 이채로운 기적이라고 믿고 있다. 신도들은 포대화상 제막식을 앞두고 일어난 상서로운 일로 부처님과 보살, 모든 신장들이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에 미륵부처님의 후신인 포대화상 조성을 축하하기 위해 광명의 빛을 수놓은 것이 아니겠냐고 불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장보살 보주에 반짝이는 푸른빛.



◇9월26일 새벽 5시경 도선사 대웅전내 아미타 부처님의 가슴부위에서 갑자기 방광이 시작되면서 1시간동안 법당 곳곳에서 이어졌다.

아미타불 법의·관세음보살 보관·지장보살 보주에 신비의 빛



◇방광의 모습이 뚜렷한 아미타 부처님 가슴부위 확대모습.



◇신중상의 비파에도 푸른빛이 역력하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 됐으면"

'방광' 장면 비디오 촬영 혜자 주지스님



"푸른빛은 생동감을 줍니다. 도선사 방광이 앞으로 국가에 상서롭고 즐거운 일을 암시하는 빛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광의 이적 장면을 직접 비디오로 촬영한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은 "처음 보는 빛이었기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신기한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이적을 보이신 부처님 광명의 빛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가 풀리고 태풍 매미로 인해 실의에 빠진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미륵보살의 후신인 포대화상의 위신력도 강조했다. 스님은 9월 26일 포대화상 제막식 행사용으로 8m 비디오 카메라를 준비하였고 새벽예불 도중 방광 모습을 보고 카메라로 직접 촬영,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많은 불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상서로운 빛으로 광명을 놓으신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절 집안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이나 불자들의 서원이 간절할 때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이적을 보이신다"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온몸에서 방광을 하시거나 미간 백호로 무량한 광명을 놓아서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었으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 놓은 곳에서는 종종 방광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산문밖의 禪

사진작가 안 / 장 / 헌

불교문화재들이 있기에 산을 오른다

"산에서 알맞은 광선을 기다리다 보면 종종 하루 종일 아무말 없이 불상 앞에서 보내야 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불상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물아일체의 삼매경에 빠지지요. 또한 불상의 면모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노라면 불상을 조성한 선인들의 마음자리를 느끼는 듯 합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던 영국의 등산가 조지 힐러리 경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진작가 안장헌(55)씨는 다른 이유로 전국의 산을 찾는다. 그는 불상과 석탑 등 불교문화재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른다.

◇불상을 촬영할 때는 정갈한 몸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맑고 밝은 미소를 만날 수 있는 사진작가 안장헌 씨.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찍어요

초등학교 때 카메라와 첫 만남
군시절 돌부처와 인연 평생 작업
경전 탐독은 정진의 힘 길러줘
석굴암 촬영 가장 기억에 남아
정갈한 몸 · 마음은 촬영의 기본

"초등학교 5학년때 처음 카메라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평생동안 사진작업에 몰두하며 살 줄은 몰랐습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ROTC 장교였던 군시절 동계훈련을 나갔을 때 황량한 절터의 돌무덤에서 버려진 조그만 돌부처와의 만남이 내 삶의 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 무엇엔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버려진 불교전통문화를 찾아내 카메라에 담아 복원하는 일에 일조하리라고."

1973년 7월, 안 씨는 드디어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카메라를 둘러멨다. 군 제대 후 안씨가 첫 걸음을 한 곳이 바로 경주 남산이다. 포석정을 출발점으로 선방곡의 배리삼존석불과 삼릉곡의 마애관음입상, 선각육존불, 못난이 부처로 불리는 선각여래좌상, 얼굴이 손상된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칠불암, 신선암마애불, 용장곡 3층석탑, 삼륜대좌불, 마애여래좌상 등을 찾아보면서 안 씨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고 불교의 근본 사상과 교리에 무지해 산중에 산재해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찾아내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안씨는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불교경전을 쉽게 풀어쓴 주석서와 번역서를 구해 탐독했다. 현재까지 30여년간 불교문화유산을 둘러보며 사진작업을 해올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찍을 수 있는 것이 사진입니다. 제대로 찍기 위해서는 먼저 촬영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롭게 해석해 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반복해 셔터를 눌러대기도 하고 원하는 장면을 위해 한없이 기다리기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고행의 연속이지요."

안 씨가 석불을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게 작업한 곳은 석굴암이다. 굴안의 공간이 협소해 촬영장비와 조명기구의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곳은 우리나라 불교미술사에서 가장 우수한 걸작품으로 꼽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구와 장비들이 넘어질 것에 대비해 장비를 고무로 감싸고, 5~6명의 보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조명을 받는 순간 살포시 발걸음을 옮길 것 같은 벽면의 보살상들과 인도에서 방금 도착해 고유의 신발들을 신고 걸어 나오는 듯한 아라한의 모습, 감실안 불보살들의 다양한 자태는 야간작업의 피로가 일시에 날아갈 정도로 외경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법당안에 있는 불상들은 촬영하기에 행복한(?) 대상이었다. 산중이나 인적없는 절터의 석불과 마애불을 찾을 때는 수없이 길을 헤매기도 했다. 또 불상의 위치와 주변 환경, 광선 조건 등을 파악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어야 했다. 대부분의 석불과 마애불은 전각이 없어져 비바람을 맞으며 자연광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투어 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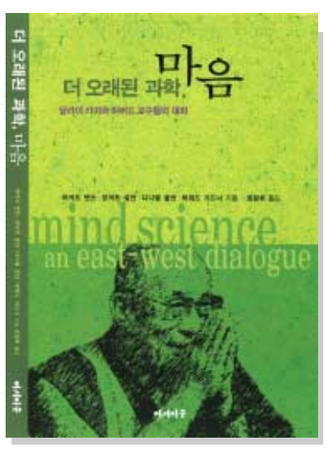
무거운 촬영 장비를 지고 서너시간이나 올라간 산중에서 알맞은 광선을 기다리다 먹구름이 몰려와 셔터 한 번 제대로 눌러 보지 못하고 하산한일도 한두번이 아니다. 때로는 주지스님이 출타중인 법당에서 촬영을 하다 들켜서, 성스러운 성보문화재에 카메라 플래쉬를 터뜨린다고 쫓겨 나기도 했다. 힘든 만큼 보람도 컸다. 여수 흥국사의 감로탱화와 예천 용문사의 만다라 탱화, 송광사의 16국사 진영 등이 분실됐을 때, 안씨의 사진은 원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성보문화재였다.

이런 고행의 과정을 겪으며 얻은 결실이 안씨의 재산 목록 1호인 30여만장에 달하는 슬라이드 필름이다. 이것들은 <석불>을 비롯해 <석등>, <석굴암>, <선의 세계>, <영겁의 미소>, <경주남산>, <석가탑과 다보탑> 등 10여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올해안으로 <범종>과 <문화유산일기> 등을 펴낼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전탑', '부도', '석등', '불교금속공예' 등 한국문화유산시리즈의 일환인 사진집 발간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글=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최근호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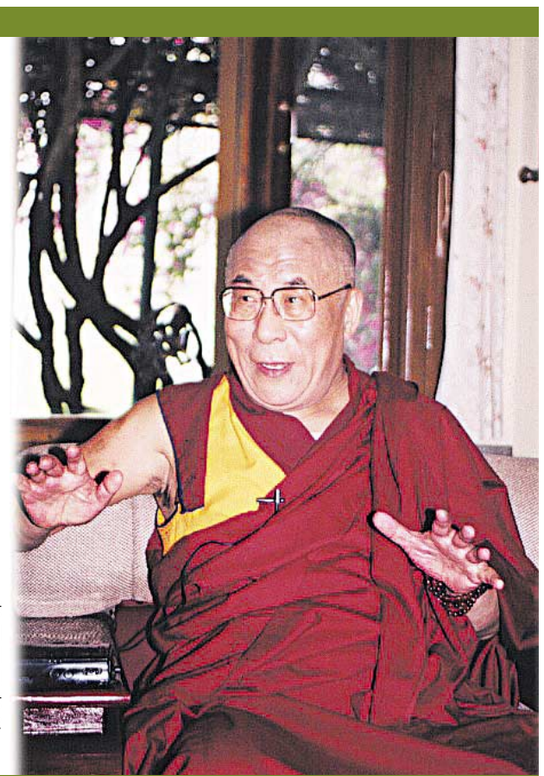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더 오래된 과학, 마음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등이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된다는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등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법보시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mind science

릴레이 수행일기 〈下〉



김함대

대흥도장(塗裝) 대표

하루 1~2회의 눈씻기 수련을 통해 호흡이 안정되고 깊어지며 여러가지 심리적인 장애까지 극복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눈 씻기는 숨을 길게 내쉰 후 물 속에 얼굴을 담구어 눈을 상하좌우로 3번씩 운동하는 호흡과 관련된 주요한 수련이다.

그 예로,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던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앨 수 있었다. 나는 어릴 적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수로 익사 직전까지 갔던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 물에 대한 공포스런 기억이 남아 물가에는 가지도 못했다. 그것은 내게는 넘지 못할 거대한 산과도 같은 장벽이었다. 하지만 이젠 수련을 통하여 물과 아주 친숙해져 있고 물 속에서의 공포감도 사라져, 오히려 지난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물이 편하고 즐겁게만 느껴진다.

더구나 눈씻기 수련 후 이어지는 좌선 시간은 보다 깊은 체험을 안겨주었다.

순간순간 변하는 실상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 무념무상(無念無想)이 되어가는 심신수련인 실상관법(實相觀法)을 통해 고통의 원인인 업습(業習)을 정화해 나감으로써, 내 앞에 닥친 어떠한 생의 장애라 할지라도 집착하지 않고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배짱과 해방감을 갖게 되었다.

마음속에 가득했던 집착, 의심, 두려움 등은 서서히 비워졌으며 빈 마음에 실상을 그대로 보려는 순수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나의 몸과 마음에는 안정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지나간 혹독했던 고통의 세월이 결국 현재 이러한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있어야만 했던 필연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선원 입문 후 3년이 된 지금은 해발 1800미터의 고산을 등반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왼쪽 발도 좋아졌다. 운명도 저절로 개선되어 산더미 같았던 부채에서도 벗어나 심신이 자유로운 가운데, 이제는 참으로 삶의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 자신감과 용기도 생겨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직면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생겼고 내가 가진 직업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날의 모든 고통은 지금 누리는 진정한 자유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시발점이 바로 우곡선원과의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린다.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이신 분이나, 그외 열심히 정진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참선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드리고 희망을 심어드리고 싶다.

부처님은 '실상(實相)을 관(觀)하라' 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와 인생과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내 삶의 실천장이기에, 오매일여(寤寐一如)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늘 깨어 있는 삶만이 최선의 진실일 것이다. 모든 분들이 진리의 삶에 귀의하여 참된 깨달음과 무한한 자유의 세계에 거듭나길 서원한다.

실상관법 통해 장애없는 삶 갖게 돼
모든 고통 지금 누리는 자유의 밑거름

절 잘하면 모든 수행 '저절로~'

백련암·도선사 등 사찰 '브랜드'로 부상
하심하고 업장소멸, 건강에도 효과
신행단체 중심으로 확산 정착단계



◇성철스님문도회는 매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열반을 추모하며 8만4천배 참회법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정진 모습.

"불교의 자비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니 남을 위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참회 기도를 하라."

이처럼 늘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말로 '절하기'를 권했던 성철 스님은 왜 당신을 친견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3천배 할 것을 당부했을까. 또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드신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왜 백련암에는 매년 불자들이 모여 7일동안 끊임없이 절을 올리고 있을까.

올해도 이런 의문에 답이라도 하려는 듯, 해인사 백련암(055-932-7300)에서는 7일7야 8만4천배 참회법회가 마련된다. 성철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참회법회는 10월 8일 오전 7시 입재해 15일 회향된다. 14일 오후 1~9시 성철대종사 사리탑에서는 3천배 참회기도를, 15일 오전 10시30분 해인사 대적광전에서는 추모재도 봉행한다. 매 두시간 단위로 1000배가 이어져 8만4천배가 이뤄지는 이 법회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동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성철선사상연구원장 원택 스님은 "이번 성철 큰스님 추모법회는 우리의 알량한 이기심과 덧없는 욕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남을 생각하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참회와 자비의 시간"이라며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일체 중생의 행복을 발원하는 대자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집과 자만심을 버리고 진정한 참회를 통해 하심(下心)을 익히는 '절 수행'. 건강증진은 물론 신구의(身口意) 3업을 정화해 업장을 소멸하는 절하기가 기초 수행법으로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각 사찰과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매일 108배는 물론 1080배, 3000배, 1만배를 하는 철야정진법회를 마련하는 등 절수행이 폭넓게 확산돼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절하기 법회가 사찰의 '참회도량' 등 이미지로 직결되는 이른바 브랜드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게 사찰측 설명이다.

매년 3천배 이상의 철야정진법회를 여는 백련암과 서울 봉은사, 부산 감로사를 비롯해 서울 도선사와 화계사 등 여러 사찰에서는 매달 '3천 배 철야정진 법회'를 열며 신도들의 신심을 북돋우고 있다. 또 1만배에서부터 10만배, 100만배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원력을 세워 수행하는 불자들도 늘고 있다.

도선사(02-993-3161)는 석불전 앞에 절 기도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며, 매월 말일 철야정진 기도 시간도 둔다. 특히 입시철이나 성도절 등 불교 명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불자들이 참석한다. 화계사(02-902-2663)는 7년전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철야 3천배 정진을 한다. 양평 본원과 서울포교당에서 재가자를 대상으로 절수행을 가르치는 법왕정사(031-771-7745)는 매 주말 3333배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통도사 부산포교원(051-816-2241)도 수년전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080배 철야정진 법회를 열고 있다.

부산 감로사와 서울 봉은사, 제주 남국사는 해마다 수천명이 동참하는 '3천 배 철야 정진법회'를 연다. 감로사(051-809-0926)는 44년 전부터 매년 음력 2월 4박5일 동안 '3천 배 참회기도법회'를, 봉은사(02-511-6070)는 84년 영암 스님이 주지 재임시 미륵불조성을 발원하며 시작한 이후 매년 수시로 3천배 철야정진을 한다.

이밖에도 서울의 능인선원, 법련사, 선학원과 대구의 법왕사, 영남불교대학, 부산 해운정사 등에서도 절 수행을 권장하고 있고 유명 기도처에서는 참배객들을 위해 상설적으로 철야 절수행 공간을 제공하는 사찰도 적지 않다. 불교교양대학이나 직장직능 법회에서도 원력을 세워 서로 격려하며 단체 정진법회를 갖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마산 금강정토사(055-247-7382)의 경우 직장인들이 10여년간 매주말을 이용해 3천배 기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낸 청견스님(법왕정사 주지)은 "호흡에 맞춰 신구의 3업을 정화해 가는 절수행은 업장소멸과 참회, 발원의 성취는 물론 염불, 독경, 간경 수행을 위한 기초수행이 된다"며 "절수행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아 많은 사찰과 단체들이 채택하는 수행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화계사 현각스님 국내외 순회 법회



베스트셀러 <만행>의 저자인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사진) 스님이 국내외 순회 설법에 나선다.

9월 29일 고려대에서 '참다운 종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법문한 현각 스님은 10월 11일, 싱가포르 로얄파크 호텔 법회를 시작으로 해외 순회법회를 시작한다.

해외 법회는 △10월 12일, 싱가포르 로얄파크 호텔 △13일 싱가포르 한국사찰(교민을 위한 법문) △14, 15일 싱가포르 관음선원 △17, 18일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 중국 사찰 △19, 20, 21일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한국 교민을 위한 법문) 등의 일정이 잡혀있다.

이어 현각 스님은 귀국 후 △26일 화계사 국제선원(영어 법문) △29일 오후 4시30분 덕성여대 학생회관 대강당 △30일 오후 2시50분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 교육 연구소(불교에서 바라본 돌봄의 영성) 등에서 법문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인공지능연구자 김사철박사 설법



세계적인 인공지능연구자인 재미 과학자 김사철(사진) 박사가 국내 설법(담마토크)에 나선다.

경북 문경의 사티파타나 수행처인 '담마로카(dhammaloka)' 제 1명상홀 완성을 기념해 10월 3일 내한하는 김 박사는 담마로카와 서울 연방죽선원을 오가며 '무엇이 법인가(What is Dhamma)'를 주제로 설법한다. 산스크리트 원전을 바탕으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팔팔 살아있는 강의를 들려주는 김 박사의 연방죽선원 설법 일정은 10월 4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5~7시다. 담마로카 설법 및 수행지도 일정은 10월 6~10일, 10월 20~24일이다. (02)334-1763

비구니마하회 제7차 수련회

중진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비구니마하회(회장 혜진스님)는 10월 6~9일 경주 기림사에서 '원시불교와 무아설'을 주제로 제 7차 수련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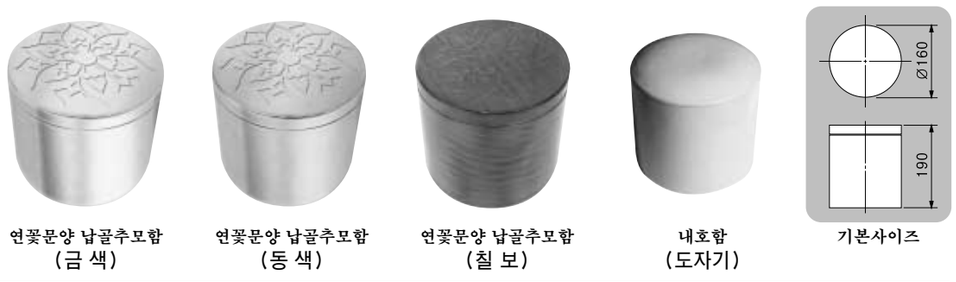
호진 스님(전 동국대 교수)의 주제 강의와 기림사 주지 종광스님의 <임제록>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는 출가자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마하회 회장 혜진 스님은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회원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10여년째 수련회를 열고 있다"면서 "기존의 장학사업 등 비구니계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053)325-1230

미얀마 천축사 추가방부 접수

미얀마 천축사(주지 붓다피야)는 항공료와 의식주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조계종 수좌 4명의 추가 방부를 접수한다. 천축사는 재가자(경비는 자가부담)도 6명 방부를 받는다. (053)744-9009

신소재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별도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을 평안하며 안전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추모함 선택은 올바르게!

● 납골당이 공원화 되어가고있는 과정에서 문제가발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처럼 가족과 참배하러 왔는데 심한 악취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고 마지못해 참배를 올리던 일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악취나는 유골을 그냥 방치해 두는것이 참된 효(孝)일까요? 이미 악취가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취와 벌레까지 생깁니다.
2.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가볍고 강하며 외관또한 미려한 이화사의 납골추모함이 있습니다.
이화사의 납골추모함은 납골당이 붕괴되더라도 강한 견고성으로 고인의 유골이 유실됨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의 문양은 원하시는 문양 또는 글씨를 삽입 할 수 있으며, 문양 삽입후 코팅 처리되어 오래도록 봉안 할 수 있도록 정성들여 제작됩니다.

이화사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장심사 중창 불사기금 모금을 위한
수화스님의 분청사기 달마도 복 항아리

선원에서 다년간 참선과 선묵을 정진해오시던 수화스님께서 경기 광주 장심사 불사를 위하여 "분청사기 달마도 복 항아리"를 한정 제작하여 장심사 불사가 회향 될때까지 많은 불자들의 동참과 포교차원의 가격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를 가진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禪

도예가 토광 장동국 선생이 빚고 수화 스님이 혼을 담아 직접 달마도를 그려 넣어 만든 "분청사기 달마도 복 항아리"는 소장가치로서도 최고의 작품입니다. 특히 복 항아리 달마도는 전사지를 이용하지 않고 수화스님이 직접 그림으로써 각 달마도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어 세계유일의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 크기 : 55cm × 35cm(쌀 20kg)

수화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분청사기 달마도 복 항아리"를 소장하시고 장심사 건립불사동참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불사추진위원회 합장

◆ 최고의 작품인 만큼 주문 후 제작 시일이 걸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100여점 한정판매)
◆ 주문 제작시 생년월일에 따라 행운을 상징하는 표시를 해드리고 원하시는 이름도 넣어 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장심사에 직접 방문하시어도 됩니다.

연락처 031-763-8785, 011-685-8760

권 천불지장기도도량 장 심 사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장심리 30-7

바라밀현장 무하문화사랑방 봉사단 광명보육원 문화봉사

쿵더쿵~

아이들 마음 밝아져요



◇경기 양주 광명보육원 문화공간 무하문화사랑방에서 사물놀이 수업이 한창이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아~! 어둠 속의 불빛들이 우리들을 비춰주네에~!"

9월 27일 경기 양주 광명보육원 무하문화사랑방에 모여 앉은 10명의 아이들. 꽹과리, 북, 징, 장구를 두드려 한바탕 소리몰이를 끝내는가 싶더니, 찰나의 정적을 뚫고 한 소리 굵은 음을 힘차게 부어 올린다. 소리가 내가 되고 내가 소리가 되는 지금 이 순간, 그들을 구속하고 규정짓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가난과 버림의 무게를 지고 보육원에 몸담게 된 아이들은 '나'를 드러낼 줄 모릅니다. 사물놀이로 어우러지면서 나를 얘기하는 법,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보육원을 찾아 사물놀이를 지도하는 무하문화사랑방 봉사단(단장 이근후).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근후 박사가 95년 '무하문화사랑방'이라는 문화공간을 지어 광명보육원에 기증한 이래 9년째 이어온 '문화 봉사단'이다. 세월을 거치는 동안 소고를 쥘 줄도 모르던 아이가 소고춤을 추고, 장구를 들지도 못하던 아이가 장구 장단에 어깨를 들썩이게 됐다.

악기연주 통해 표현하는법 가르쳐
창의력 위한 글짓기, 독서등 지도

"장구 선생님, 징이 너무 어려워요. 전 그냥 장구 칠래요."

"지선이가 징을 제일 잘 치잖아. 지선이 실력 아니면 우리 팀이 이만큼이라도 하겠니."

사물놀이를 이끄는 장구선생님 장현숙(55)씨는 아이들의 숨은 엄마로 통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함께 모여 사는 이곳에 '평화로운 질서'를 심어준 사람이다. 초급반에서는 소고 춤사위를 가르치며 공동체 식구간의 호흡을 강조하고, 고급반에서는 악기연주를 통해 관계 속에서 나를 자신있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친다. 사물놀이 한 판 속에 불교적 상생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꽃피운다.

이들의 '문화 봉사'는 사물놀이에만 머물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문화 인물들을 초청해 아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주선해 주기도 하고, '무하문화사랑방'을 예술인들의 전시공간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또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 글짓기와 독서 등을 끊임없이 장려해 와, 최근 경기도 내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창작 대회에서 여러 명의 입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문화봉사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이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보육원 아이들 얼굴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살아있는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됐지요."

광명보육원 보육교사 이현애(28)씨 말대로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그늘을 볼 수 없다. 그 맑은 얼굴이 마음으로 전해진 것일까, 몸과 마음에 병이 있는 신입 원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다. 온몸에 부스럼이 오른 아이를 새로 온 친구라며 소개하더니, 볼에 쪽하니 입맞춤까지 전하는 아이들이다.

"매달 엄마봉사단이 아이들과 함께 목욕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맨살로 부대끼며 키우는 사랑만큼 더한 게 없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지요."

목욕봉사로 엄마의 온정까지 전해주려고 하는 무하문화사랑방 봉사단의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물놀이에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김덕수 사물교육원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육원 내 공간들을 자연학습장과 채전밭, 공연공간 등으로 새롭게 단장하고자 자금과 인력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전방위 문화봉사단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무하문화사랑방 봉사단. 설레는 미래가 있어 기다려지는 봉사단의 내일을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광명보육원=(031) 855-5161

양주=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탁상공론 NO, 현장에서 뛴다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모니터 봉사단'



◇낙농종합사회복지관의 '모니터 봉사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 복지사 양현명(26)씨는 복지관 사업의 아이디어 뱅크로 통한다. 그에게는 지역의 현안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시급한 복지사업을 끌어내는 양 씨. 그에게 비결을 물으니 뜻밖의 대답이 나온다.

"모니터 봉사단의 시간과 노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죠."

시설 방문 상황체크…봉사로 연결

복지사 양 씨를 중심으로 곽경숙 씨 등 지역의 부녀회장 10명으로 이뤄진 '모니터 봉사단'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의 든든한 후원자다. 물질적인 후원도 후원이지만, 그들의 '정보제공'은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선다. 이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만드는 복지는 탁상공론"이라며 틈날 때마다 지역을 누비며 현장의 복지수요와 민심 등을 파악해 왔다. 그리고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 모니터 결과를 토론하고 필요한 복지활동을 논의한다. 집수리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부터 재해복구 사업 현장 모니터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활동영역에는 특별한 경계가 없을 정도다.

봉사단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를 비롯, 현장을 다니며 크고 작은 노력봉사도 아끼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활동한다는 모니터 봉사단. 이들의 바람도 불법만큼이나 크고 깊다.

"이 세상이 불국토 되는 날까지 뛰고 싶어요." (051)271-0560

강신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예세 왕모 라마 (上)

금강승의 지혜 생활화

티베트의 모든 민중이 가장 가슴 가까이에 있다고 느끼는 성인 밀라레파(Milarepa, 1052~1135). 이 밀라레파의 환생으로 인정받으며 '금세기의 밀라레파'라고 불리우는 칼루 린포체(Kalu Rinpoche, 1905~1989)는 매우 고요한, 빛나는 눈을 가진 은자였다. 그런 칼루 린포체를 밀라레파의 환생이며 위대한 성인이라고 선언한 사람은 16대 카르마파(Karmapa)이다. 칼루 린포체가 히말라야 산속의 석굴로 들어가 홀로 12년 명상을 한 것도 밀라레파와 닮은 점이다. 칼루 린포체가 12년동안 계속한 독거명상에서 사용한 장소는 야생이나 다름이 없어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서 하루도 배겨나지 못할 곳이었다. 라둥푸 석굴은 입구가 하도 커서 매서운 바람이 쉴새 없이 불어닥쳤다. 어두운 석굴 안에는 기어다니는 곤충들도 많았다고 한다.

칼루 린포체는 책도 여러 권 썼는데, <부드러운 속삭임(Gently Whispered)>을 비롯한 7권의 저서가 서구권에 소개되어 있다. 스님을 중심으로 한 카규파의 사원을 다수 설립한 그는 뉴욕 주 와핑거즈훨즈(Wappingers Falls)에 설립한 카규 툽텐쵤링 사원(Kagyu Thubten Choling Monastery)이 미국 동부의 18개 센터를 관장하고 있다. 그밖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도 그가 설립한 불교센터가 있다.

칼루 린포체 문하에서 공부한 후 그의 번역위원회의 업무를 맡아보며 하와이의 금강승재단(Vajrayana Foundation)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바로 예세 왕모 라마(Lama Yeshe Wangmo)다.

1949년 캐나다 몬드리올에서 태어난 예세 왕모는 28세 때 캐나다에서 제16대 카르마파와 칼루 린포체를 친견하면서 불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로부터 7년간, 그는 티베트의 사원에서 행자 생활과 기초 교육을 받은 후 사미니계를 받았다. 이후 다시 3년간의 수행기간을 마친 에셰 왕모는 1986년, 족첸 마스터인 타르친 린포체로부터 닝마파의 수행을 지도받고 '데첸 예셰 왕모 라마'의 칭호를 받는다.

그는 교리와 실참을 겸비하고 삶 자체로부터 나오는 직관을 바탕으로 심오한 금강승의 지혜를 생활 속에서, 서구인에 맞게 변형시킨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친다. 최근 수년동안 왕모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반영되는 참된 본성을 식별해 내는 방법을 예셰 쵸갈(Yeshe Tsogal)의 삶을 모델로 삼아 제시하고 있다.



◇예셰 왕모 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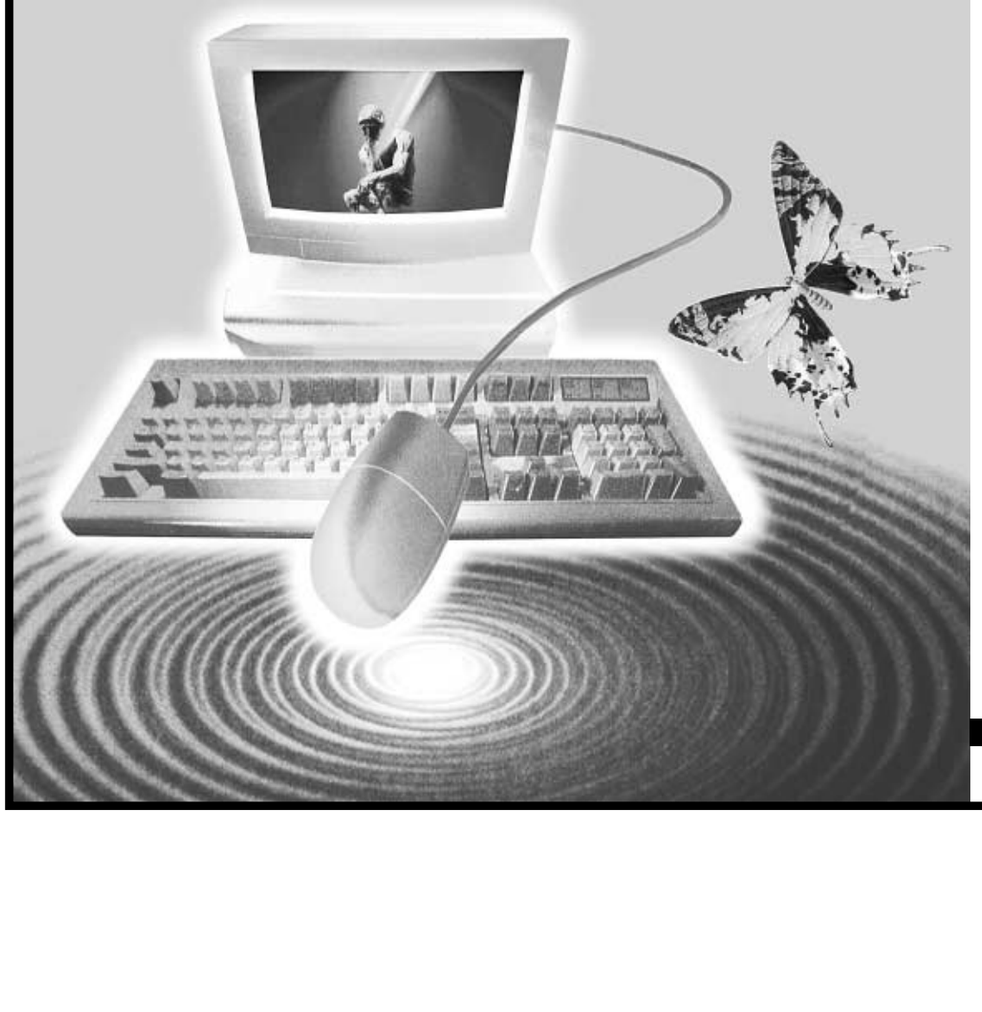
티베트 불교의 어머니인 예셰 쵸갈은 여신 사라스바티의 화신 또는 발현이라고 믿어지는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은 여스승이었다. 예셰는 '다함이 없는 원초의 지혜'를, 쵸갈은 '호수의 정복자, 대양과 같은 지혜를 가진 승리자'라는 뜻이다.

8세기경 <티베트 사자의 서>를 쓴 인도 출신의 고승 파드마 삼바바의 수행지도 아래 예셰 쵸갈은 엄청난 고행을 견뎌내며 금강(金剛)의 몸을 얻었다. 225세까지 살리라는 예언이 주어진 그에게는 '장수(長壽)하는 찬란한 푸른 빛의 대사(Radiant Blue Lgiht Master of Longevity)'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파드마 삼바바는 그녀의 성취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는 네가 원하던 것을 스스로 얻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라." (계속)

김재경 기자

칼루 린포체에 공부 금강승재단 지도자
예셰 쵸갈 모델로 참된본성 식별법 제시

제1회 전국 중학생 컴퓨터그래픽 정보검색 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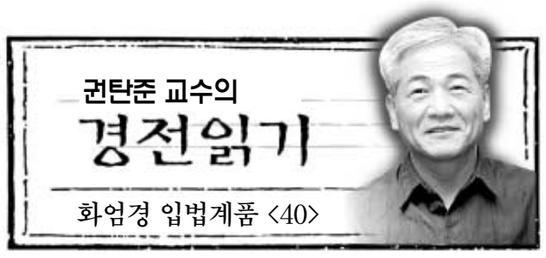


▶ 참가자격 : 전국 중학교 재학생
▶ 대회부분 : 가) 컴퓨터 그래픽 부문 - 캐릭터 디자인 - 포스터 디자인 - 심벌마크 디자인 - 브로슈어 디자인
나) 정보검색부문 - 이론 40% - 실기 60%
▶ 대회일시 : 2003년 10월 14일(화) 오후 1시 ▶ 대회장소 :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 대회접수 : 가)접수기간 - 2003년 10월 1일 ~ 10일(마감 시간 오후 5시)
나)접수방법 -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접수(행정실)
본교 홈페이지에서 대회참가신청서 1부를 다운 받아 작성하고, 현재 재학중인 중학교의 학교장 추천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함(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시에 한함)
다)본교 홈페이지 - http://cheongdam.hs.kr
학교 주소 - (우)451-80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96-1
학교 전화 - 교무실 031)691-9100 행정실 031)691-8095
특성화부 031)691-5478 / FAX 031)691-8096
▶ 후 원 : 평택시 · 평택교육청 · 평택상공회의소 · 평택문화원 · 기남방송 · 현대불교신문
▶ 주 최 :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 주 관 : 도선사 · 청담문화재단
▶ 시상내역

구분	시상인원	상 금	기타특전	구분	시상인원	상 금	기타특전
대상	부문별 각 1명	부문별 700,000원	본교 입학자격 및 3개년 장학금	동상	부문별 각 3명	부문별 200,000원	본교 입학자격 및 1학기분 장학금
금상	부문별 각 1명	부문별 500,000원	본교 입학자격 및 3개년 장학금	특별상	부문별 각 5명	상 품	본교 입학자격 부여
은상	부문별 각 2명	부문별 300,000원	본교 입학자격 및 1개년 장학금	입선	부문별 약간명	-	본교 입학자격 부여

▶ 심사위원 : 정보 및 디자인 분야의 권위있는 관계 대학교수와 본교의 컴퓨터관련 교사 및 디자인 교사로 구성
▶ 심사발표 : 2003년 10월 18일(토) (예정) ▶ 시상일시 : 2003년 10월 21일(화) (예정)

꿈이 있는 학교 열정이 있는 학교
21세기 디지털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인적자원 지정 자율학교 · 특성화 고등학교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육향 장자의 법문

"나는 香 화합하는 법을 알뿐이다"

실체없는 선근과 자비로 중생교화

선재동자가 다음으로 찾아가는 선지식은 남쪽 광대국(廣大國)이라고 하는 나라의 향을 파는 장자(육향 장자)인데, 그 이름이 우발라화(優鉢羅華 : 靑蓮華)라고 한다. 선재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는 세속적인 욕망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직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불국토를 깨끗이 하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보살의 공덕바다를 닦아 모으며, 모든 겁마다 큰 서원으로 보살행을 닦기를 원하는 등 이와 같은 모든 불보살의 공덕을 일심으로 구하게 되었다. 육향 장자를 찾아가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아서 일체지(一切智)의 지혜를 내는 법을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향을 잘 분별하여 알며, 모든 향을 조화하여 만드는 법을 안다. 이른바 모든 향, 모든 사르는 향, 모든 바르는 향, 모든 가루향이며 이런 향이 나는 곳도 안다.

또한 병을 다스리는 향, 나쁜 짓을 끊는 향, 환희한 마음을 내는 향, 번뇌를 늘게 하는 향, 번뇌를 없애는 향, 함이 있는 법(有爲法)에 애착을 내게 하는 향, 함이 있는 법에 싫은 생각을 내게 하는 향, 모든 교만과 방일을 버리는 향, 마음을 내어 염불하는 향, 법문을 이해하는 향, 성인이 받아 쓰는 향, 모든 보살의 차별한 향, 모든 보살의 지위의 향들을 잘 분별하여 안다. 이런 향의 형상과 생기는 일과 나타나고 성취함과 청정하고 편안함과 방편과 경계와 위덕과 작용과 근본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통달하고 있다.

선남자여, 인간세상에 향이 있는데 이름은 상장(象藏)이다. 그 향기를 맡은 중생은 몸과 마음이 쾌락해지며, 병환이 침노하지 못하고 모든 근심이 없어져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뜻이 청정하여 진다. 나는 그것을 알고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게 한다.

마라야산에서는 전단향이 나는데 이름은 우두(牛頭)이다. 몸에 바르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바닷속에 향이 있으니 이름이 무능승(無能勝)이다. 만약 북이나 소라에 바르면 소리가 날 적에 모든 적군들이 물러간다. 아나바달다못가에서는 침수향이 나는데 이름은 연화장(蓮華藏)이다. 그 향의 한 개를 삼씨만치를 태워도 향기가 염부제에 풍기며, 중생들이 맡으면 모든 죄를 여의고 계행이 청정하여진다. 설산에 향이 있으니 이름은 아로나니라 한다. 중생이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결정되어 물드는 집착을 여의며, 내가 법을 말하면 때 여읜 삼매(離垢三昧)를 얻지 못하는 이가 없다. 선법천(善法天)에 향이 있으니 이름은 정장엄(淨莊嚴)이다. 한 개만 피워서 풍겨도 여러 하늘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생각하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향을 화합하는 법을 알 뿐이다."

육향 장자의 법문은 향 만드는 법에 관한 것이다. 육향 장자는 향에 관한 전문가이다. 그는 세간의 여러 가지 향 외에도 병을 다스리는 향, 나쁜 짓을 끊는 향, 모든 교만과 방일을 버리는 향, 마음을 내어 염불하는 향 등을 알고, 그것을 조화(調和)하는 법, 형상, 생기는 법 등을 알아서 청정하고 평안한 방편의 경계를 성취한다고 한다.

선재동자가 변행 외도의 가르침에 따라 육향 장자를 찾아가는 도중에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불국토를 깨끗이 하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하는 등 열한 가지 원을 일으키는 것은 보살행이 열 가지 바라밀행에서 회향(回向)으로 전환해 나아가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회향의 성격이 원심(願心)으로서 대원(大願)의 으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향이 향으로 상징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면서도 여러 가지 좋은 기분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온갖 선을 일으키게 하고 악을 없애는 기능을 한다. 대원(大願)의 회향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으면서도 한량없는 선근을 일으켜서 한량없는 지혜의 구름을 일으키고 희고 깨끗한 법우(法雨)를 내리며, 한량없는 자비행을 행해서 중생을 교화하여 괴로움을 없애게 하고 보리심을 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원의 회향의 향은 지혜와 자비를 융화해서 무애자재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설하고 있는 육향 장자의 이름은 우발라화(청련화)이다. 그것은 보살이 대원의 회향력을 지님으로해서 생사의 진흙 속에서도 부처님의 경계를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명칭이 광대(廣大)인 것 또한 회향의 원행(願行)이 광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⑬

견성성불(見性成佛)-1

지금까지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는 선종의 교의에 담긴 뜻을 나름대로 짚어보았다. 선종에서는 세상의 근본문제를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로 수렴시켜 진단하였다.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사의 문제이고, 생사의 근원은 무명번뇌라는 것이 십이연기설로 대변되는 불교 일반의 진단이다. 선종에서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더 꼭 집어서 말한다. 무명번뇌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이며, 무명번뇌 그 자체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무명번뇌를 없애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고 그것이 없는 경지 또한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펼쳐진다. 모든 것을 개체와 개별 현상으로 분별하고 분절적인 틀로만 보면 생사가 엄연히 있다. 그러나 삼라만상을 다 싸잡아 보듬는 전체의 장에서 보면 개체의 생사, 개별 현상의 생멸은 다 그 속에 녹아버리고 모두가 연기(緣起)일 뿐이다.

그처럼 생사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비밀과 열쇠가 사람 마음에 들어있으니 바로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 '직지인심'이라는 선종의 교의이다. 거기에 함께 붙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말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견성은 견자본성(見自本性),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본다는 말을 줄인 것이라고 풀이된다. 여기서 '자신'이란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중생을 가리킨다.

모든 중생의 본래 성품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보면 부처가 된다고 할까? 전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생의 본래 성품은 불성(佛性)이라는 것이 대승불교 사상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이다. 중생의 본래 성품은 부처의 성품이라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얘기가 된다. 어찌하여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건가? 중생과 부처가 다른 근본적인 연유는 무명번뇌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엄연히 개별적인 실체라 여기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실상은 공(空)이듯이, 무명번뇌도 마찬가지로 공이다. 즉 중생과 부처를 가르는 근본적인 연유가 본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중생과 부처는 본래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로 귀착된다.

그런 뜻을 담은 개념이 이른바 본각(本覺)이다. 중생은 본래 깨쳐 있다, 즉 본래 부처라는 것이다. 헌데, 중생이 본래 부처라 해도 지금은 엄연히 중생일 뿐이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아무리 무명번뇌가 본래 공이요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해도, 중생이 부처가 아니라 중생으로 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한 현실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기는 그렇다.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의 글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듯이 그것이 숨어있고 가려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중생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중생인 줄로만 알고 중생으로서만 마음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불각(不覺), 즉 깨치지 못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부처인 그 정체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불각의 상태를 타개하는 사건이 필요하다. 그 사건을 일컬어 시각(始覺)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각에서 깨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이 본래 깨쳐 있었음을, 본래부터 부처였음을 깨칠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처가 아니었다가 깨침으로써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릴 뿐이다. 견성성불,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면 부처가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꾸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차림으로써 그야말로 부처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다.

이 본각, 불각, 시각 이야기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나오는데, 그럴 듯하면서도 들여다볼수록 아리송하다. 어떤 대목이 아리송한지는 다음 회의 글에서 이야기를 잇기로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본래부터 부처였음을 알아차리라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6〉



화병과 현대의학

최근 한국의 화병이 정식 정신질환으로 인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 시달리고 있는 우울증의 특효약으로 프로잭(Prozac)이란 약물이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던 기억도 있다. 뇌생리학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생체 물질이 밝혀지면서 이미 정신신경과에서도 많은 정신 질환에 약물치료가 일반화 되었다. 서양 과학의 환원론적 관점이 팽배한 현대는 약물로 감정이나 마음을 얼마든지

태어나서 의식을 지니게 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육신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자신의 의식이 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체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건 하지 못하건 개인(個人)이라는 자신의 존재의 한계와 모순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존재하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수반하는 외로움 또는 슬픔으로 감지된다.

생물체의 행동이나 문화활동마저 유전자의 소산으로 보는 사회생물학자(Sociobiologist)들은 찬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능이 높은 영장류들일수록 집단사회를 이루는 것은 생존의 편리함 외에도 나라고 하는 자의식의 발달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개인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집단에 속함으로써 잠시 위로를 받는다. 이성의 사랑을 통해서도 두려움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고 돈, 명예, 권력이라는 대상을 통해 해소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 과학에의 열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소위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나 대상에 대한 이러한 상황이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막연하나마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상기하게 된다. 그래서 비탄에 빠지거나 분노하게 되고, 자신의 근원적 외로움을 들여다 보아 풀어 가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난될 만한 대상을 찾아 밖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듯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닌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한 분노는 매우 지속적이고 깊어서 주위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도 한다.

분노 깊어지면 자신 파괴하기도

항상 되돌아보고 깨어있어야 해결

그렇기에 우리가 왜 단절되고 소외되었다고 착각하게 되어 이토록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 없이 현대 정신의학이 단순히 증상이 조금 심각한 사람만을 비정상이라 규정한 후, 그러한 질병을 단순한 약물치료로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유물적 발상만으로 접근하는 한 한국인의 화병, 더 나아가 인류의 마음의 고통에 대한 단순한 대증요법이 될 뿐이다.

우리 불자는 항상 깨어 있어 단절과 소외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상(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속는 줄 알면서 속아주는 마음으로 일상의 희노애락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2003년 가을 - 겨울, 중국 / 제주도 편)
고품격 성지순례! 실속 있는 가격!
삼보에 귀의하옵고
판매가외 일체의 추가경비가 없습니다!
(비자요금 No! 팁 No! 옵션 No)
기존의 여행과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10/26-제주/마라도 3일 21만원
◇11/ 2-상해/항주/보타산/낙가산 69만원
중국 제1불교왕국관세음보살도량 75만원
- 상해 / 항주 / 보타산 / 낙가산 5일
신라김교각 스님의 지장왕도량 79 만원
- 남경 / 구화산 / 황산 / 항주 / 소주 5일
구름의 불산,보현보살 도량 - 79만원
- 아미산 / 낙산대불 / 대족석각 5일
문수보살도량 - 69 만원
- 북경 / 만리장성 / 오대산 / 운강석굴
제주 우도 / 마라도 / 제주 3일 - 27 만원
※ 자유여행을 원하시는 분을 위한 할인항공권 및 호텔수배 도 해드립니다.
(주)행복만선 대표전화 02)720-8490

스님과 함께하는 동양철학
선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석진성스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직시 분별의 장애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동양사상과
직관을 통한 일승법 즉 깨달음의
상승법을 통해 열어드립니다.
▶ 주 제 : 주역을 통한 사주 명리학과 한방역학
▶ 개 강 : 2003년 10월 18일 (토요일)
▶ 기 간 : 2003년 10월 18일 ~ 2004년 4월 17일 (6개월)
▶ 시 간 :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강당
※ 장소관계로 30명 선착순 모집
동양의학방송국
http://www.dytv.co.kr
☎(02)588-1055 직통)016-433-5605
서울시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4호선
사당역 11출구에서 3분거리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엄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지난 9월 30일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제일 왼쪽)이 관람객들에게 만해 스님의 시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1926년 5월 20일 회동서관이 발간한 <님의 침묵> 초판본.



◇1934년 한성도서주식회사 발행본.



◇판본마다 다른 시어를 정리하기 위해 민족사가 펴낸 정본판(1980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어봤을 만해 스님의 시 '님의 침묵'. 세월을 따라 표기법은 변했지만 감동은 그대로다.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유일한 시집인 <님의 침묵> 초판본을 비롯, 130여 종의 판본을 선보이는 '<님의 침묵> 판본 특별기획전'이 10월 29일까지 경기도 광주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에서 열린다. 1995년 본사와 책방 여시아문의 창간 · 개점 1주년 기념 '만해 스님 <님의 침묵> 판본전'에서 초간본을 비롯한 82종이 선보인 이래 <님의 침묵>의 판본이 대규모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어 표기법 · 책 디자인 · 제책 등

'님의 침묵' 변천 한눈에

'판본특별展' 29일까지 경기 광주 만해기념관서

"님은갓슴니다 아 사랑하는나의님은 갓슴니다
푸른산빗을깨치고 단풍나무숩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어떨치고 갓슴니다"

('님의 침묵' 1926년 회동서관 발행 초판본)

그동안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초판본은 맞춤법통일안(1934년)이 작성되기 전인 1926년 5월 20일 회동서관이 발간한 것으로, 만해 스님 특유의 조어와 방언이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어를 말의 장단과 고저에 따라 띄어쓰기한 점이 눈에 띈다. 전 관장이 소장하고 있는 초판본 첫 페이지에는 초기(1929년)에 이 책을 소장했던 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지도와 무궁화 꽃이 새겨져 있다. 당시, 일제에 의해 금서로 묶여 제대로 배포되지 못했던 이 시집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읽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광복 후 출판시장이 정비되면서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펴낸 <님의 침묵>(1950년 4월)에는 전시 판본 중 유일하게 만해 스님의 사진이 담겨 있다. 60~70년대에는 다양한 판본이 선보이게 되는데, 판본마다 다른 시어를 정리하기 위해 민족사에서 펴낸 정본판(1980년 12월)은 시의 원전 비평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후 문고본 발간이 활발했던 70년대와 시낭송 테이프와 시가 적힌 팬시용품들이 등장하는 80~9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대표적인 판본을 정리한 이번 전시에서는 국어표기법의 변천은 물론, 책 디자인의 흐름과 제책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님의 침묵>은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도 번역 · 발간됐다. 외국 판본으로는 미국 하와이대 판본(1974년)과 '님'을 단순하게 'Love' 또는 'Lover'로 번역했던 다른 외국어판과 달리 '님(Nim)'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님'에 대한 5쪽 분량의 주석을 단 프랑스판(Le Silence De Nim, 1996년)도 관심을 모은다.

이 밖에도 전시회에서는 만해 스님이 머물렀던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의 산실 오세암에 이르는 30리 풍광을 담은 '무강오세암도(无疆五歲庵圖)'(야송 이원자 화백)와 20편의 시와 그림을 엮은 시화(詩畵)도 볼 수 있다.

20여 년 동안 청계천의 헌책방과 인사동의 고서점을 뒤지며 판본을 수집해 온 전 관장은 "조지훈 시인은 '<님의 침묵> 한권 만으로도 만해 스님의 시는 현대시의 고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며 "80여년의 세월동안 시공을 초월해 끊이지 않고 읽히는 만해 스님의 시는 문학적인 향기와 사상적인 깊이를 두루 포괄하는 위대한 유산이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묘법연화경 사경 ①~④>(혜능 스님 엮음, 부다가야, 각권 5천5백원)= <묘법연화경>이 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스님에 의해 사경집으로 다시 태어났다. <묘법연화경 사경>은 각 품의 게송을 따로 모은 책이다. 혜능 스님은 "사경은 부처님의 법신사리인 경전을 옮겨 쓰면서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익혀 실천하는 수행 방법의 하나다"며 "특히 <묘법연화경>은 각 품마다 요약을 게송으로 거듭 설명해 장엄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최고의 경전이다"고 말한다.



■<의역동원 역경>(주춘재 글/그림, 김남일 · 강태의 옮김, 청홍, 1만2천원)= 만화로 읽는 중국전통문화총서 1권 <의역동원 역경>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서라는 <역경>을 만화 형식으로 쉽게 풀어쓴 책이다. 제목 '의역동원(醫易同源)'은 역경과 한의학의 양생학이 자연을 하나로 보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을 근원으로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솟대문학> 51호(한국장애인문인협회, 솟대문학, 6천원)= 통권 51호를 맞는 솟대문학 2003년 가을호가 나왔다. '인기작가론'에는 무협소설가 김환철 씨와 연예칼럼니스트 백현락 씨를 담았고, '명사대담' 코너에는 작가 이외수와 솟대문학 방귀희 대표의 대담을 실었다.

격변기 불교의 생존 화두는?



'고려후기 · 조선초 불교사 연구'

황인규 지음

혜인 / 3만원

고려왕조가 조선왕조로 교체되는 14세기는 기존의 권문세족을 대신해 무신세력과 신진사대부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고, 정신적 바탕을 이루었던 불교가 유교에 자리를 내주는 사상적 전환기다. 따라서 여말선초는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시대 불교사 연구는 태고보우, 백운경한, 나옹혜근과 공민왕대 집권세력이었던 신돈, 태조 이성계의 왕사 무학대사 등 고승 개인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고려후기 · 조선초 불교사 연구>는 그동안 고려말 조선초의 불교사 연구에 천착해 온 황인규(동국대 강사)씨가 당시 시대적 · 사상적 전환기에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했고, 이후 조선왕조의 불교탄압과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어떤 '화두'로 생존을 모색했는지를 다룬 글을 모은 책이다.

지은이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려후기, 조선초 불교사를 정치 및 사회적인 측면이 아닌 불교계의 주체적 전개라는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살부터 시작된 '특별한 삶'



'달라이 라마 자서전'

달라이 라마 지음 / 심재룡 옮김

정신세계사 / 1만5천원

1935년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라모 톤둡.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여신'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 따라 세살 무렵 달라이 라마의 화신으로 인정받아 '특별한 삶'에 들어서게 된다.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한 1950년 열다섯의 나이로 통치자의 전권을 위임받은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59년 결국 인도로 망명한다. 인도 다람살라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는 반세기에 가까운 망명생활을 하면서 티베트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달라이 라마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높아짐에 따라 그의 유일한 자서전이 재출간됐다. <달라이 라마 자서전>은 달라이 라마가 90년 직접 영어로 작성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91년 <유배된 자유>(정신세계사)란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 책은 이후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절판됐으며, 책을 옮긴 심재룡 교수(서울대)가 지난해 달라이 라마를 인터뷰한 내용을 부록으로 덧붙여 새롭게 선보였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산중일지	현칙 스님	지영사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3	영원한 대 자유인	강정진	궁리
4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매킨지	김영사
5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6	시공불교사전	곽철환	시공사
7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거사	불광
8	영원한 대 자유인을 읽고	청봉 스님	경서원
9	파드마 삼바바	백이제	민음사
10	사람	서옹 스님	고요아침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법정스님의
무소유
3판 60쇄 본 1만 부의 판매금 전액을 '범우출판장학금'으로 출연(出捐)합니다!
▶ 범우문고 1판 1,2,3쇄 본(정가 280원)을 보내 주시면 양장본(값 6,000원)과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4×6변형 양장본 | 값 6,000원

山寺에 심은 뜻은 / 이청담 지음
참회와 참선으로 가득찬 현묘한 법문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영혼의 소리!
인생은 태어나서 육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잠시의 나그네길이다. 육신의 길은 일회적(一回的)이다. 이러한 사상의 핵이 담긴 스님의 마음표현은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며 감명어린 정신의 경지를 마련해 준다.
문고판 | 값 2,000원

불조직지 심체요절 / 佛祖直指心體要節 / 백운선사 | 박문열 옮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선도(禪徒)들에게 선도(禪道)와 선관(禪觀)의 안목은 물론 선풍(禪風)을 전등(電燈)하여 법맥을 계승케 하기 위한 책! 이 책은 우리나라의 학승(學僧)들이 대교과(大敎科)를 마치고 수의과(隨意科)에서 공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학습서다.
신국판 | 값 9,000원

법화경 이야기 / 法華經 / 박혜경 지음
반야(般若)의 공(空)을 활성화 시킨 반야의 공[說法實相]
법화경이 천하 제일의 가르침으로 평가되는 까닭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설하며 밝힌 경전이기 때문이다. 법화삼부경 삼십이품의 연결에 주력하며 각품의 요점과 꼭 알아 두어야 할 대목들을 현대적 감각에 알맞도록 해설한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이다.
신국판 | 값 7,000원

백운화상 어록 / 白雲和尙 語錄 / 석찬선사 | 박문열 옮김
스승 백운화상을 향한 제자 석찬선사(釋璨禪師)의 애절한 절규!
암울한 고려 말기의 어둠을 밝히는 외로운 등불과도 같고 더위를 식혀 주는 신선한 바람과도 같은 독보적인 선풍(禪風) 중에서 후세의 선도(禪徒)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송(頌), 찬(讚), 명(銘), 서(書), 게(揭) 등을 집록한 청량서다.
신국판 | 값 10,000원

수타 니파타 / Sutta-nipata / 김운학 옮김
불경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경전으로 시와 글귀로 이루어진 구송문학의 백미!
'수타'는 경(經) '니파타'는 집성함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 의해서 운문형식으로 구전돼 오다가 팔리어로 정착해 경전의 모습을 갖추고 '수타니파타'가 태어났다. 부처님의 첫 말씀으로 육성에 가까운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책이다.
신국판 | 값 6,000원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를!
범우사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TEL.02)717-2121 FAX.02)717-0429 www.bumwoosa.co.kr

한일 古代史 X파일 전모 파헤쳐



‘왜사(倭史)’

글/그림 김산호

여시아문 / 2만5천원

日 황가 탄생 · 왕인 · 광개토대왕과의 관계 등
그림 곁들인 추리소설 읽는 듯한 긴박감 줘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얽힌 역사의 X파일이 공개된다.’

한국최초의 SF만화 ‘라이파이’의 작가이자 수년간 한국 고대사 연구에 전력해 온 김산호(사진) 화백이 동아시아 역사의 비밀을 파헤친 회화극본 <왜사(倭史)>(여시아문)를 펴냈다. 이 책은 그동안 왜곡되어온 ‘왜(倭)’의 실체와 역사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은원(恩怨)과 대립으로 서로간의 진실과 역사를 밝혀낼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욱이 왜구의 침탈과 임진왜란, 일제 강점으로 얽힌 양국의 관계는 선린과 우호보다는 증오와 복수의 정서만을 키워온 게 사실이다.

작가 김산호씨는 우연한 기회에 중국인의 ‘중화주의’와 유태인의 ‘시오니즘’을 연구하던 중 동북아시아의 두 주역인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악연으로 맺어졌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X파일이 존재할 것이란 믿음때문이다. 그래서 김 화백은 흔히 ‘왜구’라고 불려지는 일본 즉 ‘왜’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동북아시아 전 지역에 출몰했던 왜의 전모와 실상을 밝혀내지 않고는 이 지역의 과거사를 정확히 수면위로 떠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 고대사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특히 한국 고대사는 일제의 황국사관에 철저히 오염돼 있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는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게 김 화백의 주장이다. 이렇게 왜곡된 한일고대사는 두 나라 모두에게 불행과 비극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이다.

김 화백이 한일고대사를 연구하며 결론 지은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족, 같은 형제라는 것이다. 현재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란을 피해 이주한 이민세대에 의해 건설된 ‘제 2의 한국’이라고 보는 셈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한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유전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 게놈 지도가 완벽하게 밝혀진 것이다. 이 결과 한국과 일본은 거의 100% 가까운 DNA의 일치를 보였다. 이에 김 화백의 ‘왜사’에 대한 주장이 어느정도 설득력을 가지게 됐다.

이 책은 먼저 밝달민족(배달민족)의 시원부터 출발한다. 이어 북부여의 해모수전설, 고구려 시조, 십제국 시조 온조왕, 일본의 탄생, 천왕국가의 탄생 등이 화려한 색채의 그림과 드라마틱한 스토리 전개로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이 중 비류(沸流)와 온조(溫祚)에 얽힌 비밀과 여걸 소서너의 파란만장한 운명 등은 정사(正史)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다. 또 일본 황가의 탄생과 그에 얽힌 한국 고대사의 비의(秘義), 백제의 왕인 박사와 광개토왕에 얽힌 한일사의 X파일은 한편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긴박감을 준다.

이 책은 2백페이지의 분량이지만 김화백 특유의 리얼리티 넘치는 화필과 극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읽는 재미를 쏠쏠하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문명인들에게 던지는 호주 원주민의 메시지

‘무탄트 메시지’

말로 모건 지음 / 류시화 옮김

창작과 비평사 / 2만원

‘참사람 부족’과 넉달간 사막도보횡단 기록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오스틀로이드’라고 불리는 이들(그들은 스스로를 ‘참사람 부족’이라 일컫는다)은 문명인들을 가리켜 ‘무탄트’라고 부른다. 이는 돌연변이라는 뜻이다. 기본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존재를 말한다. 원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인 동물, 나무, 풀, 구불거리는 샛강, 심지어 바위와 공기조차도 우리와 한 형제이며 누이라고 믿고 있었다.

신이 최초로 창조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호주 원주민 참사람 부족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면서, 모든 생명체가 형제이며 자매라고 믿는 이들이다. 그래서 문명의 돌개바람과 함께 몰려와 어머니 대지를 파헤치고, 강을 더럽히고, 나무를 쓰러뜨리는 문명인들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그들을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인들과 타협하지 않은 마지막 원주민 집단으로 알려진 참사람 부족은 걸어서 호주 대륙을 횡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연 치료법을 전공한 백인 여의사 말로 모건은 이 참사람 부족이 엄선한 무탄트 메신저로 선택되어, 이들과 함께 넉 달에 걸친 사막 도보 횡단여행에 참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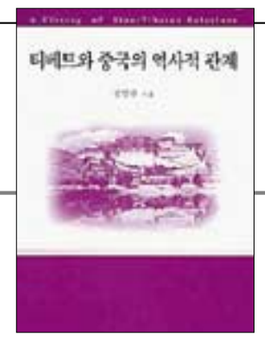
이 책은 그 여행의 기록이며, 참사람 부족이 마지막으로 세상의 문명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120일간의 힘겨운 여정에서 말로 모건은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저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게 사는 참사람이라는 것. 자연에 도로 내고, 빌딩 짓고, 수도관 깔고, 전기 가설하는 우리야말로 이 땅의 돌연변이라는 자각을 내면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땀 냄새 맡고 달라붙는 파리 떼를 몸부림으로 쫓아낼 수 없었을 때, 그냥 내맡기자 찌든 땀을 다 훑어먹은 파리들은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자연의 이치는 그런 것이었다. 백인이 애용하는 파리약이나 모기장은 전혀 해답이 아니라는 진리를 말로 모건은 터득한다.

그리고 썼다.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친지들에게 알리려 자비로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1994년 <무탄트>, 2001년 <그 곳에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책 내용을 보강해 재생지에 다시 옮긴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김한규 지음

혜안 / 2만원

“티베트는 독립된 역사공동체로 존속”

최근 한국에서도 불교계를 중심으로 티베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서적의 출간 소식을 이따금 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지금까지 티베트 역사에 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김한규 교수(서강대 사학과)가 2000년에 출간하였던 <티베트와 중국 —그 역사적 실체에 대한 연구사적 이해>(소나무)에 이어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라는 저작을 냈다.

두 책은 우선 제목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곧 티베트가 중국과 대등한 하나의 실체로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책에서 말하는 티베트와 중국은 현재의 티베트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의 티베트와 중국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재 티베트에 대한 이해 당사국들의 인식이 과거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의 제목은 어쩌면 자극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지금의 중국 영토 안에 존재하였던 과거의 나라들은 모두 중국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지은이는,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동아시아 세계질서를 연구하는 데 많은 단서를 제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루지 못했다. 이번에 지은이가 이 주제를 다룬 것은 자신의 학문적 세계를 완성시키기 위한 큰 발걸음의 하나를 옮긴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가까운 시기부터 소급 기술

이 책에서는 양자의 역사적 관계를 역순으로 추적하고 있다. 즉 먼저 현재의 양자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중공 정권의 티베트 점령과 그에 따른 티베트 주권의 상실에 대해 기술한 다음, 그 역사적 관계를 몇 단계로 나누어 가까운 시기부터 소급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흥미롭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지만, 반면 손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따금 눈에 띈다.

독자들을 위해 책의 내용을 빠른 시대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두겠다.

① 티베트-중국 관계의 선사(先史) 시대: 당시 티베트는 수많은 부락이나 소국 혹은 소국연맹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소국 등이 개별적으로 중국의 국가들과 전쟁 혹은 사신 파견, 책봉조공(冊封朝貢), 호시(互市) 등의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지만, 훗날 티베트의 핵심을 구성하는 부족은 지리적 격리로 인해 중국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② 토번(吐蕃) 왕국과 당(唐) 왕조 시기 : 양국은 전쟁과 사절단의 교환을 지속하면서 매우 대등하고 독립적인 정치관계를 유지하였다.

③ 분열기의 티베트와 오대(五代)~송(宋) 왕조 시기: 양쪽이 모두 분열 또는 국력의 위축으로 인해 전면적 관계를 갖기 어려웠다.

④ 사캬파(薩迦派) 시기의 티베트와 몽골 원(元) 시기: 티베트의 정치 · 종교를 일원적으로 지배한 티베트 불교의 사캬파 수령이 쿠빌라이 등 원의 황제들과 법주(法主)와 시주(施主) 관계, 즉 단월(檀越) 혹은 공시(供施) 관계라는 독특한 형식의 관계를 맺고 원 제국의 건립과 유지에 협력하는 대가로 티베트에 대한 통일적 통치를 승인 · 지원 받았다.

⑤ 재분열 시기의 티베트와 명(明) 왕조 시기: ③의 형태가 재현되어 명의 황제는 티베트의 각 지역에 할거한 각 교파의 영수들과 다원적 단월 관계를 맺는 동시에 책봉조공 관계도 수립했다. 티베트의 정치적 독립성이 상실되지는 않았다.

⑥ 겔룩파(格魯派) 시기의 티베트와 청(淸) 왕조 시기: 티베트의 정치 · 종교를 일원적으로 장악한 겔룩파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가 청 황제와 단월 관계를 맺었다. 단, 청은 티베트에 네 차례 군대를 진입시켰고 또 두 차례 장정(章程)을 만들고 주장대신(駐藏大臣)을 파견하여 제도적으로 내정에 개입하였다. 양자의 관계는 매우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측면이 있었다.

⑦ 13대 달라이 라마와 중화민국 시기(1911~1951년): 티베트가 중국의 혼란을 틈타 중국과 모든 전통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사실상 독립된 국가체제와 지위를 향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은이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티베트는 중국과는 다른 생활공간과 언어 · 문자 · 종교 · 혈통 · 역사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가진 별개의 독립된 역사공동체로서 존속하였다.”

■정병준 / 동국대 사학과 부교수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는 티베트가 중국의 정치적 속국이 아니라 대등한 역사와 생활방식을 비롯한 공동체 의식을 지닌 독립국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mahamall.co.kr
마하몰이 수험생에게 추천하는 상품
희담석 稀潭石
생명의 돌, 희담석은 이렇게 다릅니다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 오지에서 옛날부터 치료용으로 쓰이던 신비의 돌입니다. 지구 깊숙히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단단해진 화산석의 일종으로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방석>
※ 권장소비자가격 : 198,000원
● 색상: 연두색, 살구색
<희담석 보료>
● 1인용 보료: 4,000,000원
● 1인용 보급형 보료: 2,800,000원
● 2인용 희담석 침대: 13,000,000원
<희담석 체험사례>
“엄마, 제가 어느 대학에 갈지 기대하세요”
희담 방석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1년 전 여고 1학년이었던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넘기기를 힘겨워 했으며 즐기 일쑤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깨우기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저작년 추석에 무연히 <희담 방석>을 앞게 되어 딸 아이의 의자에 앉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졸지도 않고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다. 하루는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며 딸 아이가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졸지도 않았고 아침에 힘들어 하지 않고 잘 일어나는 것이었다. 평소 자기 반 32명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 방석>을 사용한 직후 10등으로 쑥 올라갔다. 과목중에서는 암기 과목을 제일 힘들어 했었는데 암기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히 높아졌다. 나와 딸애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워했다. 그후 공부이는 어제 잠을 잘 때도 희담 방석을 베개로 사용할 정도가 되었으며, 공부에 대한 열정도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나서 치른 1학기말 고사 성적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전체 과목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95점이나 나왔던 것이다. “엄마,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공부하는게 이렇게 재미있을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느 대학에 갈지 기대하세요” 하며 흥분해 하는 딸 아이를 보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희담 방석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영희(42세/여,수험생 어머니,부천중동)
“엄마, 정말 공부가 잘돼요.”
딸 년 전 손바닥 크기의 희담석 지키미를 선물받았다. 허리가 아플 때 한번 대 보았더니 한두 시간 지나자 요통이 사라지는
(희담석 체험사례 표)
과목 | 2002년도 1학기 (선택상담) | 2003년도 3학기 (선택상담) | 과목 | 2003년도 1학기 (선택상담) | 2003년도 1학기 (선택상담)
국어 | 77.82 | 96.00 | 사진공작 | 95.60 | 100.00
도덕 | 81.88 | 85.60 | 문학 | 80.30 | 91.70
수학 | 60.12 | 59.40 | 화학일반 | 87.70 | 91.40
사회 | 64.06 | 83.00 | 정치 | 72.00 | 96.00
국사 | 68.23 | 96.00 | 세계지리 | 82.00 | 87.70
과학 | 56.89 | 95.00 | 생물 I | 96.00 | 92.00
가정과 | 73.96 | 68.00 | 한문 | 91.90 | 100.00
영어 | 74.67 | 96.00 | 영어 I | 93.00 | 91.30
 | | | 화학개론 | 95.70 | 100.00
 | | | 물리학 I | 100.00 | 96.00
 | | | 정보과학 일반 | 80.00 | 92.30
부천 중동소재 ㅅㅅ여자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도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란 표현은 일승도(一乘道)란 용어를 풀이한 것이다. 일승(一乘)이란 <법화경>에서 사용하여 유명해졌지만 본래는 초기불교 이래 사용되고 있었다. 초기불교시대에는 일승도 혹은 일행도(一行道)란 말을 사용했으며, 일승도 보다는 일행도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다. 이 말의 원어는 에카야나 마가(ekayana-magga)이며, 'yana'를 수레로 번역하면 수레 승(乘)이란 글자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yana라는 말에는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의미가 있기에 행(行)이나 취(趣)라 번역하기도 한다. 'magga'라는 말은 길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일승도나 일행도는 수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길을 의미한다. 즉 죽은 사람이 해탈이나 열반을 향해 가야 바람직한 일이 된다는 점을 암유(暗喩)하고 있다.

초기불교의 이상과 같은 의미를 <법화경>은 유일한 수레라 재해석한다. 대승 중에서도 이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일한 길인가? <법화경>에선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법화행자가 되는 것이다. 대승불교는 이념적으로 이성과 감성에 동시에 호소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교리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중들은 합리성과 논리적 정합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사를 겪으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줄 방책을 필요로 했다. 그런 점에서 대중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쉬운 수행 방법, 부처님의 설법이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 <법화경>은 당시의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실상(實相)이니 일불승이니 하는 고상한 가르침도 있지만 부처님의 덕을 찬송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초기불교시대는 상황이 달랐다. 초기불교 교리는 매우 이론적이며, 합리성을 추구한다. 모든 것은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일행도 내지 일승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승도가 있어서 여러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 슬픔을 초월하여 번뇌와 불만을 없애게 한다. 이른바 4념처이다"(<잡아함경> 권24). "유정의 정화, 근심과 슬픔의 초월, 불만과 번뇌의 소멸, 이법에 대한 통달, 그리고 열반의 증득을 위해 이 일승이 있으니 바로 4념처이다"(<남전대장경>9).

이상에서 중요한 정보는 일승도 혹은 일행도가 다름 아닌 4념처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4념처관을 수행하면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생노병사 우비고뇌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4념처관을 닦으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승도 혹은 일행도라 정의한다.

이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승도를 닦으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도 말한다. 인도 전통사회에서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삶의 질곡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미움과 저주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인간들의 세상, 눈물과 웃음이 점철되어 인간의 한 평생을 수놓게 되는 실존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인도인들은 그래서 계급모순과 빈부의 차별,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을 초월하는 길은 수행밖에 없다고 믿어왔다.

불교도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가지 가지 번뇌를 끊고, 각종의 생사를 소진하면 후유(後有)를 받지 않는다". "나의 생은 이미 다했다. 청정한 행이 이미 반듯하게 섰으며, 할일을 이미 했다. 스스로 후유를 받지 않는다고 안다". 이것은 모두 <잡아함경>에 나오는 구절들이다. 후유는 뒷날의 존재란 의미이며, 여기서는 윤회하여 받게 되는 삶을 지칭한다.

일행도가 4념처관을 닦는 것이라면 바로 관법을 통해 몸은 청정하지 않으며, 우리들의 감각은 만족할 줄 모르며, 우리들의 마음은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일체의 모든 존재들은 고정불변의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몸으로 체득하여 실천궁행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현실을 직시하며, 그것들을 그런 줄 알고 대처하고 운용하는 지혜를 지니게 된다고 본다.

일행도에 대해 어떤 경전들은 37조도품을 말하기도 한다. 이 경우 4념처관은 37조도품을 대표하는 관법으로 지칭된 것이다. 37조도품이란 4념처, 4의단, 4선, 5근, 5력, 7각지, 8정도를 말한다. 결국 이들을 수행하여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초기불교시대 '일승도' '일행도'로 표현

4념처관 닦으면 윤회벗고 해탈에 들어





◇만다스님이 저서 <약사 유리광‥> 출판 기념회에서 스님들의 축하(사진위)와 화동의 꽃을 받고 있다.

지상 백고좌

만다스님

(통도사 대전포교당 주지)



◇50여년 이상의 안거수행을 도심포교로 회향하고 있는 만다 스님.

고통 떠난 자리 극락
번뇌망상 시달리면 지옥

부처가 본디 부처가 아니오.
중생 또한 중생이리니
애써 진리를 찾는다 해도
진리이전의 소식만 못해
물에 젖지 않는 연꽃을 보라
스스로 부처인 것을.

오리가 지구를 물고 다닌다.
역겨운 모습
미친 삶이 사자의 꼬리를 물었다.
괴로운 모습
중생은 늘 괴로움에 시달리고
중생이 있기에 부처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음과 같이
중생과 부처의 동참수행으로 도는 열린다.('깽초의 오도송' 中)

세상은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갈수록 물질문명에 의존하는 것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집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많아져 인류의 도덕과 질서가 점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체면과 예의는 아랑곳없습니다. 사랑과 정마저 말라버리는 현시대는 상대간의 반목과 불신이 극단적으로 치달아 세상은 온통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상 가시지 않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

적운 스님과 함께 하는
선무도 주말 수련회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난, 맑은 공기 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 속에서
내밀한 참나(眞我)의 세계가 열리고
연꽃의 향기가 코끝에 밀려듭니다.

지친 심신에 새로운 활기를 주고 싶은 분,
일상의 나른함과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함월산 골굴사의
'움직이는 선(禪)의 숨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 언 제 : 주말 정기 수련회 - 매주 토 일요일 - 1박 2일
* 골굴사 · 선무도 대학에서는 정부의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단기 체험수련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 · 토 · 일요일 - 2박 3일)
※ 대 상 : 10세에서 70세까지의 남 여, 내 외국인
(초 · 중 · 고 청소년도 참가 가능합니다.)
※ 주말 정기회원의 동참금은 3개월 23만원입니다.
단기 체험수련회원의 동참금은 2박 3일에 6만원입니다.
※ 문의전화 : Tel. 054)744-1689, 745-0246
Fax. 054)746-0172,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선무도 대금강문 선무도 대학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신장이전 나폴리 승복 특별사은
승복, 버리시기 아까운 제품을 정성모아
몸에 맞게 고쳐드리겠습니다.
판매제품안내
1. 장삼, 가사
2. 두루막, 동방
3. 적삼
4. 모시론(풀안해도 됨)
5. 무명(수재)
6. 면 래푸사(풀안해도 됨)
7. 광목
8. 누더기(한국산 손염색)순면
9. 하이쿨
(몸에 붙지 않고, 가볍고, 물세탁)
10. 기타제품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만족할만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나폴리승복
대표 정용호 합장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1동 673-3(대구은행 반월당 지하철역 앞)
전화 053)253-8482 / 011-9599-7963

불교의식(범음 · 범패)
제 2기생 학인모집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초종파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염불,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 교육원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과정

▶ 의식 초급반(3개월) 주 2회 강의 (매주 월, 화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새벽 도량석, 종성염불, 상단새벽예불, 저녁예불, 아침송주, 저녁송주, 상단불공(재불통청), 신중퇴공, 행선축원, 불공축원, 관음시식, 배송, 사미율법 및 초발심 자경문
▶ 의식중급반 (5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수, 목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시련절차, 천도, 49제 재공편, 전점안법, 설교의식, 시왕불공, 시식, 배송, 다비편, 방생의식, 불상 및 탱화 점안법, 예수제의문, 구병시식 등
※ 재장엄번설치법, 령가축원문작성법, 위패, 지의, 전, 작성법
▶ 작법반 : 일반(5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일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속성(2개월) 주 1회지도(매주 금요일) 시간 : 오후 1시 ~ 4시 30분(3시간 반)
● 종 목 :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사다나니(가지게) 화의재진연바라
▶ 역학반(10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 오후1시~3시(2시간) ※ 특별강사초빙
▶ 시물특강반 내용 : 태징, 광쇠, 북치는법(천수북, 정근북, 장엄염불북, 요잡쇠)
● 기 간 : 3개월 주 1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2시간)
▶ 속성반 : 의식, 작법, 사물(짧은 기간에 이수하실분은 별도 등록 요함)

대구불교의식 법음 · 범패 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2층)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 053)955-7725

불가 도인술 전수 수행자 모집

가. 달마 침구술 정체술기 및 교체법 운기 도인술
불교전래 향공법 전수자 근기에 따라 다양한 술기전수
난치병 붙치질환에 특히 적용, 오래된 만성두통즉효
귀신병등 빙의로 고통받는자 즉시 회복 (천도방법전수)
※ 한가지 술기만으로도 명의가 될 수 있는 기회
나. 수행자격 : 신심있는 모든 청신사 청신녀
동 참 금 : 속성 1개월 과정 100만원

▶ 계좌번호 : 농 협 702061-52-052323
국민은행 629-21-0293-427
예금주 : 조 진

여래사 불사에 동참하여 평생 함께
수행하며 노후를 의탁하실 불자님들의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연령 50~60세 전후로 신심있는 불자님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아래 여 래 사
주지 심묵 법장 합장
(011-245-5467)

습도 테러의 공포에 휩쌓여 인류의 공포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생각하면 사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이 고해라는 것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들일 수록 고는 태산처럼 높아져 결국 그 아래서 허덕이는 삶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임제대사는 깨달음을 얻은 뒤 '지옥에 떨어지면 모진 고통과 가시밭 위로 걷기도 하고, 모진 매도 맞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깨치고 보닌까 지옥에 떨어져도 유원지에서 노는 것과 같더라' 고 말했습니다.

극락이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고통이 떠난 그 자리가 곧 극락입니다. 한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극락을 수용하면 곧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마저도 떠난 자리가 참다운 극락이지만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착하면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무엇을 얻고 칭찬 받으려 애쓰나?
모든게 잠시 빌린 것… '내것' 은 없어

금강경에 보면 '머무는데 없이 마음을 내라' 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우주의 온갖 삼라만상 현상계 일체의 존재는 끝이 없이 변하여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제경요집>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 것이라 집착하여 마음의 동요를 내는 사람을 보라. 그들의 모습은 바짝 마른 얕은 강물에 사는 물고기와 같으니라. 물은 다 말라가고 내리쪼이는 햇빛은 따가우니 얼마나 괴롭겠느냐. 열심히 마음 닦아 열반락에 들자. 생사고해를 다 여의고 해탈의 저 언덕으로 최고 이상향에 도달할 것을 빌어마지 않는 바이다'

마음하나 깨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번뇌망상에 시달리면 지옥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자리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심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다' 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의 욕심과 집착이 없어집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자연히 중생도 부처도 없어집니다. 그 세계가 극락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등의 수행법과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도 모두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뗏목인 것입니다. 어떤 수행이 되었던지 간에 일념으로 정진한다면 깨치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참선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고(苦)로부터 해탈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근원인 자비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사랑의 요소 뿐 아니라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자들은 알음알이로 불교를 배워서는 안됩니다.

'이 문안에 들어서면 알음아리 두지말라' 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체 알음알이가 붙지 않는 선이라는 뜻이지요. 자비는 알이알이가 아닌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고 더러운 물(현실)을 섭취하여 화사하게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불교의 자비사상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연환경의 오염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도 그리 청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자들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더러움 속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처럼, 주위를 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번뇌를 일으켜 주위를 오염시키는 바로 그 사람이 마음 올바로 닦아 자신과 주위를 맑게 하고 밝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종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어야 꿀맛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던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 칭찬받겠다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집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원하지만 얻어지지 않는 고통은 큽니다. 인간의 삶은 덧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집착하고, 내 것이라 하고 상을 낼 것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세상도 갑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도 갑니다. 갈 때는 다 놓고 가지요. 살아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필요에 따라 잠시 빌려쓰는 것에 불과하지요. 빌려썼으면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착하는 육신, 부모 자식의 관계도 모두 스쳐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내것이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마음에 무소유의 뜻을 새겨 탐욕에서 벗어나 홀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간혹 일반 사람들을 만나면 죽은 뒤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에 대해서는 캄캄하지요. 부처님의 인연법을 알고 마음공부하면 전생을 알고, 내생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원인을 알고자 한다면 현재의 결과를 보고,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현재의 원인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살아생전에 선업을 쌓으면 죽어서도 고통이 없는 안락한 세계에 환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것이 생이고, 생자체가 멸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지요. 이 세상에 내가 나온 것은 저 세상의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다음 생에서 그 공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묻지마오.
나온 곳 없어 여래라오.
어디로 가느냐 묻지마오.
우주가 한 집인데 따로 갈 것 무어 있소.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오고 감은 흘데없는 순서
태초부터 끝없는 끝까지
그냥 이대로 머문다오.
('어디서 왔으냐' 中)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연꽃처럼
주위 정화시켜야 참불자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기자가 본 만다 스님

보문산일대 10년 성역화불사 내년 입재

대전지역 포교에 주력해온 만다스님. 스님은 7세인 1945년 전주 위봉사에서 우당스님을 은사로 동진 출가했으며, 통도사 강원을 졸업했다.

강원을 졸업한 뒤 지리산 청왕봉자락 칠선계곡 합죽골에 토굴을 마련하고, 줄야 용맹정진을 하는 등 50여년간 전국 제방에서 수선안거한 스님이 얻은 깨달음의 골자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우리 삶 자체가 수행' 이라는 것. 그때부터 '일생을 중생과 더불어 살기' 를 발원하며, 사바세계에 머물며 꽃을 피우고 있다.

통도사 대전포교당이 신도교육, 청소년 포교,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만다 스님의 강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91년 전국에서 불교세가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한 대전 중구 유천동에 공공건물 1층을 빌려 통도사 대전포교당 무성사를 개원했다. 이어 94년 통도사대전불교대학을 설립해 졸업생 1천여명을 배출했다. 또 2000년 사단법인 대전청소년사회문화원을 설립해 청소년 축제, 연수회, 초청강연회,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식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대전지역 포교거점사찰을 염원하며, 목달동 보문산 자락 3만4천평의 부지를 확보한 스님은 내년 2월 불사입재식을 갖고 10년 성역화불사를 시작한다.

스님의 저서로 시집<땡초의 오도송>과 편역집 <약사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 <생전예수재 참회의 공덕>이 있다.

진명스님의 스님이야기 — 도림스님



앞에서 보면 이마와 머리의 경계가 없는 스님이다. 아직은 젊은데도 조사 어록에 나오는 선사스님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를 가졌다. 자상한 노장님 같은 캐릭터 말이다. 작으마한 체구지만 조계사 도량을 다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넓고 큰 스님이다. 요즘 조계사 총무 소임을 보고 있는 도림(道林)스님. 깊은 산속 암자에서 여여하게 마음챙기는 노장님 같은 도림스님이다. 마음 발을 일구듯이 그렇게 조계사 큰 도량을 살피고 있다.

도림스님은 동국대학교에서 같은 학번으로 함께 공부한 스님이다. 일찍 출가해서 강원을 졸업하고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다가 다시 체계적인 학문을 하기 위해 산문을 나섰다. 때늦은 만학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했다. 공부하느라 힘들어서는 아니겠지만 점점 이마의 면적이 넓어져갔다. 함께 앉아 토론이라도 할라치면 꼭 없어져가는 머리카락을 한 번씩 쓰다듬고 시작한다. 삭발하는 날은 매만질 머리카락이 그마저



그림 · 문병성

도 없지만, 그럴 때면 도반들이 "도림스님 큰일났네. 왜 그렇게 속알머리는 없어지고 주변머리만 남아 있습니까. 참말로 눈이 부십니다" 라고 우스개 소리를 하면 호탕하게 웃어넘기곤 했다.

언제나 개인적인 일 보다는 대중을 먼저 생각하고 도반들의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소리 없이 챙기곤 하는 것은 몇 년간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 와서도 여전하다. 도반스님 중에 누군가가 상을 당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 주고, 작은 포교당이라도 개원을 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피며 도반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솔선한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귀찮은 노릇이다. 허나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한다. 씨익 웃으면서 넌지시 건네는 마음의 손길이 참 따뜻한 스님이다.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어쩌다 귀국해서 도반들을 만나면 영락없이 놀림을 당한다. "까맣게 그을리고 야윈 체격이 어쩌면 그렇게 중국스님을 연상케 하느냐고, 중국 스님 다 되어 간다" 고 바라보고 웃곤 했다. 어렵게 유학을 하면서도 도반들이 얼마 안되지만 학비를 보태려고 하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도반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그 도반을 위해서 사양하곤 했다. 공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스님 중에 스님이다. 수행자로서의 중심축이 꿋꿋한 신심의 바탕위에 굳게 뿌리하고 있는 모습을 스님의 말과 행동에서 볼 수 있다.

그런 도림스님은 불가와 많은 인연을 지어 온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다. 집안에서 가족이 한 명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면 구족이 생천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도림스님을 중심해서 위로 형님과 아래로 동생, 삼형제가 출가해서 때론 좋은 선지식으로 또 든든한 도반으로 수행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싶다. 동산양개 화상의 어머니처럼 그 아들들에게 얼마나 많은 편지를 가슴으로 썼을까 짐작이 간다. 그러나 아마 지금쯤은 그보다 더한 부자가 없을 것이다.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 아닐까. 한 명 출가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삼형제가 스님이 되다니 어찌 환희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인연법으로 보자면 지중한 인연임에 틀림이 없다. 어쩌면 전세에 삼형제가 서로의 마음 그릇을 키우고 탁마하던 좋은 도반이었을까? 적당한 거리에서 변함없이 산을 지키고 서 있는 크고 작은

3형제 출가, 서로에게 좋은 도반
누구든 친절히 대해…매사 긍정적

소나무 세 그루를 보는 듯 하다.

아마 도림스님에게 요즘 주어진 소임은 수행기간 중에 자신의 수행여정을 다져가는 좋은 시간일 것이다. 종무 행정을 익히고 가람수호 하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살피는 그 소임은 공부 중에 공부일 것이다. 도량도 살펴야 하고, 불교대학 강의도 해야 하고, 불자들의 희노애락에 얽힌 인생여정도 들어 주어야 한다. 불자들이 아무리 하찮은 일로 상담을 청해 와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어린 종무원일지라도 의견을 존중한다. 일을 하다 종무원이 잘못을 하더라도 무색하게 야단하지 않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라며 다독여 준단다. 어느 종무원의 말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선비 같은 스님"이란다. 그리고 "제일 존경하는 스님" 이라고 덧붙인다.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짜증도 나고 화나는 일도 있을 터인데 화를 내거나 큰소리로 말하는 법이 없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중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종무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존경심은 상대방의 삼업에서 우러나는 향기에서 반영되는 메아리와 같을 것이다. 사람의 향기가 있는 스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세상에 태어나서는 부모님 전에 감사하고 출가하여서는 부처님 전에 감사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소납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부모님 전에 감사함을 간직하였으며 출가하여서는 부처님 전에 감사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였으며 승려로서 수행과 정진을 하면서는 여러 인연 불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공양하신 음덕에 항상 감사함을 생각하며 기도 축원하였습니다.

부처님 혜명을 받들어 전법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는 동안 세월이 흘러 소납도 육순을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기도 중에 밝아오는 여명으로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전, 부처님 전, 시주님 전에 더 늦기 전에 보은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부처님 말씀 중에 「약사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은 세상을 살면서 병고액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길잡이가 될 것이며 「생전예수재 참회의 공덕」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인연 불자들에게 생전의 업장을 소멸케 하고 명부의 세계에서 고통을 면하게 해야 되겠는다는 소납의 성심 어린 정성 발원으로 이 두권의 책을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편역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번씩 읽어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건강한 육체와 마음을 통해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이룩하여 불국정토를 세우시길 비옵니다.

부처님 유교제자 만 다 합장



만 다 편역 / 문예마당 펴냄 / 13,000원



만 다 편역 / 문예마당 펴냄 / 10,000원

약사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

약사경 · 藥師經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을 통하여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병마가 침입하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 중생들의 무병장수를 서원하며 성불하신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광여래 부처님의 위신력을 담았습니다.

12가지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신 약사유리광여래의 행적을 찾아 경전을 읽을 때마다 중생들의 영원한 생명의 실상인 약사유리광여래 부처님을 예경하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부처님의 명호를 항상 예송하며 믿고 실천함은 필경 자신의 본래 성품으로 돌아가므로, 일체 병고액난을 해탈하는 한량없는 무량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참 · 사 · 람 · 의 · 아 · 름 · 다 · 운 · 회 · 향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참회의 공덕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에만 크게 집착하였지 생을 마감하고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려 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태어나면 가야만 하는 길이 저승길입니다. 그렇다면 명부 열시왕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 책 속에서 그 의문의 세계를 만나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후이신 마야 왕비께서 지옥중생을 구제하시는 지장보살에게 중생들의 사후세계를 염려하시어 상세하게 하문하시는 과정을 읽으신 후 과연 '생전예수재'를 올리는 공덕이 나에게는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보시용으로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찰에서 다량으로 법보시 하시면 할인가능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대전포교원 용수사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427-55 Tel. 042)531-1332 Fax. 042)525-1333

낙엽의 계절 차 잘 마시려면…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차 한잔을 생각나게 하는 가을이다. 가족 혹은 지인들과 함께 차 한잔 나누기 좋은 계절에 차를 좀 더 맛있게, 멋있게 즐길 수 있는 법을 알아본다.

▧물 끓이기-김 빼주면 잡냄새 제거

찻물을 끓일 때는 100℃로 충분히 끓여준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리가 점점 커지고, 조금 더 끓이면 소리가 잦아들게 된다. 이때 뚜껑을 열어 김을 빼준다. 이렇게 하면 물의 잡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잠시 후 뚜껑을 닫고 불을 줄여 약간 뜸을 들인다.

물은 수돗물보다는 생수가 좋고, 생수보다는 깊은 산속 바위틈에서 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이 좋다. 산사에서 마시는 차가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 우리는 순서-식힌물에 2~3분 적당



100℃의 끓는 물을 물 식힘 그릇(숙우, 熟盂)에 따르면 80~85℃가 된다. 물을 70~80℃로 식혀 차를 우려야 제 맛이 난다. 물을 식히지 않고 차를 우려 마시면 쓰고 떫은맛이 난다.

물을 식히는 동안 다관에 차를 넣는다. 1인당 2~3g이 적당하며, 5인 기준으로 할 때는 차 숟가락 가득 세 숟가락(밥숟가락의 4분의 3) 정도를 넣는다. 차를 넣은 다관에 식힌 물을 따른다. 물을 부은 후 너무 오래두면 차 맛이 진해져서 제 맛을 낼 수 없다. 적당히 식힌 물이라면 2~3분 정도면 충분하다. 물이 뜨거울 수록 빨리 따라 마셔야 한다.

계절에 따라 차와 물을 넣는 순서가 다른데, 봄 · 가을에는 물을 다관에 1/3 정도 먼저 붓고 차를 넣은 다음 다시 물을 붓는다. 여름에는 물을 먼저 붓고 차를 넣고, 겨울에는 차를 먼저 넣고 물을 붓는다. 다관과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어 덥혀 놓는 것도 좋다.

▧차 보관방법-음식과 섞이지 않은 서늘한 곳

개봉한 차를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습도와 온도, 광선, 공기, 냄새 등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차는 냄새와 습기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아 냄새가 나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섭씨 5℃ 정도의 냉장고에 밀봉해 두면 오래 보존할 수 있지만 냄새의 흡착성이 강하므로 냄새나는 음식물과 함께 보관하면 차 맛이 떨어지고 잡내가 나게 된다. 또한 화장기 있는 손으로 차를 만지면 차가 화장품 냄새를 쉽게 흡수하게 된다. 말차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차가 습기를 머금었다면 쳘사로 만든 체나 수놓는 틀에 한지를 깔아 차를 붓고 약한 불에 고루 흔들어 말린다. 구수한 냄새가 나면 불에서 내려 식힌 후 차통에 담는다.

▧다기보관-깨끗한 물로 행궈 건조

처음 구입한 다기는 찻물에 30분 정도 푹 끓여서 쓰는 것이 좋다. 흙 냄새를 없애고 깨끗이 소독하는 효과가 있다.

여름철 차를 마시고 난 후에는 다기를 잘 건조시켜 두는 것이 좋다. 장마철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다기를 중성세제로 씻으면 도자기가 세제를 흡수하게 되므로 금한다. 다 쓴 다기는 깨끗한 물로 헹구어 말려 놓는다.

▧마시고 남은차, 티백차 활용

차를 마시고 남은 찻잎이나 티백차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악취 제거

우려 마신 티백을 잘 말려 신발 안에 넣어두거나, 냉장고나 화장실에 놓아두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가루차를 탄 물을 적신 수건으로 냄새가 나는 부분을 꼼꼼히 닦아 주는 것도 냄새 제거의 한 방법이다.

▷녹차족탕

심하게 피곤하거나 감기증상이 있을 때는 전신목욕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발목이 잠길 정도의 따뜻한 물에 가루차 2큰술과 왕소금 2큰술을 풀고 10분간 발을 담그면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좀과 발냄새가 심한 사람이라면 미지근한 물에 녹차를 진하게 우려낸 후 식초 두 큰술을 섞어 10분간 발을 담근다.

▷녹차냉찜질

공부와 업무로 인해 얼굴이 붓고 눈이 피로할 때는 '차 얼음'을 이용한 찜질을 해 보자. 물에 가루차를 풀어 얼음 용기에 얼린 '차 얼음'으로 눈 주위를 지압하면 머리가 상쾌해진다.

▷화분비료

차 찌꺼기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무기질 등 식물에 필요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마시고 난 티백을 그대로 화분 위에 얹어두면 천천히 분해되면서 화초나 나무의 좋은 비료원으로 활용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도움말 주신 분

소안다도문화원 박필금 원장, 다도 연구가 구자완, (주)태평양 설록차 홍보실

제2회 어린이 다례경연 대회

한국다도협회(회장 정상구)와 부산여자대학은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 차문화를 익히고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2회 전국 어린이 다례경연대회'를 개최한다.

10월 25일 오전 11시부터 부산여자대학 다도관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유치부 · 초등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입 · 퇴장 순서와 한복 입은 모습, 절하는 모습, 다례시연, 차 마시기 등을 심사한다.

다기를 놓는 위치는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어떠한 행다법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개인(1명)과 단체(2~8명)로 나누어 진행되며 시간은 12분 내외다. 참가비는 없으며 신청접수는 10월 15일까지. (051)850-3085

'차문화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한국차문화협회(www.koreatea.or.kr)는 '차문화 대학원(이사장 이귀례)'을 설립하고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10월 16일부터 2004년 8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차생활 예절 지도전문사범' 자격증을 주며, 이수자 중 심의를 거쳐 (사)규방다례 보존회에서 발급하는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일반전수생 인증서를 발급한다. 접수는 9일까지 협회 사무처로 해야 하며, 입학원서와 한국차문화협회 사범자격증 사본, 사범활동 경력서, 사진 3매 등이 필요하다. 교육장소는 협회 교육장이고 수강료는 60만원이다.(02)701-0475

차맥 지킴이



고세연

(고세연 차가(茶家)이사장)

수북이 쌓인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자료를 찾고, 틈틈이 정리해 둔 노트를 다시 꺼내 읽는다. 얼마 전 배운 컴퓨터가 아직 손에 익지 않아 원고를 쓰는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

지난해 '고세연 차가(茶家)'를 설립한 고세연() 이사장. 형형한 눈빛과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3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이에게서 묻어나는 고집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1969년 故 명원 김미희 선생의 문하에서 차를 배우고, 명맥이 끊어지다 시피 한 우리 차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애썼던 명원 선생을 도와 차를 연구하고 보급해 온 고 이사장은 '차계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제가 처음 차를 접했을 때만 해도, 다관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을 정도로 제대로 된 다구 하나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다도구 제작과 문헌을 통한 다법 되살리기에 힘쓰셨던 명원 선생님은 우리나라 차 문화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선생님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다구와 다도 연구에 매진한 것이죠."

80년 명원다도 발표회와 두 차례의 차문화 학술발표를 준비했던 그는 89년에는 '한국 가루차회'를 설립하고 91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가루차 행다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명원문화재단 부설 명원다례전수관 관장을 맡아 다도보급에 앞장서기도 한 고 이사장은 바쁜 일정 틈틈이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명원 선생 도와 차 연구·보급
89년 '한국 가루차회' 설립
"다구, 다기는 하나의 예술 작품"

98년 우리 차의 원류와 다법을 소개한 <차의 미학>과 <다향의 축제>를 펴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직접 제작한 다도구를 담은 <다도구의 미학>, <동다송> · <대관다론> 등의 다서를 우리말로 옮긴 <고세연의 고전다서>를 펴냈다. 명원다례전수관 관장에서 물러난 것도 그동안의 연구를 책으로 펴내기 위한 집필 작업에 몰두하기 위해서다.

끊임없이 다구 연구에 매진해 온 고 이사장은 "차 도구는 찻잎으로 차를 만들기까지 제다와 행다로서의 다구와, 차를 마시기 위한 그릇으로서의 다구로 나눌 수 있다"며 "다구와 다기는 마땅히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고려의 문인 이규보는 '벽돌화로의 숯불에 놓아 꽃무늬 오지사발에 손수 달이니 빛깔과 맛이 더욱 좋으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한 잔의 차도 이렇게 구색을 갖춰 마셔야 그 오묘한 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또한 고 이사장은 "단순히 갈증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행과 덕을 쌓기 위한 방편으로서 차를 마셔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오늘날 대중화된 차 문화 역시 정신이 바탕을 이루지 않으면 한 때의 유행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지적한다.

"진정한 차인이란 비싼 다기와 비싼 차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정신을 추구하면서 남을 도울 줄 아는 여유와 인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차인의 길입니다."

여수령 기자

스님!! 좋은 달력을 추천합니다.

매년 똑같은 달력에 식상 하셨습니까?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 최고급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마하몰 www.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전각 수인(手印)
310㎜ × 310㎜



전각 금강경
310㎜ × 310㎜



석불(石佛)
310㎜ × 310㎜



사진 연화(蓮花)
310㎜ × 310㎜



유화 연화(蓮花)
310㎜ × 310㎜

※100부이상 주문시 사찰명 무료인쇄

마하몰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B1 T : 02)732-1520 입금계좌: 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규)

들판에 황금 물결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10월은 본격적인 가을 축제의 계절. 산사와 지역의 특성을 담은 지역축제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제는 산사와 지역들도 축제의 문화상품화로 '문화=경제' 라는 문화전쟁터에 뛰어든 것. 지역의 이미지와 결합된 페스티벌은 관광산업과 연계,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게 된다. 주말 가족들과 함께 흥겨운 잔치 한마당으로 떠나보자. 축제 현장의 주위를 맴돌거나 보는 구경꾼에만 머물지 말고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보자.



◇축제기간동안 진주남강에 떠있는 연꽃유등과 촉석루 위의 풍등은 사바세계를 환하게 비추어 준다.

가족과 함께 지역축제 즐겨봐요

화엄축제 도올 강연·화엄산사 음악회·사진전
17일 부석사

월명축제 향가 재조명·육법공양·촛불탑돌이
19일 경주서

남강유등축제 8개국 173개燈 남강일대 황홀경
15일까지 진주서

△**부석사 화엄축제**=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북 영주 부석사에서는 '제1회 부석사 화엄축제'를 연다. 해동 화엄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인 부석사와 그의 사상을 재조명 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17일 도올 김용옥씨의 '화엄사상과 부석사'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어 18일에는 김영임, 김성녀, 도신스님, 김태곤, 임동창, 타악연주가 김대환씨 등이 출연한 화엄산사음악회가 진행된다. 경내에서는 부석사의 4계를 찍은 '화엄사진전'도 펼쳐진다.(054)633-3464.

△**경주 월명축제**=월명 스님을 기리는 문화축제가 10월 19일까지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관광부와 경상북도, 기림사 등이 후원하는 월명문화축제에서는 10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월명대사의 향가를 각각 문학과 불교, 국악부문으로 나눠 그 가치를 재조명 해보는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본행사인 월명재는 11일 오후 7시 경주 첨성대 앞 문화의 거리에서 기림사 신도회의 육법공양, 영흥사 주지 회범스님의 종사영반 의식 등으로 진행돼 탑돌이 촛불의식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054)743-7182.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10월 19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쓰임(用)' 을 주제로 마련된다. 한국과 유럽,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42개 나라의 공예인들이 참가한 올 비엔날레는 공예의 쓰임을 재발견하기 위해 국제공모전과 초대작가전 외에 '생활공예명품전', '거리공예 프로젝트', '국제공예산업교류전' 등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생활공예명품전'은 한 가족을 모델로 내세워 노년, 장년, 청년, 유소년의 삶의 방식(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7개의 생활공간을 꾸민 뒤 수공예 명품을 배치해 공예품이 변화시키는 공간의 감성을 보여준다. (043)277-2503.

△**진주 남강 유등(流燈)축제**=10월 15일까지 진주성 앞 천수교에서 진주교 사이 1㎞의 남강과 둔치를 중심으로 환하게 불을 밝힌 수만 개의 등이 남강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색다른 황홀경에 빠져들게 한다. '세계등 전시'에서는 장승등, 촉석루등을 비롯한 국내등 150개를 비롯, 20m 높이의 천단(天壇)등과 연꽃등, 용(龍)등 등 13개의 중국등, 태국의 왕실수레등,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대 인물상등, 싱가포르의 머라이언상등, 일본의 금붕어등 등 8개국 173개의 다양한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진주시내 8개 고교생과 시민들이 직접 만든 수천 개의 창작등은 남강 둔치를 화려한 '등 터널'로 만들어 놓는다. (055)755-9111.

△**부천 빛의 축제**=국내 최초로 '빛'을 테마로 한 대규모 축제인 '제1회 부천 루미나리에(Luminarie).'

10월 20까지 부천 상동호수공원 5만4000여평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3개의 대형 건축물과 40여개의 소형 건축물을 세우고 이를 34만개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전구로 장식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빛, 평화를 향한 꿈(Luce, Sogno di Pace)'이라는 부제(副題)가 붙은 이번 축제는 크게 4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메인 테마로 높이 24m, 폭 40m, 길이 100m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평화의 기원', '복사꽃 세레나데' 호수를 따라 설치된 40여개의 조형물로 구성돼 색다른 분위기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빛의 호수.' 20m 높이의 원형 구조물 중앙에서 360도로 뻗어 나가는 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는 '르네상스의 빛' 등이다. www.luminarie.co.kr.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향가 '도솔가'의 월명스님 10월의 문화인물로 선정

문화관광부는 10월의 문화인물로 월명 스님을 선정했다.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나 스님은 신라 경덕왕때 향가인 <도솔가>와 <제망매가> 등을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월명 스님에 대한 조명은 곧 통일신라의 초석을 이룬 태종무열왕과 김유신 장군, 호국사찰인 사천왕사, 왕을 위해 세운 감은사 등으로 이어져 당대의 정치와 종교, 문화, 예술이 총망라돼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명 스님은 초월적인 종교인으로, 현실적인 화랑도로, 예술적인 향가작가요 대금의 달인인 음악인으로 살아왔다. 현재 그에 대한 기록은 지극히 빈약하지만, 그가 남긴 향가 두 편은 우리 국문학적 값어치로는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으며, 대금(만파식적) 연주자의 조종(祖宗)으로서의 위치와 국가를 사랑하는 화랑으로서, 호국승려로서의 행적을 보면, 그가 21 세기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로 숭상되어야 할 인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문화관광부는 선정이유를 밝혔다. 김주일기자

'새로운 인생' 등 5개 프로 신설

불교방송, 13일부터 가을개편

불교방송은 가을개편을 맞아 불교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다루게 될 '새로운 인생', '불교와 생태와의 만남' 등 5개의 신설프로그램을 10월 13일부터 방송한다. 이번 개편으로 '라디오 열린마당'과 '불교문화산책', '한밤의 명상음악'은 폐지됐으며, '우리들의 찬불가', '법고와 죽비' 등 12개 프로그램은 기존 방송시간이 확대, 축소되는 등 이동 편성됐다.

신설 프로그램 중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인생'.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모색해 한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다. 생태전문가와 불교학자 등이 패널로 출연해 대담을 펼치는 '불교와 생태와의 만남'은 최근 불교계에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늘어나는 청취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오늘날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해 불교적인 시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맞춰 주말에 방문할 만한 사찰을 소개하는 '사찰순례'와 찬불가 뿐 아니라 클래식,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불교적 색채의 곡을 소개하는 '명상음악'도 새롭게 기획됐다. 또 사시예불 시간에는 '반야심경 독송'도 방송될 예정이다.

편성개발부 김학주 부장은 "사회문제, 시사적인 소재에서도 불교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상희 기자



◇화강석으로 여백의 미를 강조한 찻상 '휴(休)'.

불교정신 깃든 '돌 찻상展' 법련사 '해인하늘' 등 50점

차(茶) 마시기 좋은 계절,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10월 22일까지 '돌 찻상전'이 열린다.

전통조각가인 조정우씨가 돌로 만든 찻상 50여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작품마다 붙여진 제목이 재미있다. 양면에는 여백미를, 중앙에는 원형의 테두리에 겹꽃을 그린 '휴(休)'. 화강암 오석위에 우뚝 솟은 흰산을 새긴 '웅푸라우'. 해인사의 전경을 조각한 '해인하늘'. 원을 감싸고 있는 네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한 끝은 하늘을, 또다른 한끝은 대지를 상징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등 불교적인 사상과 관련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꽃병인 '월화', 스텐드인 '문과 문' 등 생활소품도 전시된다.

조정우 씨는 "찻물을 머금은 돌은 시간이 지나면 온도와 습도 조절은 물론 방안의 향기를 다스리는 방향제의 역할도 한다"며 "돌찻상은 작업하기는 어렵지만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생활공예 용품으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02)733-5322.

김주일기자



◇종교미술제에 출품된 강록사씨의 '아미타구존도'.

17일 대한민국 종교미술제 한국화·조각·공예등 99점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의 미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국제 디자인 프라자에서 열리는 '제 7회 대한민국 종교미술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문인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총 99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작품 등을 선보이는 불교에서는 강경구, 이호신, 김선두, 손연칠, 강록사, 오원배, 이점원, 황주리 등 10여 작가가 참여한다. 또 특별전에는 동국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화경>을 판석에 새겨 놓은 '법화경석'과 조선후기 목조각품으로 불자들의 발원문을 넣어두는 '소통(疏通)' 이 전시된다. (02)708-2164.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6:30 새로운 인생
09:05 차 한잔의 선율
12:20 백팔가요
14: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8일 07:40 팡팡 룸비니 동산
9일 08:30 정세채의 선식 건강법
10일 12:20 이화숙의 노래교실
11일 09:20 설수진의 러빙유
12일 14:10 최완수의 불교문화 바로알기
13일 21:40 천상천하 가요독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새로운 인생(10월 13일 06:30~07:00)=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 노년층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그려보는 프로그램.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보는 시간이 될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방송.

■불교텔레비전

▷설수진의 러빙유(10월11일 09:20~10:00)=1998년 가족과 함께 귀순한 귀순배우 김혜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 연기자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그의 앨범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당 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당치 발란스
(糖治) BALANCE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분 180,000원
개발자(김종현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재임중
- 당치발란스의 임상실험 -
당부하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200그램의 탄수화물 식이 부하 후 2시간까지의 최고 혈당치가 160mg/dl 이상인 건강인 21명 중 90%인 19명에서 혈당강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혈당 감소치는 29mg/dl이었다. 최고 혈당치 120 mg/dl 이하인 실험대상에서는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아미노젠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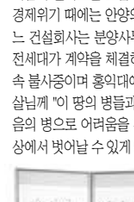
소리산 참선 캠프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개원 기념 특별 수련회
와 선 (누워하는 참선)
호흡에 맞춰 108배, 선체조 도인건강법
◆ 절, 독경, 염불, 참선, 위빠사나 수행후에 20분만 투자하십시요. 와선 삼매의 상쾌함과 놀라움을 체험
◆ 피로, 몸살, 힘듬, 지침, 졸림, 혼침을 극복하는 신비한 묘약을 얻게되고 특히 맑고 빛나는 눈빛을 언제나 유지하게 됩니다.
◆ 단전혈이 열리며 숨이 깊어지고 수승화강과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는 신비로운 체험이 즉석에서 옵니다.
◆ 기혈순환이 극대화되어 사기, 병기, 객기, 탁기는 빠져나가며 에고의 업장은 소멸되고 머리는 항상 맑고 청냉하며 가슴은 시원하고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져 생활에 큰 활력소가되며 실제로 정수리에서 서늘한 기운이 나옵니다.
※ 대 상 : 고시생, 수험생, 수행자, 사업가, 예술가, 컴퓨터 직종, 정신적 근로자, 직장인
※ 날 짜 : 월, 화, 수, 금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 입회비 : 1만원 ※ 월회비 : 3만원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전화 02)456-4994 · 0035 (팩스)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출구앞 50M 이망스 가구 4층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동승복 직원일동 -
춘추복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동방,바지 ₩160,000
● 두루막 ₩140,000
조끼 ● ₩60,000
◆ 모직(울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하복
적삼·조끼·바지

●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 마 ₩160,000
● 모직 ₩160,000
셔츠

라운드형 차이나형 칠부
● ₩20,000 ~ 35,000원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중앙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전시된 사계절 상품 40%할인판매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지명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앳된 여승을 바랑을 질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을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춥가 후 줄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 달마 6폭병풍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지명스님 합장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1화 마하카사파의 귀의







이제 비로소 교단(敎團)이 완성되었고 불교의 포교사업도 순풍에 돛을 단 듯 쾌적한 항해를 하게 되었다. 마가다 국왕 빔비사라와 그의 백성들도 거의가 우파사카(Upasaka, 在家信徒)가 되어 정성껏 공양을 바침으로써 죽림정사의 안정은 확실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붓다는 "숙세(宿世)에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만나리라" 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몰래 죽림정사를 벗어나 동북쪽 오백리 길을 걸어 바이살리(Vaisali, 毘舍離)의 서북쪽에 위치한 파후푸트라카(Pahuputaka, 多子塔)의 숲으로 들어가 니그로다 나무 밑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다. 그는 장차 불교계를 이끌게 될 중요한 인물인 마하카사파(Mahakasyapa)였다.

마하카사파의 이름중 마하(Maha : '위대한')는 그가 불교사에 중요한 인물이기에 마하를 붙여 다른 카사파들과 구별하는 것이다. 한역으로는 대가섭(大迦葉)이라 쓴다. 마하카사파의 본 이름은 '핏파리'이고 카사파는 종성(種姓)의 이름이다. 그러나 본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마하카사파로 쓰기로 한다.

이윽고 니그로다 나무 옆을 통과하던 마하카사파는 그 밑에 앉아 계신 붓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붓다의 거룩한 모습이 마치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도 같다고 생각하여 그 앞에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히 섰다.

"위대한 사문이시여, 저는 카사파라는 출가승이옵니다. 어찌하여 이런 숲 속에 홀로 앉아 계시옵니까? 제가 간밤의 꿈에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성취하신 붓다(Buddha)를 뵈었는데 혹시 사문께서 제 꿈에 나타나셨던 붓다가 아니시옵니까?"

"카사파여, 그대와 나는 이렇게 만날 운명이 정해져 있는 사이로다. 내가 성도(成道)를 이루던 날 너와 너의 처가 함께 출가(出家)하여 수행 길에 들어서질 않았던가?"

이때 붓다는 마하카사파에게 귀중한 불교의 진리를 가르쳤고 이미 오랜 수행으로 마음이 열려 있던 마하카사파는 이내 진리의 깊은 뜻을 체득하면서 아라한(Arhan)의 경지에 올랐다. 이리하여 장차 불교의 교단을 이끌게 될 중요한 인물이 붓다의 새로운 제자로 영입되게 되었다.

* 우리는 이로써 붓다가 불교를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찾아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길까지 찾아다니며 능동적으로 교단의 일꾼들을 영입해 들이는 과정을 보게 된다.

이제 붓다의 불교(佛敎)는 마가다 제일의 교단으로 그 지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일천명이 넘는 큰 교단 속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섞이게 되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리하여 교단을 통제하는 규칙을 만들게 되었으니 그러한 규칙을 '계(戒)'라고 한다. 그 계를 모아 놓은 것을 '율(律)'이라 하고 다시 이를 해설하여 교리(敎理)로 정한 것을 '논(論)' 그리고 붓다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경(經)'이라 하며 경(經), 율(律), 논(論)의 세 부분을 합쳐서 '삼장(三藏)'이라 한다.

처음에는 누구나 불심(佛心)만 있으면 비구(Bhikkhu)가 되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비구로서 자질을 못 갖추고 수행자의 예절조차 가리지 못하는 자들이 속출하자 교단 내부를 사제관계로 개편하여 새로 입단한 비구는 자기에게 불교의 교리 등을 지도하여 줄 화상(和尙)이 정해졌고 신입 비구는 화상의 지도를 받는 대신 화상을 섬기도록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비구가 교단(Sangha)의 한사람으로 완전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계를 '구족계(具足戒, Upasampanna)'라고 한다. 새로운 비구(比丘)는 구족계를 받으며 교단(僧伽)의 동의를 거쳐야 했다. 이때 구족계를 받을 사람이 적어도 스무살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났다. 스무살이 못된 사람은 사미(沙彌, Samanera)자격으로 출가가 허락되었고 후일 자격이 갖추어 지면 구족계를 받아 비구가 되었다.





아직 붓다가 마가다의 서울 라즈기르의 죽림정사에서 불교의 기틀을 다지고 있을 무렵, 갠지스강의 상류줄기인 랍티강 유역에 자리잡은 코살라국의 수도 스라바스티(舍衛城, Sravasti)에는 수닷타(Sudatta, 須達多)라는 대부호가 살고 있었다. 코살라의 대부호 수닷타는 갠지스강을 오르내리며 무역을 하여 엄청난 재력을 이룩한 대상인 이었다. 수닷타는 어느날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가다의 수도 라기르에 있던 처남네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참 오래간만이야 처남. 그동안 별일 없었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가? 왜 이리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거야."

"나는 지금 큰 공양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야, 내일 부처님과 스님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기로 했거든. 매부는 오래간만에 이곳 마가다국에 오게 되어 잘 모르겠지만 이곳 시타바나(寒林)에 부처님께서 와 계셔서 내일은 우리집으로 모시려는 것이야. 내일 아침 나와 함께 부처님을 모시러 갈까?"

처남의 이야기를 들은 수닷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말만 듣던 부처님이 실제로 출현하여 계시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다. 이때 수닷타는 부처님을 친견(親見)할 수 있다는 감격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

생산처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빈집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문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많이 위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국민들의 의식이 물질만능에 너무도 젖어서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을 터는 주부가 생기기도 하고, 그토록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도 졸업 후 취직을 할 수 없어 해외로 이민을 가는 젊은이들이 생기는 등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문제들이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오탁악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오늘 내일 일은 분명 아닐 터인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요?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해서 자비의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답 우리나라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처럼 기술이 요요합니까? 마음이 깨어서 삽니까? 정신세계를 추구하며 삽니까? 물질을 좇으면서 자기 분수에 맞춰서 살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정신세계는 언제 돌아다보겠습니까. 미래의 세계에서 본다면 지금 현실세계가 과거가 되고, 과거의 세계에서 본다면 정신세계가 미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계와 정신세계가 둘이 아니요, 또는 과거와 현실이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마음으로 다스려 가면서 모든 거를 놓는다면, 크면 큰 대로 다스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다스려서 놓는다면 화목이 오지 않을 수 없고 조화를 이루어서 끝간 데 없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과학으로 이탈 없이 가려면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신세계, 무심 도리를 알 수 있게 해야 하죠. 무심 도리를 배워야만 물질세계에 바로 내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과학적인 문제를 첨단으로, 정신세계로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눈 달리고 귀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머리가 영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 하면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보고 들은 게 없느냐. 예를 들어서, 남들이 자장면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자장면을 만드는 것도 못 봤고 먹어 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먼저 자장면을 연구해서 만들었고 먹어 봤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인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말씀하듯 내 생산처가 여기 있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쥘 수도 없지만 내 생산처가 무궁무진하게 내 깊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갑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그 핵심을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불어넣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남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첨단의 무심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물론 말은 다르지만 그 뜻은 다 똑같았습니다. 벌써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 주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빈집 단속하는 거죠. 빈집! 마음에 주인이 없다면 '네 마음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한마음으로 너의 마음속에 같이 밝게 할 수가 없다. 한마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임제 스님이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주지 못할 것이고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니라."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돼서 털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서 바로 세균성, 영계성, 귀신들, 도깨비 모두가 들락날락거려서 녹이 슬고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그 집은 순간 망가질 수 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주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생산처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빈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신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잘되게 해 달라고 바깥으로 찾는데 아무리 해 봐도 그건 허탕이에요. 공덕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나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흙을 파내도 흙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물도 말없이 흐르고, 봄이 오면 말없이 잎이 푸르르게 나오고 꽃이 피는가 하면 가을이 되어 저절로 낙엽이 져서 떨어지곤 하지요. 이 무상의 도리를 알아야만 이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이 찰나에 돌아간다는 점을 여러분이 캐치해야만이 물질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세계로 들 수 있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과학으로 첨단을 달린다고 하지만 정신세계로 첨단을 이루는 과학이 돼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대로 과학이니만큼 정신과학으로 첨단을 이룰 수 있어야만 되죠. 그러려면 우리 조그마한 인간의 씨가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고, 우주를 굴리고도 남음이 있고, 우주를 딛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 능력자가 되고 대 자유인이 돼서 자력과 광력과 전력과 통신력을 자재로이 끌어서 연구할 수 있고, 그런 연구와 기술, 문화 문명을 꽃피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물리가 터진다면 바로 여러분의 몸과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나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 "인간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이 찰나에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물질세계로 부터 벗어나 정신세계로 들 수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요?

문 평생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자던 사랑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서로를 배신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랑보다는 자식들에 대한 의무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닌 현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요? 영원한 사랑은 본래 없는 것인지요?

동생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면 놔 줘라. 그리고 애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니까 들어오면 따뜻하게 말해 주고, 또 그것도 싫다면 그저 편안하게 해 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인은 내 말을 듣고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살 양으로 조그맣게 장사를 하면서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작은마누라가 재산을 다 거덜 나게 하고 죄 긁어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미안해서 죽겠거든요. 큰마누라에게 들어올 수도 없고 안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부인이 그랬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만날 사람 만나고 하시오. 애들의 아버지인 당신이 우리 가족의 하늘이고 기둥이고 주춧돌인데 만약에 당신이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참, 당신은 사람도 아니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소."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잡아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세련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억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러 주면 스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안되더라고 그러거든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인내가 필요한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사랑을 한다면 모두 다 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울지언정 상대를 울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괴로울지언정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비요 사랑입니다. 입 안에 붙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금방 만나면 "야! 너, 나 사랑해! 사랑해!" 하다가 며칠 안 가면 싸움을 하고 온통 야단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깨비장난을 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건지려고 뛰어드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자비예요.

그래서 때로는 싱긋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참, 그러니까 한눈팔더라도 "여보, 당신이나 나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 그렇게 저거 했다고, 나가서 맛있는 것 먹고 그저 마음 편안하게 삶의 보람을 좀 잠시라도 느껴 보시오." 이러고선 탁 쥐 버리고 편안하게 있으면 좀 좋겠습니까. 조용하게 말이에요. 외려, 그냥 즐즐이 붙어 있는 거 다 떼버리고 편안하게 조용한 데 앉아 있으면 그 참,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붙어 있는 것만 좋은 줄 알지만 탁 털어 버리고선 훨훨 날아다닐 때가 여간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집 저 집 쳐다보면 집집마다 불빛이 찬란하게 별빛처럼 불이 비치는데, 아주 순탄하게 다 좋은 거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그냥 이리 박히고 저리 박히고 그러질 않나, 사람이 죽었다고 울지를 않나, 온통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야단들을 하지 않나, 그게 도대체….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데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웃음으로 대해 주고, 생활 속에서 어떠한 고통 받는 일이 있더라도 "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욕하지 마세요. 한생각이 그렇게 무서워서, 모진 욕 한마디가 상대에게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긴들 좋겠습니까? 또 남편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오래 살 겁니까? 한 철인데. 욕을 먹든 매를 맞든, 나가서 바람을 피우든 어떻게 하든 말이에요. 사랑을 한다면 다 줘 버리지 그깟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놓고, 들어오면 따뜻하게 웃고 대해 주고 속은 상하더라도 속상한 건 주인공한테 맡겨 놓고 '당신만이 저 사람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다.' 고 믿고 거기 놓을 때에, 그 주인공하고 내 주인공하고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든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대해 준다면 그곳으로 고이게 마련이고, 더운 여름에는 자리를 시원하게 해 준다면 시원한 데로 앉을 것이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회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진짜 해야해요.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말고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각자의 업보예요. 자기 배우는 사람들은 나의 근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되는지요? 밖에서 찾지 않고 오직 내 안에서만 찾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부부가 산골에 살면서 삼 형제를 길렀어요. 그런데 막내는 아주 늦게 낳았죠. 옛날에야 지금처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으니까요. 늦게 생겨서 그거 낳아 놓고선 어린 것을 두고 부모가 고만 죽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들 들만 있으니 형들이 사냥을 해다가 그걸 팔아서 먹고 살고 이러다가 형들마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 할 수 없이 사냥을 나가서 토끼나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연명을 하고 살았더랍니다. 하루는 산골짜기에 가니까 사슴 두 마리가 그냥 붙어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저거라도 잡아서 갖다가 팔아야 입에 풀칠을 하겠다 싶고, 그래야만이 또 남한테 꾸어다가 먹은 쌀도 좀 갚겠다 싶어서 활로 그냥 쏘아 버렸단 말입니다. 새끼 두 마리가 비비고 놀다가 그냥 한 꼬챙이에 다 꽂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막 나서는데 어미 사슴이 또 왔어요. 어미 사슴이 와서 그 새끼 사슴에 꽂힌 화살을 빼기 위해 그냥 발버둥이를 치는데 거기서 피가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미 사슴이 막 그냥 엉엉 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 어른 사슴마저 잡으면 오늘은 수지가 맞겠다 싶어서 화살 하나를 또 겨냥하려고 그러는 순간 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미가 쓰러져요. 참 이상스럽다 그러고는 거두어서 내려가 보니까 어미 사슴이 그냥 새끼 사슴을 안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스럽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으로 내려와 화살을 빼고, 그 어미가 왜 죽었나 보기 위해서 동네 여러 사람하고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모두 동강동강 끊어졌어요. 그 동강동강 끊어져서 죽은 걸 보고 그때서야 그걸 안 거예요. 나이가 스무살도 안 됐지만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에. '아하! 이것도 역시 우리 엄마와 같구나.' 어린 자기를 두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자기 손을 붙들고 눈을 감지 못하던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돼지나 사슴이나 토끼나 다 엄마가 있고 부모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사람이나 짐승들이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또 부모가 되고 이러는 도리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그거를 몰랐었거든요. 그 도리를 알고 나서 그거를 그냥 판 게 아니라 꼭 싸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가서 그 잡은 자리에다가 묻어 줬어요. 묻어 주고 그때서부터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절로 들어갔어요.

절로 들어갔는데 스님이 "뭘 하러 왔느냐?" 하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해 보니까 덧없이 살기는 정말이지 싫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저로운 데다가 더욱이 인제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미 사슴이 그렇게 죽은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변화가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여길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것을 아느냐?" "뭘 말입니까?" "네가 공부하면 저절로 알게 되느니라. 그 어미 사슴이 누구였는지, 그 새끼 사슴이 누구였는지 네가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니라." 하시거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진을 한 겁니다. 그것을 빨리 일러 줬으면 공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지금으로 치면 한마음의 도리, 나 자체 있기 이전을 찾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은사 스님께서 "얘야! 저기 흘러가는 물 좀 봐라. 물이 틈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이 틈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공양 짓고 나무 해 오고 앉고 서고 눕고 하는 게 모두 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세 가지를 물었단 말입니다. 가만히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틈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냐?"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일어나서 삼 배를 올리고 딱! 딱! 딱! 손뼉을 세 번을 치더니만 탁 꿇고 앉았거든요. "인제는 그 사슴이 누군 줄 알았느냐?" "예, 전자에 제 어머님이요, 제 형님 두 분입니다." 하고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가 이렇게 어머니인 줄 알고 형님인 줄 알았지만 형님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수행하면서 조상들의 마음을 들 아니게 한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할아버지서부터 모든 분들이 산골

☞30면으로 계속

무심의 도리로 정신세계 일깨워야

답 어느 때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자식 다섯을 낳아 놓고 부인이 그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같이 한 푼 두 푼 벌어서 훨물점을 하게 되고 아주 부자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만 남편이 이쁘고 나이 어린 여자를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그러기에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면 놔 줄 수 있지 않느냐. 남편이 오죽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어려서 장가들어서 가난에 찌들고 그렇게 살았으니 당신하고 무슨 애정이 있겠느냐. 그러니 애정 한번 느끼면서 살아 보겠다는데, 그것을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누이 뼈저린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다 줘 버리면 그뿐인 것을, 뭐 때문에 저렇게 울고 저렇게 애탄지탄 끈적끈적하게 애를 쓰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냥 '모두가 못나서 그러니까 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옛날에 생각도 해 봤죠.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없애야 되는 거는 바로 마음이죠. 그 요동치는 마음을 없애고 탁 놔 버리는 거예요. 이까짓 몸뚱이, 이까짓 고깃덩어리 한 철 사는 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한 철을 울고불고 왜 애를 써요? 그러니 편안하게들 사세요.

가 전자에 부인을 그렇게 속을 썩이고 울렸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안고 나오고 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 탓이 아니거든요. 자기 탓입니다, 모두. 그러니 남을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밖에서 찾지 않아야 하는 이유

문 스님의 법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언제나 나의 근본을 내 안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속에는 수없이 많은 수행법들이 있는데 내 안으로 찾지 않는 많은 수행법들을

과거에 집착하면 그게 업이 되고 그냥 뛰어넘으면 도입니다

☞29면에서 계속

에서 쪽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많은 짐승들을 살생하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한마음으로 놓으면 할아버지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형제들의 마음도 내 마음인 그 마음은 체가 없으니 내 물 한 그릇에다 물방울을 수만 개를 넣은들 어찌 한 그릇이 아니오리까. 그러니 이것을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있기 이전을 찾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나 있기 이전이 바깥에 있습디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여러가지 씨를 갖다 심으니까 참외가 나오고 오이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죄 나왔어요. 그런데 수박씨든 참외씨든 무씨든 홀딱 그 껍데기는 벗어지고 알맹이가 싹이 돼서 나오지 않습디까? 그러니 싹이 돼서 나와서 한 철 사는 겁니다. 그게 한 철이에요. 한 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서 열매가 열려서 열매가 그 나무에서 무르익어요. 무르익어 가지고 씨가 거기 들어 있어요. 작년에 있던 씨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씨가 그 속에 들어 있으니 그 속에서 찾아야 될 텐데, 이건 땅에 심었다고 바깥에서 그걸 찾는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바깥에서 각각 찾는데, 여러분에게 구비돼 있는 마음이라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전부 여러분한테 구비가 돼 있지 바깥에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도 있고 우주도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내가 나오기 이전의 씨가 내 속에 들었다 이거예요. 내 속에 들어 있고 씨도 그렇게 들어 있는데 아니, 참외씨를 심으면 참외 싹이 나지요. 참외 싹이 나고 참외가 열리지 다른 게 날 수 있나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지요.

그 속에 들어 있는데도, 이것이 거죽은 노랗고 속은 하얗고 뭐, 물렁물렁하고 씨가 들어 있다는 둥, 여러분은 매일 이론으로만 듣고 실천에 옮길 줄 몰라요.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줄을 모르고 만날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고 이론으로 하다 보니까 망상이 생기고 망상이 생기니까 놓을 줄도 모르고 놓을 줄 모르니까 만날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네? 제 씨는 제가 갖고 있으면서도 바깥에서 제 씨를 찾느라고 온통 헤매는 거지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온통 바깥에서 찾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미거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타고난 사람인데, 99%가 부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어찌 그럴까 이거지요, 네? 사람 되기 이전에 얼마나 쫓기고 쫓기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얼마나 그 시련을 겪었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겪으면서 경험을 얻고, 겪으면서 지혜를 넓히고, 겪으면서 좋고 나쁜 걸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인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르락내리락하고 윤회에 말려 끄달리면서 쳇바퀴 돌아가듯 끝없이 그 고통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주인공만이 낫게 해 줄 수 있다.' 하고 입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엎드러지면 내가 일어나듯이, 나한테서 병난 거는 나한테서밖엔 해결할 수 없듯이, '내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맡겨 놓아야 합니다.

습을 떼어야 하는 이유?

문 지금까지 해 온 습을 떼는 게 업을 녹이는 게 되는 것인지요? 남을 미워하는 습, 남이 미워서 험담을 하는 습, 자식에게 지나치게 착을 갖고 공부하라 재촉하는 습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습을 뗐을 때 과연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요?

답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라는 게 무슨 별달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탄생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게 공부예요.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면 불(佛)이요,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敎)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별다른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빼놓고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움죽거리고 그러는 것이 다 공부예요. 참선이구요.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면 그냥 참선이 되고, 누워서 하면 와선이고, 앉으면은 그대로 좌선이 되구요. 그대로입니다.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 행선이 되니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심하시라고 하는 것은, 극히 더 우리가 나쁘다 좋다, 밉다 곱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항상 꼬집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업(業)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 구업(口業)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럭하면 안되죠. 밉다 곱다 하질 말고 안에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저게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니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 줘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래야만이 그 모든 업이 녹아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신도가 남편이 술을 마시는데 간절하게 믿고 자꾸 관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주니까 어느 날부터 술도 안 마시게 되니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더랍니다. 그런데 그냥 악하게 말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악은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안 한다면 송두리째 없어지게 됩니다. 길고 짧고 더디고 느리고 하는 거는 있을지언정 그게 없어집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듯이, 녹음기에 자동녹음이 됐는데 자동으로 또 거기다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도 아니 됩니다. 칼로 물 베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없애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주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습을 떼어 가면서 모든 것을 갈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이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에, 한 철 사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다음에 또 나와서 고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셔서 우리가 요다음 생에 또 나와서 고생한다는 거보담도, 지금 현실에 자기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이 항상 염주 알이 같이 꿰여 있듯이 그렇게 꿰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성취를 해야 빨리 그네들도 따라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한 철입니다, 한 철! 캠핑 왔다가 한 철 놀다 가는 한 철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웃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울며 아프며 복장을 찧으며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콩씨 얘기를 가끔 허죠. 무씨 얘기도 하고요. 싹이 없어지면 고만이지 이러지마는 그 종자가 있으니까 또 심어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 고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돌아가는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콩씨가 팥씨가 될 수도 있고, 팥씨가 콩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참 상승의 사람이 사람의 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의 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자유자재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놓는 작업을 해나가세요.

> 자기가 울지언정
> 상대 울리지 않고
> 내가 죽을지언정
>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 내가 괴로울지언정
> 남 괴롭히지 않는
> 그것이 진짜 자비요
> 사랑입니다

죄가 많은 데 깨달을 수 있는지?

문 죄와 업이 이토록 많은데, 저 같은 사람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 여러분이 과거에 살아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양심이 허락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데 내가 무슨 도를 이루랴!' 이러지 마시고, 나쁜 것 좋은 것이 다 한군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군데다가 그냥 양면을 다 놓으시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지금 현실에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불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본래 놓고 가고, 본래 자기 자신이 바로 자불인데, 자불이 자기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고등 동물로서 쓰고 단 거를 알게끔 형성시켰는데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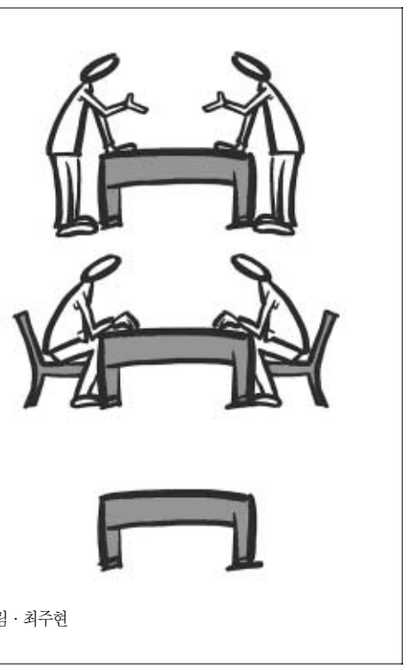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지금 나쁜 거 좋은 것이 반반 섞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뜨듯이,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듯, 건강하고 건강치 않고, 잘되고 잘못되고, 길고 짧고 넓고 좁고, 이런 게 모두가 그냥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겁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봐서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 누구한테 묻지 마시고 거기다가 물으시고 거기다가 놓으세요. 그러곤 그냥 해나가는 것이 정법이에요.

그렇듯이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잡으세요? 마음으로 어저께 걱정 내일 걱정, 이렇게 만날 하고 지내니까 '태어나면 고(苦)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태어나도 태어난 사이가 없단 얘기예요. 왜냐? 보이는 데서 심부름 하게끔 자기 몸을 자기가 형성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공체란 말입니다. 공체! 내 몸속에도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인연을 이어서, 청법가에 '새 인연을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과거도 없다. 왜냐하면 지나갔으니까. 현재로 이어진 거예요. 그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현재로 이어진 거구요.

그러니까 현재에 모두 우리가 공했으니까, 함이 없이 하는 거니깐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이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깐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고 거기다 놓고는 부지런히 심부름만 하면 돼요. 물에 떠내려가든지 섰든지, 하여간에 말입니다. 한계가 있는 몸뚱이는 언제든지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자기의 자신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보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차 얘기하지만, 내 불성은 본래 영원하다, 내 부처는. 본래 이 세상 돌아가는 거는 크다 작다가 없다. 왜냐?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듯 하니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바람처럼 나가 버리니까요. 그런데 자기 양심이니 뭐니 찾고선 거기다가 부착을 시키니까 이거는 외려 사람의 마음이 낙오가 되고 의욕이 없어지고 걸음이 잘 떼어지질 않아요. 그냥 나쁘든 좋든 싹싹 쓸어버려야죠. 본래 진리라는 게 싹싹 쓸고 가는 거예요. 거기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한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다고 하겠지만, 최상승에 이르려면 그렇게 하세요. 잘못하고 잘한다는 양면을 다 놔라. 본래 진리가 양면을 놓고 가는 거다 이런 겁니다. 본래 양면을 놓고 가고 본래 고정된 게 없이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보는 것도 나툼이요, 바로 듣는 것도 나툼이요, 찰나찰나 나툼이고 찰나찰나 함이 없이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도 없고 공도 없고 다 없다' 하는 뜻은 뭐냐? 여러분은 과거를 생각하고선 그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있었던 거를 걱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걸 걱정을 하고 이럽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집착, 관습, 욕심, 그 모든 게 부착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는 그것이, 그대로 일체 만법이 다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그게 업이 되고 과거를 생각지 않고 그냥 뛰어넘으면 업이 아니라 도입니다.

그러니깐 과거는 묻지 마라, 이런 소립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는데 뒷발자국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를 알면,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거, 모두가 함이 없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집착을 두지 말고, 고난을 고(苦)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나간 거니깐. 그렇게 모두가 공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어저께 참 몹시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벌써 한 발짝 떼어 놓고 두 발짝 떼어 놓은 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떼어 놓은 거니깐 잘못한 것도 거기서 한 거고 잘한 것도 거기서 한 거니까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면 그냥 컴퓨터에서 지워지면서 바로 그 마음이 그냥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99%가 정말 고등 동물이라는 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깐 우리가 산다 죽는다도, 내일 죽더라도 걱정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심부름꾼이 뭘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있습니까? 한 발짝 떼어 놓고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 놓고 없어진다는 것만 잘 아시면 나쁜 것도 법이고 좋은 것도 법이고, 잘못하는 것도 법이고 잘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면을 다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도입니다. 그런데 양면을 다 놓으려면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자기가 놔야지, 본래 진리라는 것은 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놓고 가는 걸 불들고 괜히 애를 쓰겠습니까?

잘못하고 잘한다는 양면을 다 놔라
본래 진리가 양면을 놓고 가는 거다

답 끝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사이버 신행이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은 세이클럽 '청년불교 우리사랑' 대전지역모임 9월 법회 차담시간 모습.

매머드급 동호회 비결은 '순수'

5천명 이상 온라인 불교카페 증가 바른 정보제공 · 활발한 소모임 '필수' 수행점검, 신행상담 전문인력 필요

회원 5천명이 넘는 매머드급 인터넷 불교 동호회가 늘고 있다. 만들기 쉽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대형 포탈 커뮤니티는 사이버 신행을 새로운 신행 패턴으로 정착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사이버 신행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열린 일주문으로 불심들이 모여 전개된다. 때문에 사찰을 방문해 법회를 보며 신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상공간의 불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경전을 보거나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것이 특징. 온라인에서 불교를 접하고, 다시 오프라인에서 사찰 정기법회, 성지순례, 수련회 등의 신행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불교 포교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잘 나가는 카페들

현재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동호회는 다음 카페의 '나무아미타불'. 2001년 3월 개설되었지만 회원수가 1만 6천명에 육박하고 동호회 내 게시판 20개, 자료실 4개, 소모임 1개가 운영되고 있다. 오프라인 모임은 없지만 염불과 정토신앙, 효사상 등에 대한 방대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고 매일 게시판에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다

99년 7월 만들어진 다음 카페의 '인연'도 회원수가 1만명에 가까운 불교 동호회. 자체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회원이 원할 경우 문자메시지로 '인연소식'을 보내고 있어 다른 불교 동호회에 비해 회원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다.

회원이 6천명 정도인 세이클럽의 '청년불교 우리사랑' 동호회는 2001년 3월에 개설돼 왕성한 온 · 오프라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의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봉사모임인 '보현행원' 등도 회원수 5천명에 가까운 매머드급 불교동아리로 성장하고 있다.

비결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가입과 탈퇴가 쉽다는 점이 도반을 늘려나가는 가장 큰 비결로 꼽힌다. 오프라인과 달리 동호회 일주문은 문턱이 낮아 누구나 가입해 자유롭게 글을 남기고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신심을 지향한다는 점과 방대한 콘텐츠 보유도 불자 네티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요인.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불교 정보에 실망한 네티즌들의 불교를 바로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있어서다. '나무아미타불' 운영자 온수현(ID 혜련)씨는 "정법을 소개하고 회원들이 와서 편안하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를 매일 업데이트 하는 것이 사이트 활성화 비결"이라고 말한다.

동호회 내 소모임 활성화도 중요하다. 소모임을 통해 다른 회원을 알게 되고 서로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자주 동호회를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스님의 적극적인 동참이다. 스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원들에게 수행이나 교리 등을 지도하면 구심점이 생겨 더 많은 회원들이 동호회 활동에 참석하게 된다. 실제로 경남 창원의 성불사 주지 성지스님이 운영하는 다음의 '보현행원'의 경우 스님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석하는 등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회원들의 오프라인 모임 참석률이 높다.

함정은 없나?

아직까지 사이버 공간에서는 불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아주는 스님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 특히 동호회 개설이 쉽다보니 불교 초심자들도 쉽게 동호회를 개설하고 불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불교동호회를 운영하는 많은 재가불자들은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이클럽의 '청년불교 우리사랑'의 운영자 이성학(ID tage2000)씨는 "정보마인드를 갖춘 스님들이 회원들의 수행 상태나 신행상담 등을 해 주면 동호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실제로 '청년불교 우리사랑'의 경우, 서울 법련사 한주 지묵스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건 게시판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더 선호하고 인기가 좋지만 아직까지 텍스트로 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또 플래쉬 애니메이션 등 청소년층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거의 없어 영상세대의 활동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다르마 팔라 탕카 센터

(http://www.bremen.de/info/nepal/)

탕카는 티베트 불교의 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으로 티베트 스님들이 주로 명상을 할 때 사용해왔다.

탕카에 대해 궁금하다면 다르마팔라 탕카 센터(http://www.bremen.de/info/nepal/)를 방문해보자. 탕카 갤러리에서 190여개의 탕카를 구경할 수 있다. 부처님의 모습을 담은 탕카에서부터 보살, 마하깔라, 육도윤회도 등 각 주제별 탕카의 의미도 그림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탕카를 담은 시디도 판매한다.

네팔 카투만두에 위치해 있는 다르마팔라 탕카 센터에서 개설한 이 사이트는 탕카의 의미와 역할, 제작 기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어 인기를 끈다.

국내 불교미술의 탱화와 비슷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 탕카는 근원적인 에너지, 물, 땅, 불, 공기, 대기 밖의 영기(靈氣)를 의미하는 흑색, 남색, 황색, 적색, 녹색, 백색 등 6가지 색상으로 그려진다.

강지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특별기고



박진호
디지털 복원 전문가



◇3D로 복원된 석불.

바미안 석불 복원 인류의 과제

지난 9월초 탈레반 잔당들이 남아 있어 위험하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1500년 전 조각된 세계 최대 석불인 바미안 석불을 참배했다.

바미안 석불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140km 떨어진 곳에 있다. 바미안은 해발 2,500m의 힌두쿠시(Hindu-kush)산맥 가운데 형성된 분지다. 분지의 북쪽에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길이 1km, 암벽엔 천여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석굴이 마치 벌집처럼 뚫려 있다. 그 암벽의 동쪽과 서쪽 끝부분쯤에 커다란 잎사귀 모양의 감(龕)이 뚫려 있고, 그 안에 대불입상(大佛立像)이 조성되어 있다.

이 곳을 최초로 다녀간 한국 사람은 신라 혜초(慧超, 704~787)스님이다. 혜초스님은 704년 신라에서 태어나 10대에 중국으로 건너가 불법을 공부했으며, 723년 중국을 떠나 727년까지 서역과 간다라 · 인도 · 서아시아를 순례했다. 바로 727년, 24세가 되던 해 혜초스님은 바미안을 찾았다.

혜초스님은 <왕오천축국전>에서 지금의 바미안을 '범인국(犯引國)'으로 명기했는데 당시 바미안은 지금의 석불 형태가 아닌 금으로 도색된 금불상(金佛像)이었다. 53미터의 거대한 석불은 금색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였던

1500년 전 조성된 세계 최대 불상
8세기 후 반불교 세력에 의해 수난

것이다. 따라서 바미안 계곡 입구에 막 들어섰던 혜초스님은 금박으로 화려하게 빛을 뿜는 바미안 석불의 장엄함에 압도당했을 것이 분명하다.

장엄하게 우뚝서서 지나가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었을 바미안 석불은 숱한 반불교세력들에 의해 여러 번 파괴를 당했고, 급기야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8세기 이후 이곳이 이슬람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이교도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13세기 징기스칸이 이곳을 침공하고 역시 바미안 석불에 손상을 주었다. 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석불의 얼굴 윗부분이 식빵을 썰어내듯 수직으로 잘려 나갔다. 그뿐 아니다. 17세기에는 석불의 왼쪽 다리 허벅지 아래와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마저 잘려나갔다. 인도 무굴제국의 황제 오랑젭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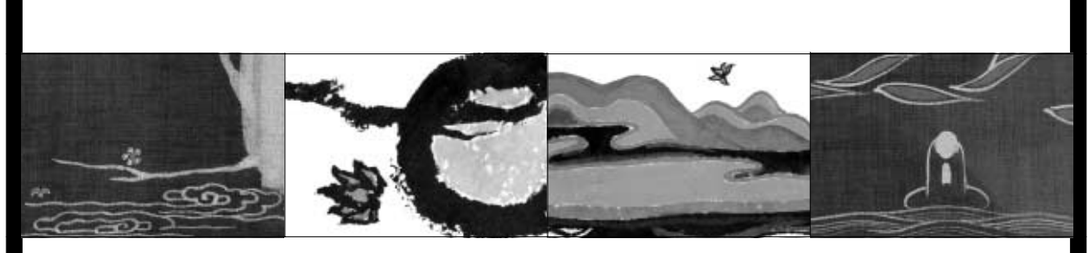
바미안 석불 재건은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다. 파괴된 문화유산을 복원해 일찍이 문화의 황금기를 일궜던 바미안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인류에게 부과된 진정한 과제가 아닐까?

지난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바미안 석불을 3차원 디지털로 복원한 바 있다. 지금은 2m 크기의 거대한 바미안 석불 실물모형도 제작을 구상하고 있다. 물론 아프간 정부가 바미안 석불을 실제 복원할 때 3차원으로 복원한 자료와 2m 모형 둘 다 아프간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머지않아 3차원의 디지털로 복원된 바미안 석불을 바탕으로, 온 인류의 값진 유산인 바미안 석불이 비로소 현실 속에서도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천년전 혜초스님의 눈으로 보았던, 인류문화의 정수였던 바미안 석불을 21세기인 지금 다시 되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선원으로 맛보는 禪香三昧
에서 빠져드는 修行三昧



'선원'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발행하는 불교 월간지입니다.
'선원'은 불교의 대중화 · 수행의 전문화 · 선문화의 생활화를 추구합니다.
'선원'은 심층취재와 기획연재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선원'은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매월 받아보길 희망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선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재단법인 선학원 편집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02)734-9654~6 | jaedan@kornet.net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바라나시 갠지스강-생사의 노래(273×193cm).

삶과 죽음 공존하는 구원의 江

마음 씻고 하늘로 돌아가는 길

(바라나시 갠지스강에서)

삶과 죽음이 한자리에 펼쳐지는 곳.

생사(生死)의 길이 본래의 면목(面目)임을 깨닫게 하는 곳. 불과 물이 상극(相剋)이 아니라 연기(緣起)요, 상생(相生)의 존재임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바라나시(Varanasi)의 갠지스(Ganges)강이다.

누구나 인도를 여행할 때 빼놓지 않는 갠지스강은 '강가(Ganga)강' 으로도 부르는데 이는 어머니의 신(神)(Gangamataji)으로 숭배하는 까닭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끝끝내 구원해 준다는 어머니의 강, 갠지스 주변은 인류의 고향이자 영혼의 안식처로 연일 수구초심(首丘初心)이 되어 북적되고 있었다.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전 자전거 릭샤를 나누어 타고 강가에 도착한 일행은 강을 건너기전 온갖 사원이 즐비한 뒷골목을 먼저 탐방했다.

온갖 오물과 쇠똥, 그리고 비릿한 냄새. 드러누운 채 뼈만 남은 늙은 걸인의 눈빛. 비좁은 골목에서 호객행위를 일삼는 젊은 상인. 뛰어다니며 살판난 소와 원숭이, 그리고 수없는 종교 사원이 별천지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저마다의 신(神)을 향해 향을 사르고 예배를 하기 위한 복장과 치장, 화장한 모습이며 갖가지 의식행위는 가히 갠지스강변의 별천지로 나그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 중 황금사원으로 불리우는 비쉬와나트사원(Vishwanath Temple)은 회교사원과 나란히 눈에 띄는데 12세기 이후 이슬람교도와의 분쟁으로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고 한다. 총을 든 경비원이 눈에 띄듯 현재 힌두교인만이 출입이 가능하다는 곳을 모두 배낭을 맡기고 비공식으로 타협해서 좁은 계단을 올랐다. 덕택에 나는 품속에 감추고 간 화첩을 꺼내 황금사원을 담을 수 있었고. 미로의 골목엔 한국인을 위한 숙박소개가 한글로 씌어져 있어 반가우니 우리 여행객들이 반드시 찾는 지역임을 여실히 실감나게 한다. 인도인과 외국인들 틈에 끼여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다녀갔을까. 인도와 인연이 닿은 한국인들.

그들은 분명 갠지스에 와서 삶과 죽음을 떠올리며 조용히 전율하였으리라. 적어도 그 순간에는 영혼의 안식처로 받아들였으리라. 무엇이 고통이고 진정한 행복인가를 돌이켜 보았으리라.

동이 트기 전 서둘러 배를 빌려 선착하자 온갖 토산품과 등잔불이 모래톱을 향해 배안에 가득하다. 모두들 소망과 참회의 등불을 가슴에 피워 어머니의 강에 조용히 띄워 보낸다. 그 모습들이 유난히 오늘따라 맑고 경건해 보인다.

스산한 백사장 천막에서 짜이 한잔을 사 마시며 서성이는 사이, 마침내 해가 올라오자 현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옷을 벗고 강물에 뛰어든다. 어느 배엔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주문을 외고 차례차례 물속으로 잠기는게 아닌가.

다시 배를 타고 도강 하는데 개 한 마리가 헤엄치니 개도 강을 건너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강폭을 바라보며 내뱉는 누군가의 말이 섬뜩하게 들려왔다.

"아, 저 개요. 매일 강가에 버려진 인육(人肉)을 먹어 저렇게 힘이 솟을 겁니다. 아마도…."

개의 숨찬 도강을 지켜보는 사이, 화장터엔 흰 연기와 매케한 냄새가 진동하고 주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불어나 갠지스강 해돋이의 장관을 만끽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이, 물을 마시고 몸을 씻는 이,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과 어린아이를 물에 담구는 이, 온갖 원색의 사리와 검붉은 피부의 나신들이 만다라를 이루고 소망의 등불을 물에 띄우는 성스러운 모습이 강물위에 펼쳐졌다.

생(生)과 사(死)의 향연. 육신을 거두고 하늘로 돌아가는 길. 강물에 영혼을 씻고 불길따라 천상에 오르는 다비의식은 애절함 보다는 순리를 따르는 인간의 길로 기려진다.

그런데 잠시, 십년 전(1993년)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의 다비장길에 내리던 가을 꽃비와 만인의 염불송, 그리고 만장 행렬이 새삼 불꽃연기 속에 피어 오르는 게 아닌가. 오! 적멸(寂滅)의 세계. 생사의 코스모스(Cosmos).

"생(生)과 사(死)는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의 저류, 자연의 운행, 여기에서 생과 사가 다 같이 하나의 위대한 생명인 것이다"라고 한 윤오영의 <와병수감(臥病隨感)>으로부터 "나는 죽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에서 적멸을 느낀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없어진다. 끊임없이. 불생불멸이 모든 사물의 존재양식이란 생각이 들면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삶이 경외스럽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행동하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인간 삶의 온 과정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적멸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다"라고 갈파한 강우방 선생의 <적멸삼매(寂滅三昧)>가 되뇌어 진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에서는 산자의 행위나 죽은 자를 보내는 의식도 결코 만인에게 고르지는 못한 법인가. 갠지스강에 뿌려질 수 있는 뼛가루도 가진 자의 유족 순서로 다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세적 욕구의 반영이다.

화장터로 오는 시체는 대나무 들것에 실려 오는데 남성은 흰색, 여성은 오랜지색 천에 싸여 꽃을 치장한 채 실려와 강물에 담근 뒤 화장시킨다고 한다. 사망자 직계가족은 13일 동안 금식, 일절 집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전통이 보내는 자에 대한 남은 자의 예우라는 말을 들으며 또 갠지스강을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강가에서 되새겨 보는 생사의 반추.

"언젠가는 저 피어오르는 불꽃 연기처럼 마침내 내게도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리라."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인도그림기행 20

그림·글 이호신

예배위한 치장과 의식은 강변의 별천지
미로 골목의 한글간판 우리 여행객 반겨
화장터 흰 연기와 어우러진 해돋이 장관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행운을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2문제 맞추지 못해 낙방하는 수험생이 50%이상 된다는 통계를 보면 이것은 실력의 문제 보다 마음의 안정이다 그러므로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몸에 꼭 지니고 가야합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터님 앞에 놓으시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연꽃축제기념 행사기간 동안 전화 주시면 3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다. 위더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 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 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침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에 LCD창을 통해 에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9